

제9기 전주학시민강좌

경기전과 조선왕실제례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경기전과 조선왕실제례

■ 강좌개요

- 주 제 : 경기전과 조선왕실제례
- 일 정 : 2010년 9월 4일 ~ 10월 23일(매주 토요일 2시 ~ 4시)
-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 주 관 : 전주역사박물관 · 전주학추진위원회 · 전주시

■ 강좌내용

구 분	일 정	내 용	강 의 자
1 강	9월 4일	조선시대의 어진	조선미 (성균관대 교수)
2 강	9월 11일	『경기전의』로 본 조선 말의 경기전 관리체제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3 강	9월 18일	경기전의 건축과 공간	홍승재 (원광대교수)
4 강	9월 25일	전북지역 태조 이성계 유적	전주역사박물관
5 강	10월 2일	조경묘와 조경단	이옥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 강	10월 9일	경기전 제례와 제물 진설	최순권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7 강	10월 16일	태조의 능, 건원릉과 조선의 능침제도	홍석주 (서일대교수)
8 강	10월 23일	조선시대의 종묘제례	한형주 (경희대교수)

목 차

조선시대의 어진 조선미	05
『경기전의』로 본 조선 말의 경기전 관리체제 이동희	29
경기전의 건축과 공간 홍승재	45
조경묘와 조경단 이 욱	67
경기전 제례와 제물 진설 최순권	89
태조의 능, 건원릉과 조선의 능침제도 홍석주	119
조선시대의 종묘제례 한형주	141

조선시대의 어진

조 선 미 | 성균관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어진제작과정

1. 도감설치(都監設置) 및 화원선발(畫員選拔)
2. 초본과정(草本過程) 및 직조(織造)
3. 상초(上綃) 및 정본설채(正本設彩)
4. 후배(後裊) 및 장축(粧軸)
5. 표제
6. 봉안(奉安) 및 논상(論賞)

III. 현재 전해오는 어진의 고찰

IV. 맺음말 : 어진의 상징적 기능 및 의미

I. 들어가는 말

어진(御眞)이란 왕의 초상화를 말하는데, 왕의 초상화는 어용(御容), 수용(粹容), 진용(眞容), 성용(聖容), 왕영(王影)이라고도 일컬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처음 어진이 제작되었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삼국시대에 왕의 초상화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보이는 기록 - 『당서(唐書)』 예악지(禮樂志) 고려기조(高麗伎條)의 ‘화국왕형(畵國王形)’ 및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김수로왕진(金首露王眞) - 이 있지만, 어진제작이 명백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이니, 『삼국사기(三國史記)』 궁예조에 보이는 ‘부석사(浮石寺) 신라왕상(新羅王像)’이나 『창암집』에 보이는 ‘원주 신라 경순왕영전 중수기(原州新羅敬順王影殿重修記)’는 왕의 초상화가 사찰에 벽화형식으로 그려졌음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에는 어진제작이 영전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니, 즉 도성 내에는 경령전(景靈殿)을 두어 태조 및 역대군왕의 초상화를 5조씩 순환식으로 봉안하고, 도처(대개 개성부근)에 각 왕 및 후비의 원찰(願刹)을 두고 여기에 영전을 부설하여 진영을 봉안케 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어진은 현재 태조왕건의 소략본(근래 제작)이 전해오고 있으나 원화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공민왕 및 노국공주 병좌상(竝坐像)>은 복식사적 부면에서는 고려말 조선초의

양식을 보여주지만, 사실(寫實) 위주의 꺾진(遍眞, 실제 인물과 똑같이 닮아 있음)성은 결여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면 태조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숫자의 어진이 제작되었다. 또한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태조진전을 무려 여섯 곳(서울의 문소전, 영흥의 준원전, 평양의 영송전, 개성의 목청전, 경주의 집경전, 진주의 경기전)에 세우고, 선왕선후의 진영은 선원전(경복궁)에 봉안하는 등 진전체제의 윤곽을 잡아나갔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진전에 모신 영정이 거의 불타거나 없어져 버리고 진전건물도 소실되고 폐기되는 등 진전의 개폐(開閉)가 심했으나 어진 봉안처로서 진전의 존재와 필요성 자체가 경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말까지 태조진전으로서는 준원전, 경기전, 그리고 열성어진 봉안처로서는 영회전, 선원전(창덕궁내) 등이 그 명맥을 이어갔으며 그 밖에 소규모의 어진봉안처소를 궁(宮)이나 각(閣)에 두었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어진제작봉안에도 불구하고 현존 어진은 소수에 불과하여, 전주 경기전의 태조어진, 고궁박물관 소장인 영조 어진, 6. 25 동란 때 부산소재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일부분이 소실된 영조 연잉군 때의 초상화 및 철종과 익종어진, 그리고 고종어진 넷 폭과 순종어진초본이 전해올 뿐이다.

II. 어진제작과정

어진제작은 도사(圖寫), 추사(追寫), 모사(模寫)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도사란 군왕이 생존해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려

내는 경우이다. 추사또는 추화란 왕의 생존시에 그리지 못하고 승하한 뒤에 그 수용을 그려내는 경우로서 그 꺾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몇몇 어진 및 왕세자의 초상화는 이 방식으로 그려졌으며, 전설상의 시조들의 초상화도 한결같이 이 방식에 의존했다. 모사란 이미 그려진 어진이 훼손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진전에 봉안하게 될 경우, 기존본을 범본으로 하여 신본을 그려낼 때 일컫는 말이다.

어진제작과정은 도사, 모사, 추사가 성격상 약간씩 차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초본을 내기까지가 더욱 다른데, 도사의 경우 왕의 용안을 보아가면서 그리게 되고, 모사의 경우에는 범본을 밑에 바치고 그리게 된다. 또한 추사의 경우에는 초본내기가 가장 난해하여서 생존시 옆에서 가까이 모셨던 근시인(近侍人)들이나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리게 된다. 그러나 일단 초본과정이 끝나게 되면 거의 같은 단계로 접어든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도감설치(都監設置) 및 화원선발(畫員選拔)

어진제작을 행하려면 우선 이를 담당할 기구나 인물의 선정이 있게 된다. 조선시대의 어진제작과정에 관한 기록을 훑어보면, 체계적으로 그 임무가 수행되기 위하여 때로는 도감이 설치되었으며, 혹은 종부시가 관장되거나 몇몇 감동각신의 지휘 아래 행해지기도 하였다.

도감설치의 경우, 그 구성인은 어진도사(모사)도감 도제조 1인, 제조 3인, 도청 2인, 행좌승지 1인, 낭청 2인, 가주서 1인, 가주관 1인, 기사관 1인, 감조관 1인이었으나 시기에 따라 약간씩 증감이 있었다. 그런데 도감설치란 조직화된 하나의 임시적 기구설치일 뿐,

어진제작시 도감을 설치하지 않는다 해도 감동각신이라하여 이에 비등한 직분을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었다. 또한 각신이외에도 도감 설치 때의 감조관 같이 기술적 부문에 이르기까지 화원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대에 화격(畵格)이 높고, 그들 자신 그림 잘 그리기로 이름 높던 선비들로서, 화사 곁에서 시종 주시하고 있다가 그 미진처를 발견하면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어진제작이란 이를 직접 담당하는 화사(畵師), 이른바 어진화사(御眞畵師)의 선발이 지극히 중요하다. 어진화사는 당대(當代) 화상(畵像)에 가장 공교하다는 자들을 대신들이 천거하여 그 중 제일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가 집필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재(試才)를 거친다. 선발된 어진화사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뉘었으니,

첫째가 집필화사(執筆畵師), 즉 주관화사(主管畵師)라 하여 용안(龍顔)을 담당했으며,

둘째가 동참화사(同參畵師)라 하여 시재의 경우, 집필화사에 비급갔던 자들로서 용체(龍體)의 주요하지 않은 부위를 담당했으며,

셋째가 수종화사(隨從畵師)라 하여 채색할 때 일을 도왔다.

참여하는 화원의 수는 대략 6인 정도였으나, 경우에 따라 13인에 이르기까지도 했으며, 이밖에 관아에 딸린 장인(匠人), 첩장(貼匠, 표구사), 침선노(針線奴, 바느질하는 노비) 등 많은 인원이 어진제작에 동원되었다.

2. 초본과정(草本過程) 및 직조(織造)

화원이 선발되고 관장기구(官長器)가 정비되면 일관(日官)에게 길일길시를 택하도록 하여 초본을 내었다.

초본은 어진의 경우, 죽청지(竹靑紙)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죽청지¹⁾는 유지(油紙)보다 폭이 좁아 연폭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흔히 유지²⁾를 사용했다. 그런데 유지는 초본을 내기 위해 특수하게 제조된 기름종이에 생강즙을 먹이는 강즙포수(薑汁布水)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³⁾

초본작업에 들게 되면 우선 화사의 재결(齋潔)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재소(齋所)에 머물게 하거나, 불결한 곳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심신을 휴식시켜 정신을 안정되도록 배려하였다. 또 복장의 경우, 소례복(小禮服)을 갖추어 화사가 두른 각대(角帶)에 화본(畵本)이 상하는 일이 없게끔 사대(絲帶, 끈띠)를 대신 두르도록 하였으며, 담배 역시 금하여 정제된 분위기를 갖추도록 하였다.

초본이 이루어지면, 2품 이상 일찍이 옥당(玉堂, 조선시대의 홍문관)에 있었거나, 승지, 사관 등의 벼슬을 지낸 자들이 그려진 초본을 보고 그 미진처를 아뢰며, 왕 역시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소위 봉심을 거쳐 고칠 곳은 고쳐 나갔다.

1) 죽청지란 대나무 속껍질처럼 희다고 한데서 온 말로 매우 얇으나 질기고 단단한 저지(楮紙)이다.

2) 유지는 초본을 내는 반 투명지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죽청지에 콩즙을 여러 번 올려서 만든다.

3) 李龜烈, 『畵壇一境 - 以堂先生의 예술과 생애』, 동양출판사, 1968, p.56.

이렇게 초본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초를 짜는 직조 작업이 행해졌다. 직조는 그림은 ‘화초(畵綃)’가 근본이라 할 만큼어진제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상초(上綃) 및 정본설채(正本設彩)

초본이 깨끗이 말려지면, 이 초(綃) 위에다 초본(草本)을 옮겨 그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상초과정이다. 정본 상초때에도 역시 일관에게 길일길시를 택하게 하여 행해지는데, 상초는 묵화(墨畵)로 처리한다.

상초 때에는 면부(面部)를 그리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그 순서는 대개 용안(龍顔), 용신범위(龍身範圍), 곤의(袞衣), 흉배(胸背) 그리고 화자(靴子, 신발)의 순으로 그렸는데, 용안묘사는 반드시 주관화사가 담당하였다. 그런데 그리는 순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 1872년 태조어진 모사 당시의 일정을 보면, 상초→착색→옥색(玉色)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⁴⁾

착색에 있어서는 대개 배채(背彩)를 했는데, 이것은 내구성과 자연스런 효과를 위해서였다.

어진 도사시 채색을 할 때는 특히 왕이 친림하여 화원이 빈번히 바라 볼 기회를 주었으며, 감동각신들과 함께 미진처를 논의하여 채색을 덧칠하고는 하였는데, 때로는 후배 뒤까지 가채(加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채과정이 끝나면, 다시 왕 이하 대신들의 봉심을 거치게 되며, 이때 미심한 부분은 재고되는데, 초본 봉심과는 다르므로 침배례(瞻拜禮)를 행했다.

4) 『御眞模寫都監儀軌』時日, 187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pp.5-7.

4. 후배(後楷) 및 장축(粧軸)

정본(正本) 채색이 완전히 끝나면 후배에 들어갔다. 후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이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배접의 법은 오로지 호말(糊末), 즉 풀 알갱이가 고운가, 굵고 거친가에 따라 뒷날 줌으로 상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당호말법(唐糊末法)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날짜가 많이 소요되므로 북경호말을 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후배 뒤에는 깨끗하게 말려야했는데, 잘 마르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동안 수시로 왕의 봉심을 거쳐 허락받은 옥축(玉軸), 락영(絡纓), 홍사(紅絲), 유소(流蘇), 봉안용 고리 등이 부착되었다.

5. 표제

장황(粧潢)⁵⁾을 끝내면, 표제과정으로 들어간다. 표제란 그 어진이 어느 왕의 초상이며, 그 제작시기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제는 조선시대 처음 얼마간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숙종연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화전 열성어진에 표식이 없으니, 만약 의외의 변이 있는 즉 분간이 어렵다하여, 조선 중 글씨 잘 쓰는 이로 하여금 이를 쓰도록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⁶⁾ 이후 조선조 말에 이르기까지 어진제작과정에서 표제쓰기는

5) 조선조에서는 의궤류에서 장황(粧潢/粧纘)이라는 용어가 보이며, 중국에서는 이를 裝潢이라고 썼다.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표구(表具)’라는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표구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6) 『肅宗實錄』 권28, 숙종21년 4월 甲午조.

불가결한 단계가 되었으며, 때로는 어필(御筆)이나 황태자필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6. 봉안(奉安) 및 논상(論賞)

표제까지 마친 어진은 다시 대신들의 봉심을 거쳐 길일길시(吉日吉時)를 택해 진전에 봉안했다. 봉안절차에 대한 의주는 상당히 엄격하여 봉안 하루 전에 먼저 고사유제(告事巾祭)를 행하고, 이어 봉안일 새벽에 고동가제(告動駕祭)가 있었으며, 봉안 후에는 작헌례(酌獻禮)를 행했다.

진전봉안이 끝나면 이제 논상만이 남는다. 논상은 어진제작에 참여한 전원에게 배풀어졌다. 따라서 상전(賞典)의 수혜자들의 범위 및 종류 또한 다양했다. 대체로 기록들을 살펴보면, 도제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안구마(鞍具馬) 일필(一匹), 제조에게는 명숙마(名熟馬, 혈통이 좋은 길들인 말) 한 마리를 내렸으며, 도청이나 낭청은 품계를 올렸으며, 표제서사관은 반숙마(半熟馬) 한 필이 사여되었다. 또 주관화사는 가자(加資 : 품계를 올리는 것)되고, 동참화사는 모두 동반(東班) 정직(正職)이 제수되고, 수종화사에게는 아마(兒馬) 한 필이나 궁(弓) 한 장이 사여되었다. 그리고 신연(神輦)이나 제기(祭器) 담당원, 그리고 직조(織造) 등을 도운 장인들은 각각 해당하는 조(曹)에 명을 내려 미포(米布)가 등급에 따라 나누어 사여되었다. 그러나 고종 때에는 규격에 따른 물품하사보다는 화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우했음을 살필 수 있다.

어진제작은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 및 절차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또한 군왕이하 제신(諸臣), 화사(畫師), 공장(工匠)에 이르기까

지 폭 넓게 인원이 동원됨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소요된 거국적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대 최고의 화사와 거국적 배려, 세심한 봉심을 거쳐 배태된 어진이 중국엔 ‘칠분모(七分貌, 7/10의 완성도)’ 면 극진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초상예술(肖像藝術)에 있어서의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어려움을 대변해준다.

III. 현재 전해오는 어진의 고찰

조선태조(1335-1408)는 일국의 시조인 만큼 특별한 예우를 받아서, 상당한 수의 어진이 제작되었다. 신숙주가 찬술한 『영모록(永慕錄)』을 보면 당시 선원전이라는 경복궁 내의 열성어진봉안처(列聖御眞奉安處)에서 받들던 태조어진이 무려 26축이었다하며, 그 중에는 마좌영(馬坐影)도 있었다한다.⁷⁾ 그러나 현재 전해오는 어진은 전주 경기전의 태조어진 1본 뿐인데, 이 어진도 고종9년(1872) 당시 경기전에서 받들던 어진이 오래되어 낡고 헤어짐에 따라 영희전에서 받들던 태조어진을 범본으로 하여 화사 박기준, 조중묵, 백은배 등으로 하여금 이모케 한 이모본이다.

〈태조어진〉(도1)은 익선관을 쓴 청포차림으로서 정면관에 공수자세(拱手姿勢)를 취하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이다. 전체적인 상용형식은 현재 대만 고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명 태조상〉(도

7) 李龜烈, 상계서.



도 1. 태조어진



도 2. 명태조상

2)과 흡사한데, 명태조상 쪽이 자세가 좀 더 자유롭고 손이 나와 있으며, 의자의 형태가 다르다. 그런데 이 태조어진은 비록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조선초기의 초상화법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으니, 이를테면 곤룡포의 상당히 각진 윤곽선과 양쪽 트임새로 빠져 보이는 답호의 형태는 〈장말손 초상〉을 비롯한 조선초기의 공신도상에서 익히 살필 수 있었던 특색이다. 또한 아래에 깔린 채전(채색 카펫)은 숙종조(肅宗朝)에 이르기까지 어진 제작 때 사용되었던 것인데, 채전의 화면 위의 높이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양식상 고식(古式)을 보인다.

그러나 익선관은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과의 경계에 발색효과가 보이며, 안면처리 역시 정면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목한 부위에 살포시 음영이 깔려 있는 점 등은 이모당시의 화법을 보여준다.

한편 옷 주름 처리의 기조는 곧은 선으로서 고식을 보이지만, 역시 선염효과가 선 둘레에 조심스럽게 나타나있다. 하지만 이 태조

어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본에의 충실함이 잘 드러난 작품이며, 어진은 임조(臨朝) 때의 위용(偉容)을 나타내기 위해 정면관(正面觀)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또한 그려내기가 가장 난해하다라는 『승정원일기』의 기록 등을 참조해 볼 때 이 어진은 정면관을 훌륭히 소화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보(補) 및 견보(肩龍)의 니금효과(泥金效果)에 의해 그 엄숙한 기상이 더욱 양양되어 있다.



도 3. 영조어진

영조(1694-1776)는 재세시(在世時) 때 10년마다 일곱 차례나 초상화를 그려서 모두 12본의 어진을 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51세 어진과 21세 초상화(연잉군 때의 수용)이 전해를 뿐이다. 그 중 51세 어진(도3)은 좌안 7분면의 복부까지 내려오는 반신상으로서 익선관에 홍색 곤룡포를 입고 있다. 이 〈영조 어진〉 역시 이모본으로서 고종 광무4년(1900) 조석진, 채용신 등 당대 초상화의 일급화사가 그린 것이다. 이때 범본이 된 원본은 영조 20년(1744)에 초상화그리기의 고수(高手)였던 장경주, 김두량 등이 제작했던 것으로, 영조의 생모(生母)를 받들었던 육상궁⁸⁾에 봉안했던 본이었다. 다시 말해 이 어진은 원래 진전봉안용이 아니

8) 육상궁(毓祥宮)이란 1725년(영조1) 영조가 즉위하면서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기리기 위해 묘(廟)를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는 숙빈묘라 이름하였다가 1744년 육상묘로 개칭하고, 1753년에는 육상궁으로 승격하였다. 1773년(영조 49) 영조의 어진 두 폭을 봉안하였다. 1882년 8월 불이 나서 궁이 소실되자 이듬해 다시 지었다. 현재는 칠궁(七宮)으로 불리우며, 조선조 역대 왕 중 정궁(正宮) 출신이 아닌 군왕의 사친(私親)을 한 곳에 모신 궁으로 되어 있다.

라 생모를 곁에서 모시고자 하는 용도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전신상이 아니라 복부까지 오는 반신상이었다.

안면에는 도화색 홍기가 있는데, 이것은 영조자신의 안색에 홍윤기(紅潤氣)가 짙었다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기록과 부합된다. 이런 안색을 바탕으로 한껏 치켜 올라간 눈매를 따라 짙은 갈색 선으로 윤곽을 그렸으며, 산근(山根, 콧마루와 두 눈썹 사이를 이르는 말)이 강조되고 콧날과 협, 범령(코 가장자리에서 입 양 끝으로 이르는 부분)이 조각적이라 할 만큼 직선적인 선형으로 세워지고 그 옆에 자연스런 선염효과가 안배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염을 그린 묘법이 탁월하다. 우리나라 초상화에서 수염은 대단히 중시되어왔는데 화사들은 수염은 얼굴의 연장으로 보았던 듯, 수염을 그리기에 앞서 그 부위에 살색으로 칠한 후, 그 위에 한 올 한 올 터럭의 성질을 달리하여 정성껏 그려나갔다. 또한 의습 처리에서



도 4. 연잉군초상

이 영조어진은 당대의 양식대로 외곽선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앞가슴의 보(補) 쪽으로 올라간 대(帶) 역시 조선 왕조 후기의 복제 면에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영조반신상은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당시 화상의 명수들의 손에 의해 원본에의 충실을 기해 제작된 것으로서 현존 어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한편 영조초상화로서는 연잉군 시절의 도사본(도4)이 전해오고 있어 흥미롭다. 이 본은 화면의 오른쪽 1/3 정도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얼굴부분이 완전하고 복색 역시 참조해볼 수

있으며, 이모본이 아닌 원본이므로 초상화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초상화는 숙종 40년(1714) 영조 21세 때 그려진 것인데, 화면 좌측 상단에 ‘초봉연잉군 고호양성현(初封延仍君古號養性軒)’ 이라 한 것으로 보아 영조 잠저시의 수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오사 모에 녹포단령을 입은 좌안팔분면(左顔八分面)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다. 흥배는 왕자인 관계로 백택문양을 금사선(金絲線)으로 수놓은 것으로 보이며 서대(犀帶)를 두르고 있다. 전체적인 상용형식은 숙종 말년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사모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양옆으로는 뽕(展脚)이 길게 뻗어 있다. 녹포의 형태 또한 양 어깨부분은 풍성하지 않으며, 소매 역시 길게 되어 공수함에 따라 밑으로 상당히 늘어져 있어 당시의 복제를 보여준다. 안면에 비해 몸체는 거의 정면을 향한 듯 돌려 있으며, 따라서 주름은 거의 대칭을 이루고 단령의 옆 자락이 옆으로 뻗어 있다. 또한 호피를 깔고 있는데, 족좌대(발 받침대) 위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으며 배경은 당대의 특징대로 없으며 바닥에는 채전도 돛자리도 깔려 있지 않다.

그러나 보다 주요한 것은 안면처리로서 안색은 옅은 갈색계인데, 안면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먼저 약간 짙은 갈색 선염으로 칠한 후 짙은 갈색선으로 윤곽을 뒤 그려서 입체감을 부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윤곽선 및 이목구비의 형용을 위해 구사되는 갈색 선은 같은 갈색이라 해도 농담의 차이를 두어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니, 이를테면 윗 눈꺼풀은 보다 짙은 갈색 선으로 나타내고 아래 눈꺼풀은 옅은 갈색 선으로 표시했으며, 동일한 안면의 외적 윤곽선도 차이를 두어 왼쪽 뒤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만큼 미약한 선으로 표현했다. 이에 비해 콧날은 단호하리 만큼 짙은 갈색 선으로 굵고 입술의 외곽선 역시 확연하다. 그러나 이 상의 보다 주요한 특징은 이 짙고 옅은 선에 생기를 부여하고 형태감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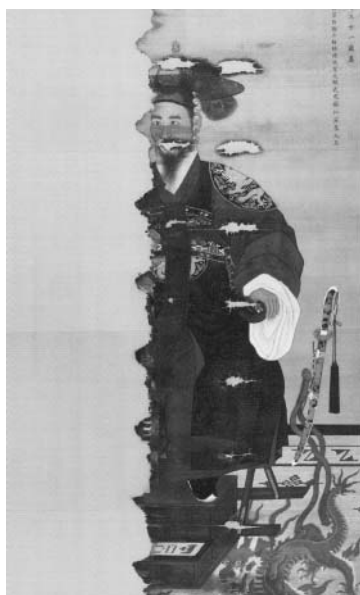
도시켜주는 선염효과이다. 바꾸어 말하면 안면의 오목한 부분을 먼저 어두운 갈색 선염으로 시채한 후에 그곳에 때로는 질게, 때로는 열게 선으로 보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조각적인 입체감에 근접해간다. 눈에는 이미 안두(眼頭, 눈이 시작되는 부분) 및 눈초리 안쪽 부분에는 홍기가 삼입되어 있어 사실감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시대의 초상화에서 중시되는 수염은 영조가 어린 탓인지 다만 몇 올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익종어진〉(도5)은 화폭 좌측이 거의 반 이상이나 소실된 잔편으로 남아 있어서 얼굴모습조차 살피기 어렵다. 그러나 화면 우측 상단에 ‘익종 돈문헌무인의효명대왕십팔세어진(翼宗敦文顯武懿孝明大十八歲御眞)’이라는 표제가 화면 위에 직접 쓰여 있으며, 그 안쪽 옆으로는 ‘문조익황제어진(文祖翼皇帝御眞)’이라 쓰여진 홍첩(紅籤)이 붙어 있다.

익종은 나이 22세로서 세자 때에 승하하였으므로 실록에는 익종어진의 제작기록이나 봉안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원계보에 의하면 익종은 무려 8본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익종어진은 18세 대의 것으로 순조26년(1826)에 도사한 본이다. 현재 얼굴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면류관을 쓰고 구장복(九章服)을 입은 전신교의좌상인데, 밑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을 뿐이다. 그런데 돛자리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 조선시대 후기의 특색을 반영하며, 얼굴의 각도는 9분면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례가 잘 맞지 않은 듯하며, 면류관을 쓴 옆모습으로 돌려 표현한 점에서 볼 때 그다지 고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색법은 상당히 훌륭하고 또 시대가 내려오는 만큼 색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어 정보하고 섬세한 점은 충분히 감지된다.



도 5. 익종어진



도 6. 철종어진

위의 〈익종어진〉에 비해 〈철종어진〉(도6)은 다행히 얼굴 모습과 복색을 모두 살피 볼 수 있다. 〈철종어진〉은 오른쪽으로 화폭의 1/3 정도가 역시 소실되었는데, 다행히 표제를 왼쪽에 적어놓아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 곳에는 ‘여삼십일세진(余三十一歲眞)’, ‘철종회륜정극수덕성문헌무성헌인영효대왕(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 이라고 써 있다. 따라서 이 어진은 철종 12년(1861) 3월에 도사한 본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서 펴낸 「어진도사사실(御眞圖寫事實)」을 보면 당시 도사를 담당했던 화원들은 이한철, 조중묵을 주관화사로 하고, 김하종, 박기준, 이형록, 백영배, 백은배, 유숙 등이 도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이 군복본 외에도 강사포본을 그렸는데, 강사포본이 전신에 뛰어나 가히 7분을 넘었다하며 지금 전해오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여하튼 철종어진 두 본은 제작기간에 1개월여가 소요되었다한다.

이 〈철종어진〉은 좌안8분면의 전신교의좌상으로서 용복(戎服) 차림, 즉 전립(戰笠)에 군복을 갖추고 있는데, 바닥에는 용문석(龍紋席)이 깔려 있으며 옆에는 칼이 놓여 있다. 공작털이 꽃혀진 전립이나 용문이 수놓인 보가 부착된 군복의 화려한 채색, 2층으로 된 족좌대, 정세한 용문석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풍모를 과시하며 화폭에 나타난 철종의 용안자체는 순수한 인품을 말해준다. 안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안면의 외적 윤곽선 및 이목구비의 구성은 짙은 갈색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눈은 정성 들여 묘사하였으니, 윗 눈꺼풀은 고동색선으로 나타내고 눈동자에는 검은 동공주위에 니금을 사용하여 어진제작과정시의 배채(背彩)방식을 예시해준다. 아랫 눈꺼풀에 난 속눈썹을 담묵으로 칠한 위에 검은 세선으로 처리하는 세심한 주의가 엿보인다. 코는 콧날은 음영의 삽입 없이 그대로 갈색 선으로 그었지만, 그 높이가 살아나 있다. 수염 역시 특이하게 검은데, 이것은 철종의 나이가 젊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화법은 짙은 갈색 선에 니금효과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의복의 화려함은 대단하지만, 옷주름은 선염 처리를 강하게 집어넣어 질감을 묘출(描出)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종어진의 특이함은 소매 밖으로 나온 손에 있다. 현존하는 화폭으로서는 왼손 밖에 볼 수 없으나 의자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의 표현은 그다지 원숙한 기법으로 묘사되어 있지 못하여, 군복의 다층적인 질감묘출을 그토록 훌륭히 소화해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고종어진은 현재 전주박물관과 원광대학교박물관 그리고 개인 소장으로 여러 폭이 전해오는데, 대체로 동형동규(同形同規)의 형식을 보여준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고종어진은 고종9년(1872)에 군복 대소본과 익선관본, 복건본, 면복본 등 모두 5본을 도사하였다 하는데, 현재 이본은 전해오지 않으며, 1901년 석지 채용신이 그

린 고종어진의 모사본만이 전해온다. 당시 고종은 도사(圖寫)를 끝내고 화가인 석지가 초본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였던 듯, 그 후 석지는 이 초본에 의거하여 고종어진을 여러 번 모사해내었다. 문헌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1917년 도일시(渡日時) 영친왕(英親王,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에게 고종어진을 바쳤다면, 계화도에서 우국지사 전우(田愚)가 고종에 대한 사모의 정을 가누지 못하자 고종어진을 그려준 기록이 있다. 이처럼 여러 점의 ‘어진그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그 당시 조선조 내내 품어왔던 어진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적 사고에서는 어진이란 왕이나 조종 그 자체로서 진전(어진봉안처) 이외의 외부로의 유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고종연간 이후 이런 관념은 희박해진 듯하며, 일제식민지시대에 이르면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모으는 취미나, 혹은 지나간 옛 왕조를 못 잊는 일부계층들이 어진 갖기를 소원한 듯, 설산(雪山) 등 다른 화가들에 의한 고종황제의 어진제작 역시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화가에 의한 어진제작역시 행해졌는데, 이를테면 1899년 보스(Hubert Vos, 1855-1935)가 고종어진을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으며, 일본인화가 사쿠마 테츠엔(佐久馬鐵園, 1850-1921) 역시 1908년 그렸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테츠엔이 그린 초상화가 각 대신들에게 나누어 하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즉석에서 간략한 필치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10년에는 후쿠에이 케이비(福永耕美)가 내한하여 여러 달을 서울에 머물면서 태황제(고종)의 초상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 고궁박물관에는 강사포, 통천관을 쓰고 손에 규를 들고 있는 <고종어진>이 소장되어 있는데, 남계(藍溪)라는 화가가 그렸다고 전해오며, 사진을 범본으로 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고종어진으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석지가 그렸다고 전해오는 전주박물관소장 <고종어진>(도7)이다.



도 7. 고종어진

이 어진을 살펴보면 정면관에 익선관에 곤룡포라는 임금의 상복(常服)을 입은 전신교의좌상이다. 익선관은 은은한 발색효과를 넣어 입체감을 살리고, 얼굴은 비교적 밝은 색으로 채색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처리를 하였다. 윗 눈꺼풀은 먹선으로 가늘게 형용하고, 눈동자에는 수정체부분에 반사광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왼쪽 눈이 더욱 또렷하다. 고종은 살피듬이 좋았던지 주름이 별로 없고, 양난대와 정위의 외곽부위에는 또렷하게 붓질이 가해져 있다. 입술은 갈라진 주름까지도 세밀히 묘사되어 있고 입술외곽선은 약간 밝게 처리하였다.

각대는 위로 치켜 올라가 있으며, 견보(肩補)와 보(補)의 니금처리(泥金處理)는 두터워서인지 박락부분이 보인다. 양 무릎에 얹은 손의 형용은 안정적이고 자연스럽다. ‘임자생 갑오등극(壬子生 甲午登極)’이라 쓰인 호패가 적갈색 술 사이로 보인다. 용상 전체의 각도와 방석모양은 부감하듯 처리되어 있으며, 족좌대 역시 45도 각도로 내려다보는 듯한 시점으로 형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음새가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배려한 것이다. 바닥에 깔린 돛자리의 문양은 앞쪽과 뒤쪽 사이에 대소의 구별은 있지만 비스듬한 형용은 아니어서 이 어진의 제작연대는 대략 1920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석지가 그렸다고 전해오는 원광대박물관과 개인 소장 고종어진들은 모두 49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석지가 고종을 도사할 당시(고종 49세)의 초본을 석지가 가장(家

藏)하고 있으면서 이모가 필요할 시에는 이 초본을 초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조 마지막 제27대 왕인 순종(1874-1926)어진은 현재 이당 김은호가 그린 군복본 초본(도8)이 전해온다. 원래 이당 김은호가 어명을 받고 처음 어진을 제작한 것은 1912년이며, 당시 그가 처음으로 그린 어진은 대원수 군복을 입은 반신상이었다. 그러나 이 어진은 왕실의 재정사정으로 중단되었다가 1916년 연말쯤 완성을 보았고, 1917년에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현재 고려대에 소장되어



도 8. 순종어진초본

있는 이 〈순종어진초본〉은 1912년

어진제작시의 초본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아마도 그 후 1915-6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지초본은 비록 정본은 아니지만, 이당 김은호의 초상화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당은 대상인물의 얼굴을 그릴 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칠한 후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가는 붓질을 이용하여 얼굴의 주름선을 따라 빈틈없이 메꾸어 나갔다. 세선(細線)은 채용신보다도 더욱 가느다란 선묘를 사용하여 보는 이는 세선이 사용되었다는 의식을 거의 못한 채 단지 부드러운 면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그의 스승인 조석진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법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 어진의 상징적 기능 및 의미

현재 전해오는 어진은 이처럼 수폭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태조에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효의 어진이 제작되었고 진전에 봉안되었으며, 어진제작과 봉안에는 거국적 관심이 뒤따랐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어진제작과정을 보면 임시관장기구의 설치, 어용화사의 선발 - 시재(試才)나 천거, 초본완성(初本完成), 상초묵화(上本墨畵), 설색(設色), 후배(後楷), 표제(標題), 진전봉안(眞殿奉安), 논상(論賞)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길일길시(吉日吉時)가 택해지고 왕과 대신들의 봉심(奉審)이 행해지는 등 어진제작에 쏟은 국가적 배려가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진제작이란 물론 여염에서와 마찬가지로 왕가에서 자손이 조상을 추모하려는 뜻에서도 행해졌지만 한편에 제작된 어진을 진전에 봉안함으로써 그 조종이 영구하기를 꾀하려는 사회적 기능도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어진이 지닌 상징적 의미는 물론 진전 봉안 때 동원되는 인원이거나 엄격한 의례 절차⁹⁾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전쟁동안 미천한 신분의 참봉이 어진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피난시 왕 이하 관료들이 어진을 앞에 두고 얼마나 통곡하며 비탄에 빠졌던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 진전에 화재가 났을 때 왕은 소복하고 3일간 곡하고, 자전, 내전, 빈궁 역시 아울러 3일간 소복했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는 능상실화(陵上失火)의 경우보다 더욱 엄중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진전근처에서 실화나 별목사건이 있거

9) 봉안의(奉安儀)나 향사의(享祀儀) 전반에 관해서는 유의양(柳義養)이 찬(撰)한 『春官通考』 권25, 26 吉禮 舊眞殿 眞殿(대동문화연구원 간행, 상권 pp.584-654) 참조.

나 큰 비나 큰 눈이 내린 경우에도 위안제를 지냈다.¹⁰⁾

2010년 현재 태조어진의 전주 경기전 봉안 600주년을 맞이하여 전주시와 전주 소재 박물관들이 성심껏 준비하여 보여주는 각종 의례의 재현의식과 태조어진을 둘러싼 각종 학술과 전시행사, 그리고 보도기관들과 전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열의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어진이 지닌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가 어떠했으며, 또 어떠한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판목록】

- 도1.〈태조어진〉 조종묵 등 필 1872년 중모 비단에 채색 축 218x 150cm
_ 전주 경기전
- 도2.〈명태조상〉 비단에 채색 축 270x 163.6cm _ 대만 고궁박물관
- 도3.〈영조어진〉 채용신, 조석진 필 1900년 이모 비단에 채색 축
110x 68cm _ 국립고궁박물관
- 도4.〈연잉군초상〉 1714년 박동보 필 비단에 채색 축 _ 국립고궁박물관
- 도5.〈익종어진〉 1826년 비단에 채색 축 147.5x 90cm _ 국립고궁박물관
- 도6.〈철종어진〉 이한철 필 1852년 비단에 채색 축 202x 93cm
_ 국립고궁박물관
- 도7.〈고종어진〉 전 채용신필 20세기 초 비단에 채색 축 _ 국립전주박물관
- 도8.〈순종어진초본〉 김은호 필 20세기 초 유지 62x 46cm _ 고려대학교박물관

10) 『中宗實錄』권88 중종33년 10월 辛酉조 ; 『明宗實錄』권 13 명종7 년 11월 辛卯조 ; 『肅宗實錄』권11 숙종 7년 6월 辛丑조.

『경기전의』로 본 조선말의 경기전 관리체제

이 동 희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I. 직제

II. 기능

III. 재정

조선왕조는 1410년(태종 10) 왕실의 본향인 전주에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였으며, 1442년(세종 24) 그 진전의 이름을 경기전이라고 하였다. 『경기전의(慶基殿儀)』는 경기전의 연혁, 구조, 직제, 제례, 관리 등 제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경기전 운영관리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¹⁾ 이 글은 『경기전의』를 중심으로 조선말의 경기전 관리체제를 개괄한 것이다.

I. 직제

1. 개관

경기전에 관리책임자가 배치된 것은 세종 24년 전주 진전(眞殿)을 경기전이라고 칭하면서이다. 이 때 경기전에 전직(殿直)2인을 처음으로 배치하고, 전라감사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하였다.²⁾ 조선초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경기전 관리자로 참봉 2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조실록』에 관노 1명과 양민 18명이 돌아가며 경기전을 수직하였다는 기사가 있다.³⁾

1) 이희권·이동희, 『국역 경기전의』(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2008) 31쪽.

2) 『세종실록』, 세종 24년 6월 22일 신해

3) 『세조실록』, 세조 8년 8월 6일 무진

조선말의 상황은 1872년에 간행된 『완산지』에 구체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기전 관리조직은 영(令) 1명(음관 종5품), 참봉(參奉) 1명(음관 종9품), 수문장 1명, 수복 210명, 금화 100명으로 편제되어 있다. 수복은 청소를 비롯한 관리를 담당한 자들이며, 금화는 소방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전의』에 수록된 「양재절목」에 수복 금화와 함께 충의군(忠義軍) 360명이 추가되어 있다. 충의군은 시위를 담당한 자들이다.

1909년(융희 3년) 경기전 영이 전사보(典祀補)로 개칭되었다. 1909년부터 1916년 사이의 작성된 ‘경기전조경묘 문서철’에 의하면 전사보 1명, 제감(祭監) 1명, 수복 2명, 방직(房直) 1명, 숙수(熟手) 1명, 군사(軍士) 2명 등 총 8명이 경기전에서 수직하였다.⁴⁾ 또 1943년 출간된 『전주부사』에는 당시 경기전 관리가 조경묘와 합쳐져 전사보 1명, 제감 1명, 수복 2명, 사정(使丁) 3명 등 총 7명이 관리자로 되어 있다.

2. 영 · 참봉

경기전 영(令)은 1명이고, 음관이며 종 5품 직이다. 참봉(參奉)은 1명이고, 음관이며 종 9품 직이다. 이들은 경기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전직(殿直)으로 전라감사가 이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였다.

참봉의 수직형태는 『경기전의』 ‘전랑식(殿郎式)’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참봉 2명이 동재와 서재 양재에 함께 입직

4) 홍성덕, 「경기전 관련 문건 해제」(『왕의 초상-경기전가 태조어진』, 국립전주박물관, 2005, 309쪽)

(入直하여, 향을 피우고 받들어 보살피는 등의 일을 돌아가면서 했다. 관제를 번듯한 이후로 각 능(陵)의 예에 따라 단지 1명씩 교대로 입직하여 전내의 일을 검사하였다.”

즉 본래 2명의 참봉이 모두 입직하였는데, 관제 변동 후 1인씩 교대로 입직하였다. 이들의 수직처는 동재와 서재였고, 여기에 각각 그들이 수직하는 방이 있었다. 영과 참봉도 실제로는 1인이 수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봉들은 주로 전주와 인근 지역의 지역인들 중에서 선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혹 전관(殿官), 즉 영과 참봉 등이 사적인 연고나 과거 응시 등의 일로 말미를 얻어 수직을 할 수 없으면, 전라감영에 보고한 후 영문으로부터 시위유사(侍衛有司) 1인을 가관(假官)으로 정하여 재실(齋室)에서 수직을 대신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관은 어진이 봉안된 정전 문을 열 수는 없었다.⁵⁾



사진 1. 오경흥을 경기전 참봉으로 임명하는 교첩 (1831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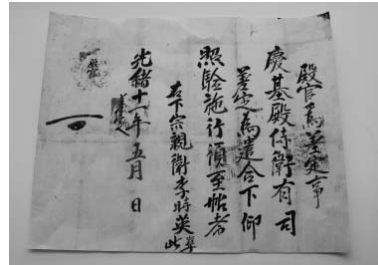


사진 2. 이시영을 경기전 시위유사로 임명하는 교첩 (1885년,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5) 『국역 경기전지』, 『假官式』

3. 수복 · 금화

경기전 수복(守僕)과 금화(禁火)는 종묘 제도를 따랐으며, 수호, 청소, 소방 외에 제사를 돕고, 향과 축문을 받아 오는 등 경기전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복의 편제에 대해 『경기전 의』 ‘양재절목’ 에, “수복은 양인(良人) 원호(元戶)로 210명을 정하여 충당하고, 원호 중에서 도수복(都守僕) 4명을 가려 정해서 5일마다 돌아가며 경기전 안을 수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도수복 4명이 선임되어 1명이 5일씩 근무하는 형태로 돌아가며 입직하였으며, 수복들은 일에 따라 순번을 정해 입직하거나 번전(番錢)을 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수복은 붉은 색 옷을 입었다.

금화군(禁火軍)은 『경기전의』 ‘양재절목’ 에, “양인이거나 천민을 막론하고 100 명을 정하여 충당하고 그 중에서 도금화(都禁火) 4명을 가려 임명하여 5일마다 돌아가며 수직하게 하며, 30명은 일을 시키고 70명은 사람마다 번전 4냥씩을 마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금화군 중 도금화 4명을 선임하여, 1명이 5일씩 돌아가며 근무하였으며, 100명의 금화군 중 30명은 순번에 따라 입직하여 일을 하고, 나머지 70명은 번전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 수복 · 금화 중에서 각각 청지기(廳司)를 2명씩 선발하여 돌아가며 수직하게 하였다. 결국 수복이나 금화군의 경우 실제로는 도수복 1인, 도금화 1인, 청지기 2인 등이 돌아가며 상시 수직하였으며, 나머지 수복과 금화는 사안에 따라 입직하거나 번전을 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전의』 ‘양재절목’ 에 실려 있는 아래의 기사들도 수복과 금화군의 수직상황을 읽어 보는데 도움이 된다.

“옛날에 성상청(城上廳) 5칸은 서재 앞에 있었는데 전관에게 물품을 공급

하는 곳이다. 수복 5명은 각자 4되의 쌀을 가지고 5일마다 입직을 한다. 하루에 받아들이는 것은 합 5되이다. 특별한 반찬은 모두 이것으로 마련하여 아침저녁 조식으로 결상 4그릇이 되게 한다. 입직하러 들어온 5명 수복 중에서 2명은 으레 도척이⁶⁾ 되었고, 당번 도수복은 감상이⁷⁾ 되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옛 법식이 자취가 없어져 따로 정해서 공급한다. 수복이 교대 없이 계속 근무하며(長番⁸⁾) 음식을 올리니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매번 제사를 지낼 때에 수복은 모여 숙직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만일 늦어서 점고를 받지 못한 자는 벌을 준 뒤 부족한 장지 1속, 돈으로 하면 7전을 바치게 한다. 금화군은 매달 14일, 30일에 경기전 안을 수리하고 치워야 하는데 점고를 받을 때 빠진 자는 기록했다가 역시 부족한 백지 1속, 돈으로 치면 1전 5푼을 바치게 한다.”

“마을에서 실수로 불이 나면 전주부 병방(兵房)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금화군을 소집한 즉 금화군은 열을 지어 점고를 받는데 빠진 자는 기록했다가 매 30대를 쳤다.”

4. 수문장

수문장은 18세기말 전주읍지를 비롯해 이전 자료에는 보이지 않다가 1872년 『완산지』에서 새롭게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1895년 『완산지』와 『경기전의』 ‘양재절목’에는 경기전 수문장이 빠져있다.⁹⁾

6) 도척(刀尺)은 지방관아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7) 감상(監嘗)은 음식을 맛보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8) 장번(長番)은 교대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9) 『경기전의』 내용 중에 수문장이 보이기는 하나 경기전 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양재절목’에는 수문장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경기전의』에 실려 있는 ‘경기전 도형’에 보면, 동재 앞쪽으로 정덕헌(慶德軒)이 나오는데 ‘수문장청, 갑자 신설, 을축 성청(成廳)’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즉 수문장청이 1864년에 건립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실록에 보면 1864년 대왕대비가 내린 전교에 “조경묘, 경기전, 선원전(璿源殿)의 수문장(守門將)은 선전관(宣傳官)과 부장(副長)으로 추천된 사람을 돌아가며 차출하라”는 기사가 있다.¹⁰⁾ 『승정원일기』에는 경기전 수문장 임용 기사가, 대왕대비의 전교가 있는지 몇 달 후 1864년 11월 1일에 처음 나온다.¹¹⁾ 이런 기록들로 볼 때 경기전 수문장제는 1864년경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1895년 완산지를 비롯하여 이후의 자료들에는 경기전 관리조직에 수문장이 빠져있다. 반면에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어진 이안 기록에는 수문장 이우상이 명기되어 있다.¹²⁾ 또 『승정원일기』에 경기전 수문장 임용기사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1894년 1월 28일이다.¹³⁾ 그렇다면 경기전 수문장제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후 혁파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무렵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문장의 임용실태는 1864년 대왕대비가 내린 전교에서 읽어볼 수 있다. 이 전교에 의하면 왕실의 후에 중 전라도에 거주하는 선전관과 부장 출신으로 종부사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수직하였으며, 15개월이 되면 6품으로 올려주었다.¹⁴⁾

10) 『고종실록』, 고종 1년 6월 15일 갑신

11) 이승순(李承純)을 경기전수문장으로 임용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11월 1일 무술)

12) 『국역 경기전의』, 경기편 참봉 장교원 실록

13) 이우상(李愚祥)을 경기전 수문장으로 임용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월 28일 병오)

14) 『고종실록』, 고종 1년 6월 15일 갑신

하지만 6품 승진연한의 경우 그 이듬해 화령전(華寧殿) 수문장의 예에 따라 다시 30개월을 근무해야 승륙하는 체제로 바뀌었다.¹⁵⁾

5. 충의군

경기전 충의군은 영조초 전라관찰사 이광덕이¹⁶⁾ 창설한 것이다. 원래 일정한 정원이 없었는데 정조말 전라감사 조종현이¹⁷⁾ 충의군 정원을 360명으로 정하였다. 충의군은 왕실의 후예나 공신 후예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홍살문 안의 동편 담장 아래에 시위청이 충의군 입직소이다. 충의군 2인씩 돌아가며 입직하였는데, 푸른 무관의 공복 철릭(天翼)을 입고, 호수(虎鬚)를 단 갓을 썼으며, 채찍을 들고 외신문의 큰 길 좌우를 지켰다.

II. 기능¹⁸⁾

1. 봉심(奉審)

봉심은 어진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일로 전관에 의해 5월 간격으

15) 『고종실록』, 고종 2년 6월 10일 계묘.

16) 이광덕은 영조 4년(1728) 3월 전라감사에 부임하여 영조 6년 1월에 병으로 이임하였다.

17) 조종현은 1799년(정조 23) 6월에 전라감사에 제수되어 이듬해 1800년 윤 4월에 이임되었다.

18) 이 장의 경기전 관리 업무는 『경기전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로 이루어졌다. 전관(殿官)이 관복을 갖추고 어진이 모셔진 정전 안으로 들어가 감실 밖에 서서 발과 휘장을 거두고 머리를 숙이고 었드렸다가 일어나 전내를 살폈다. 또 매달 삭망, 초하루와 보름 때 분향례를 행할 때 봉심을 같이 병행하였다. 영조 때에 전관을 제외하고는 관직자든 아니든 사사로이 봉삼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조선 멸망 후 1934년에 와서 종실인 이씨들에게만 봉심을 허용하였다.

2. 분향(焚香)

경기전 제례는 1년에 6번 지내는 대향, 어진 이환안시 지내는 작헌례, 매달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분향례 등이 있다. 제례를 준비하는 일이 경기전 관리들의 주요 업무이지만, 이 중 분향례는 경기전 참봉이 주관하였다.

분향례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전관이 관대를 갖추고 침각문(簾閣門) 안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종종걸음으로 동편 뜰로 나아가 먼저 4배하고, 정전에 들어가 초에 불을 켜고 향을 피운 뒤 본래의 자리로 내려간 뒤 4배례를 마치고, 다시 정전 안으로 들어가서 전내를 삼가 살폈다. 전관이 일이 있으면 감사(監司), 도사(都事), 판관(判官), 중군(中軍), 영장(營將) 중에서 형편에 따라 대행하였다. 본래 경기전 분향례는 해가 뜨기 전에 행했는데, 정조 2년(1778)에 강화도의 관례에 따르라는 임금의 분부로 해가 높이 오른 후에 지냈다.

3. 수향(受香)

본래는 향을 객사에서 전관이 수령하였다. 즉 매년 6월, 12월 한양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주면, 전라감사가 전주객사에서 몸소 봉한

것을 뜯어 경기전 전관에게 주었다. 그러면 수복이 향정자(香亭子)에 넣어 경기전으로 가져왔다. 영조 41년(1765)에 이런 수향식이 바뀌어 전관과 수복등이 초료(草料)와 마패를 전라감영에서 받아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 향과 축문을 수령해 왔다. 향과 축문은 정전 감실 뒤편에 두었다.

4. 수리(修理)

경기전 건물, 의장 등에 훼손된 것이 있으면 경기전 전관이 전라감영에 보고하였다. 그러면 전라감사가 살펴서 파손이 크면 임금에게 보고하고 수리하며, 작으면 서로 의논하여 보수하였다. 제기, 제복 등을 다시 장만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전주부에서 내고 대동미(大同米)에서 상쇄하여 처리하였다.

5. 수소(修掃)

봄·여름·가을에는 풀을 매고, 겨울에는 눈을 쓸었다. 대전·별전으로부터 소나무 뜰에 이르기까지는 금화군이 담당하고, 전사청(典祀廳)으로부터 동·서재에 이르기까지는 전주부에 사는 수복이 담당하였다.

6. 점화(點火)

매일 이른 아침 번을 든 도금화가 전관에게 고하고 어방 아궁이[御竈]에 불을 지폈다. 이는 화재의 염려가 있는 일이었으므로 전관

이나 혹은 유사(有司)가 직접 검사하고 매 월말에 일이 있고 없고를 전라감영에 보고하면 감영에서 예조에 보고하였다. 1872년에 감실 온돌을 마루로 고쳤다.

7. 야직(夜直)

매일 해가 지고 처음 어두워질 때 도감고(都監考)가 금화군 4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전관에게 고하고 알현한 후, 대전(大殿) 외신문안 및 별전 정자각에서 숙직하되, 각각 2명씩 나누어 숙직하였다. 그러다가 도금화 2명이 숙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외신문 서편 군막(軍幕) 2칸이 있는데, 여기에서 초경부터 5경까지¹⁹⁾ 숙직하였다.

8. 시위(侍衛)

충의군 2인씩 돌아가며 들어와 외신문의 큰 길 좌우를 지켰다. 충의군은 푸른 무관의 공복 철릭(天翼)을 입고, 호수(虎鬚)를 단 갓을 썼으며, 채찍을 들었다. 충의군 중 유사(有司) 2인은 전정(殿庭)에 들어가 자세히 살피는 일을 담당하였다.

19) 초경(初更)은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첫째 부분으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이다. 오경은 마지막 부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한다.

III. 재정²⁰⁾

경기전에 내려준 전답은 120결이었다. 조정묘에는 80결의 전답이 주어졌다.²¹⁾ 그 관할권이 본래 경기전에 있었는데, 18세기후반 경 전주부로 넘어 갔다. 그래서 전주부에서 이 전답을 관할하여 경기전 경비로 썼다. 후에 경기전에서 여러 차례 예조와 전라감영에 전답 관할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동·서 양재 전관의 요미(料米)는 한 달에 각각 2섬 3말 3되, 말먹이 콩(馬太)은 7말 2되였다. 매년 정월 초순 전에 전주부 남창(南倉)에서 창색(倉色)이 운반해 바치는데 1년 요미는 각각 26섬 9말 6되, 말먹이 콩은 각각 5섬 11말 4되이다. 윤달이 들면 한 달 것 각 2섬 3말 3되, 말먹이 콩 각 7말 2되를 더 주며 이것은 환곡(還穀)에서 지급하였다.

구가목(丘價木)은²²⁾ 외방 수복이 역을 면제 받는 대신 1년에 8승의 무병배 45자를 준비하여 바치게 하였다. 그 합이 24필로 동·서 양재에서 나누어 썼는데 외방 수복이 상환(相換)된 후 폐지되었다.

반찬값은 1년에 백미 12섬인데 대동미(大同米)에서 나누어 주고 윤달이 있으면 1섬을 더 주었다. 소금, 간장, 채소, 어물, 등유(燈油) 등의 물품도 이 중에서 내주는데 이것은 성상청(城上廳)과 동·

20) 이 장의 경기전 재정은 『경기전의』에 실려 있는 내용을 대략 소개한 것이다.

21)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2(財用編二) 면세(免稅)조에 면세전답 조정묘(肇慶廟) 80결, 경기전(慶基殿) 120결이라 되어 있다. 세종 때에는 8경 99복 6속이었다. 이는 『세종실록』, 세종 27년 7월 13일(을유)에 “전주 경기전의 제위전(祭位田)은 8결 99복 6속이고,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진전(眞殿)에는 없는데, 지금 위전(位田)을 개혁하고 국고(國庫)에서 공판(供辦)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22) 구가목(丘價木)의 구가(丘價)는 관원이 부리는 하인의 급여조로 봉급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여기에서 구가목은 구가에 해당하는 배를 말한다.

서 양재에서 통용해 썼다.

수복 보인(保人) 중에서 각 차비군(差備軍) 75명을 정해 한사람마다 번전(番錢)²³⁾ 4냥씩을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 135명은 한 사람당 2냥 6전 8푼씩을 바치게 하였다. 금화군 70명은 사람마다 번전 4냥씩을 바치게 하였다. 충의군 360명으로 하여금 매년 봄가을에 각각 번전 5전씩을 바치게 하여, 유사(有司) 2명이 1년간 근무할 때 아침 저녁 식사비와 일상 경비를 충당하였다.

제물은 본래 전라도 4장관(전주부윤, 남원부사, 나주목사, 광주목사)이 순차로 돌아가며 마련하였는데, 1780년(정조 4)에 전주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봄·가을 대제를 지낼 때 전사청을 도배하는 장지 20속 7장도 4장관이 돌아가며 바쳤다. 이 때 풀가루[糊末] 1말도 함께 보내왔다.

매일 전주부에서 숯 1말, 말먹이 꼴 8속(束), 작은 장작 12짐을 지급하는데 숯과 꼴은 양재에서 반절씩 나눠 쓰고, 작은 장작 2짐은 진전 부엌에 불을 때고, 각각 3짐은 양재에서 나눠 쓰며, 4짐은 성상청(城上廳)에 지급하였다. 매일 햇불 1자루씩도 아울러 지급하였다.

드무의 물이 겨울에 얼지 않도록 넣는 소금은 고부, 옥구에서 소금 9섬 9말을 보내왔으나 조선말에는 전주부에서 해마다 2섬 10말을 보내왔다.

처음에는 봉서사(鳳棲寺)가 경기전에 속한 절이었으나 위봉산성에 행궁(行宮)이 창건된 후 위봉사(威鳳寺)가 경기전에 속한 절이 되었다. 제향시 향반승(香盤僧) 1명과 떡 만드는 중(造餅僧) 4명이 차출되었고, 봉과피지(封裹皮紙) 3속(束)을 받쳤다. 또 매달 경기전 수복의 문서지 2속, 점이지(粘移紙) 12장, 일상적으로 쓰이는 피지

23) 번전(番錢)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수직을 대신시키고 주는 삚이다.

(皮紙) 24속을 받쳤다. 매달 가는 노끈(細繩)도 바쳤는데 정해진 수는 없었다. 전관(殿官)의 책룡(冊籠) 각 1대(駄), 농삼정(籠衫丁) 각 1대, 입모지(笠帽紙) 각 1장, 단자지(單了紙) 1장, 간장지(簡壯紙) 각 1속, 백지(白紙) 각 2속, 피지 각 1속을 바쳤다. 또 양재의 도배지 각 3속과 창호지 각 10장을 바쳤다. 조선말에는 10분의 9가 줄어 한 달에 소위 두터운 백지 1속, 백지 2속, 피지 2속을 바치는데 양재에서 나눠 쓰기에 부족하였으며 후지(厚紙)도 절이 쇠잔하여 양이 줄었다.



사진 3. 『경기전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기전의 건축과 공간

홍 승 재 | 원광대학교 교수



I. 머리말

II. 경기전 연혁

III. 경기전의 건축과 공간구성

1. 배치특성
2. 영역별 공간 구성

IV. 맺음말

I. 머리말

경기전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영정¹⁾을 모신 진전(眞殿)이다. 진전은 불교와 도교에서 유래된 건축으로 내부에 영정이나 소상(塑像)을 모시고 일정한 날에 제사를 지내는 진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언제부터 진전을 세웠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왕의 소상을 만들고 영정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진전을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에는 진전 건축이 활발하였는데 왕과 왕후가 승하하면 진전사원을 창건하거나 기존 사찰에 진전을 건립하여 선왕·비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궁궐 내에는 원묘인 경령전(景靈殿)을 건립하여 태조와 사친(四親)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다. 즉, 경령전은 5묘제를 취했는데 태조는 불친위(不遷位)로서 영정을 계속 봉안하였고 사친(四親)을 다한 임금의 영정은 진전사원으로 옮겨졌다.

진전은 유교적 정치이념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던 조선시대에 이르러 축소 경영되었다. 그 이유는 진전(眞殿)이 불교적 성격이 짙고 고례(古禮)²⁾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진전은 여러 동이 건립되었으며 유교식 묘제(廟

1) 임금의 초상화는 어진(御眞), 진영(眞影), 쉬용(?容), 어용(御容), 성진(坐眞), 신이(神御) 등으로 불린다.

2) 고례란 이상적인 유교적 군주관으로 여겼던 중국 고대 하·은·주 3대의 예(禮)를 말한다.

制)와 결합된 독특한 건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진전은 모시는 어진의 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전, 봉선전, 화령전과 같이 한 임금의 어진(御眞)을 모신 진전과 궁궐 내 선원전(璿源殿) 및 도성 내 영희전(永禧殿)과 같이 열성(列聖) 어진을 봉안한 진전이 있다.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건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주요 진전은 [표 1]과 같다.

경기전처럼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태조 진전은 다른 진전과 달리 전국에 걸쳐 5개가 건립되었다. 태조는 창업주로서 조종(祖宗)과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된 것이다. 고려 시대에도 태조 진전은 봉은사와 개태사 등의 여러 사찰과 서경(평양)과 국경지대인 서북면 등 여러 곳에 존재했었다. 이처럼 태조 진전을 전국 여러 곳에 두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의 고사(古事)를 따른 것이다.³⁾

조선시대 진전 중에서 현존하는 진전은 전주 경기전과 화성 화령전, 창덕궁 구선원전과 신선원전뿐이다.”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어진을 그대로 봉안하고 있는 진전은 경기전이 유일하다. 이처럼 경기전은 역사성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조선 중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은 건축물이다.

경기전은 건물 내부에 어진을 봉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묘(廟)의 건축구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과 내·외부 공간은 모두 유교적 예제(禮制)를 따라 제례를 지내기 위한 기능에 합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기전의 건축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 한나라에서는 고조(高祖)가 승하하자 뒤를 이은 효혜황제(孝惠皇帝)가 각 군국(郡國)의 제후들에게 고조묘(高祖廟)를 세워 매년 때를 맞추어 제사 지내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를 군국묘(郡國廟)라고 하며 효혜제(孝惠帝) 5년(기원전 190년)에는 고조(高祖)의 옛 집을 궁(宮)으로 삼아 원묘(原廟)로 삼았다.

4) 북한에 있는 목청전과 준원전은 현존 유무를 알 수 없다.

표 1. 조선시대 진전

구분	주요연혁	위치	봉안 어진	현존유무
준원전	• 태조 5년 이후 창건(추정) • 효종 8년 개건	함경도 영흥	태조	알수 없음
집경전	• 태조 5년 이후 창건(추정) • 임진왜란 후 강릉 이전 • 인조 9년 화재로 소실 후 폐지	경상도 경주	태조	×
영송전	• 태종 11년 이전(추정) • 광해 8년 중건(후금과의 전란이 우려 되어 어진은 남별전에 임시봉안) • 광해 14년 강화도 이건 • 인조 15년 병자호란 시 소실 후 폐지	평안도 평양	태조	×
경기전	• 태종 10년 창건 • 광해 6년 중건	전라도 전주	태조	○
목청전	• 태종 18년 창건 • 임진왜란으로 소실 후 폐지 • 고종 38년 중건 • 순종 2년 선원전에 어진 이안 후 공전	경기도 개성	태조	알 수 없음
봉선전	• 예종 원년 창건(광릉 옆) • 광해 6년 중건(후금과의 전란이 우려 되어 어진은 남별전에 임시봉안) • 광해 14년 강화도 이건 • 고종 3년 영회전에 어진 이안 후 폐지	경기도 양주	세조	×
장녕전	• 숙종 21년 숙종 어진보관소로 창건 • 경종 원년 신전 건립-숙종 어진봉안 • 고종 3년 영회전에 어진 이안 후 폐지	강화도	숙종, 영조	×
화령전	• 순조 원년 창건 • 순종 2년 선원전에 어진 이안 후 공전	경기도 화성	정조	○
영회전	• 숙종 14년 남별전에 태조 어진을 봉안하면서 영회전이라 개명 • 영조 24년 2실 증건, 철종 9년 1실 증건 • 고종 37년 경모궁 자리로 이건 (1실 증건) • 순종 2년 선원전에 어진 이안 후 폐지	도성 내	열성 (列星)	×

구분	주요연혁	위치	봉안 어진	현존유무
선원전	• 숙종21년 창덕궁 춘회전에 숙종 어진을 보관하면서 개명 • 창덕궁 선원전 현종 12년 2실 증건, 철종 2년 1실 증건 • 1868년 경복궁 선원전 건립 • 1897년 경운궁 선원전 건립 • 1900년 경복궁과 창덕궁 선원전 증건 • 1901년 경운궁 선원전 재건	창덕궁 경복궁 경운궁	열성 (列星)	○
신선원전	• 1921년 건립 • 창덕궁 선원전 등 여러 진전에 봉안되어 있던 어진을 모두 모아서 봉안	창덕궁	열성 (列星)	○

II. 경기전 연혁

전주에 경기전이 세워진 것은 1409년(태종 9)에 전주이씨들의 관향(貫鄕)인 완산부(전주)에서 태조 어진 봉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주 어용전(집경전)에서 어진을 한양으로 모셔와 모사하고 이듬해 경기전이 완공되면서 태조 어진을 모시게 된다. 경기전 창건과 함께 진지산도 진전비보소(眞殿裨補所)라 하여 특별히 금호(禁護)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경기전 근처에는 본래 향교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전을 세우게 되자 향교에서 들리는 시서(詩書)를 외우는 소리와 매질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성령을 편안히 모시기 어렵자 향교를 성의 서쪽 6·7리 되는 곳 현재의 화산동 신흥학교 기지(基址)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경기전은 처음에 특별한 이름 없이 어용전(御容殿)이라 부르다가

태종 12년(1412)에 태조진전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현재와 같이 경기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세종 24년(1442)에 이르러서이다.

한편, 경기전은 창건 후 22년만에 훼손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1432년(세종 14)에는 태조 진전을 세우는 것은 고례(古禮)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건립한 목청전을 제외한 나머지 태조 진전은 모두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⁵⁾, 세종은 준원전과 목청전만 남기고 혁파하고자 했다.⁶⁾ 결국에는 비록 예(禮)가 아니더라도 선왕이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혁파하지 않았고 대신에 국가의 제례시설도 정비하였다. 세종은 재위 24년에 전국에 있던 모든 태조 진전을 개수(改修)하게 하였는데 이때 국가의 영선(營繕)을 맡아하던 선공감(繕工監)의 관리인 선공판사(繕工判事)와 선공부정(繕工副正) 등을 파견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이처럼 태조 진전을 개수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태조 진전이 모두 무너지거나 규모가 작고 협소하였기 때문이다.⁷⁾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아름답고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라고 한다.⁸⁾

성종 4년(1473) 봄에는 세조와 예종의 실록이 완성되자 경기전 내에 사고(史庫)를 건립하였다. 춘추관 양성지는 성종의 명을 받들어 당시 전라도관찰사 김지경과 더불어 경기전 동원 내의 땅을 골랐다고 한다. 공사는 전주부윤 조상국이 지휘하고 순창군수 김극련이 감독하였으며 인근 여러 포구의 선군(船軍) 300명이 부역하여 5월에 공사를 마쳤다.⁹⁾

그리고 조선후기 야사(野史)인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에도

5) 『세종실록』 권55 세종14년 3월 15일(甲戌).

6) 『세종실록』 권56 세종14년 6월 3일(庚寅).

7) 『세종실록』 권97 세종24년 9월 26일(癸未).

8) 『세종실록』 권106 세종26년 10월 22일(丁卯).

9)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되었다. 후에 전주사고의 실록을 필사(筆寫)하여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 등에 보관하게 된다.

경기전 중창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 시기는 중종 14년(1519)년 정으로 공사는 부속시설의 증설로 추정되는데 중창 시 자재를 활용하여 몇 칸 되는 집을 지었다고 한다.¹⁰⁾

조선 초기에 창건되어 세종연간에 정비된 경기전은 이후 큰 변화 없이 조선 중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기전은 불행하게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었다. 다행히 경기전의 어진은 1592년에 왜군이 전주로 진격하려고 하자 당시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과 수복(守僕) 한춘(韓春)이 어진을 정읍현(井邑縣) 내장산(內藏山) 은적암(隱寂菴)에 숨겨두었다가 배를 통해 의주(義州)로 이봉하여 안전하였다. 이후에는 잠시 보향산의 보현사(普賢寺) 별전에 봉안해 두었다.

전란이 끝난 후 광해군 대에 이르러 전국에 있던 대부분의 진전(眞殿)을 증건하였는데¹¹⁾ 이중 가장 먼저 증건한 진전이 바로 경기전이다. 왜란을 거치면서 26축이나 되었던 태조 어진을 비롯한 역대 임금의 어진은 대부분 잃어버리거나 훼손이 심하였는데,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부사하여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때에는 경기전의 어진은 적상산성으로 이안하였다가 난이 수습된 뒤 경기전에 다시 모셨다. 이처럼 계속되는 전란과 화재 등으로 인해 어진이 소실되자 숙종연간에는 전란 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1675년(숙종 1)에는 위봉산성을 축조하면서 산성 안에

10)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 - 경기전(慶基殿)은 전주 성내(全州城內)에 있는데, 바로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받들어 모신 곳이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전라 감사가 되어 마친 중창(重創)할 때이므로 따로 몇 칸 되는 집을 대문 밖 조금 먼 곳에 세웠다. 인조(仁祖) 계해년(癸亥年 1623, 인조 원년) 뒤에 정승(政丞) 원두표(元斗杓)가 정사 공신(靖社功臣)으로서 전라 감사가 되어(1625년에 전라감사가 되었다.) 영전(影殿)의 제랑(齋郎 참봉)이 기생을 불러 별당(別堂)에서 함께 자는 것을 보고 그 집을 헐고 그 땅을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11) 『광해군일기』 권82, 광해 6년 9월 3일(壬子).

재난 시 경기전의 어진을 이안할 수 있도록 행궁을 건립하였다.¹²⁾ 이듬해에는 본전 동쪽 실록각이 있던 자리에 유사 시 어진의 이안 처로 사용하고자 별전을 건립하였다.

경기전 어진은 1688년(숙종 14) 남별전에 태조 어진을 모사하여 봉안할 때 도성으로 이봉되었다가 모사가 끝난 후 다시 환봉되었다. 이때 마련된 의례절차는 ‘무진년 등록’이라 하여 이후 어진의 모사와 봉안 및 봉영(奉迎)과 환봉(還奉) 시 기준이 되었다.

1767년(영조 43)에는 전주성에 큰 화재가 나 주택 2천3백여 호가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경기전은 일부 부속건물만 화재를 입었을 뿐 정전 등 주요 건물은 재난을 피했다. 4년 후에는 전주이씨의 시조와 시조비의 신주를 봉안한 조경묘를 경기전 북동쪽에 창건하였다.

1872년(고종 9)에는 영희전에 봉안되어 있던 태조 어진과 원종 어진을 모사하여 새로 봉안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태조 어진은 2본을 모사하여 1본은 경기전에 모셨는데 경기전 어진이 개국 초기에 그려진 것이어서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신본(新本)을 봉안한 후 구본(舊本)은 세초(洗綃)한 후 백자 항아리에 넣고 본전 북계 위에(北階上)에 매안(埋安)하였다.¹³⁾ 당시 경기전에 새로 봉안한 태조 어진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태조 어진으로 보물 제9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어진을 새롭게 봉인하면서 경기전은 조경묘와 함께 대대적으로 중수(重修)되었다. 공사는 4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장서각에 소장된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肇慶廟慶基殿修理謄錄, 1872)』에 당시 공사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동학운동 당시에는 조경묘와 경기전의 신주와 어진을 위봉산성

12)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9월 29일(甲寅).

13) 『어진모사도감의궤(御眞模寫都監儀軌)』, 1872년.

행궁에 옮겨 모시기도 하였다.¹⁴⁾ 이후 경기전은 고종 42년(1905)과 순종 7년(1914)에 수리가 있었으며, 1919년에는 일제에 의해 경기전의 서쪽 부속채가 철거되고 이 자리에 일본인 소학교가 세워졌으며, 1937년에는 별전이 철거되었다.

별전이 있던 자리에는 1976년에 전주시립박물관이 개관되었다. 1990년에는 경기전 정문을 설치하고 이듬해 박물관을 철거한 후 전주사고 실록각을 복원하였다. 1995년에는 부속사들이 있던 중앙초등학교 교사를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건물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였다. 2004년에 「경기전의(慶基殿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사청 등 부속채들을 모두 복원하였다.

III. 경기전의 건축과 공간 구성

1. 배치 특성

태조 진전의 배치와 건축 형식은 성종 5년(1474)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례(序禮)』 「길례(吉禮)」에 수록되어 있는 〈단묘도설(壇廟圖設)〉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묘도설〉에는 진전에 대한 그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전 3칸은 가운데에서 남쪽을 향하고, 동·서에 낭(廊)이 있으며 남쪽에 두 문이 있다. (각 3칸이다) 신좌(神座)와 영정(影幀)은 모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다.”

14) 고종실록 권31 고종31년 5월 3일(己卯).

〈진전도(眞殿圖)〉에는 어진을 봉안하고 제례를 행하는 정전 일곽만 그려져 있고 재사(齎舍)와 전사청(典事廳) 등 제례 준비를 위한 부속 건물들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외신문 - 내신문 - 정전이 직선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정전 좌우에는 익랑이 연결되어 있으며 익랑에서 ㄱ자로 꺾여 월랑이 연결되어 있다. 내신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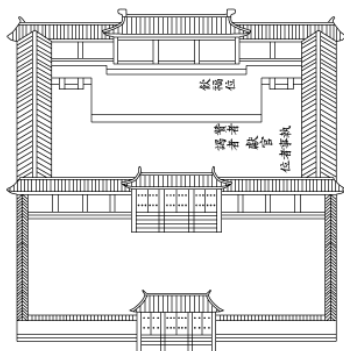


그림 1. 진전도(眞殿圖, 『國朝五禮儀』)

외신문은 정면 3칸으로 규모가 같지만 내신문 좌우에만 첨각(添閣)이 있고 외신문은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진전도(眞殿圖)〉를 보면 전체적인 모습은 현재의 경기전 정전 일곽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경기전은 조선 초기 태조 진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경기전과 비교해 볼 때 정전 앞에 정자각이 없고 넓은 월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월랑과 첨각이 연결되어 있고 내신문 좌우 첨각의 칸수가 더 많은 것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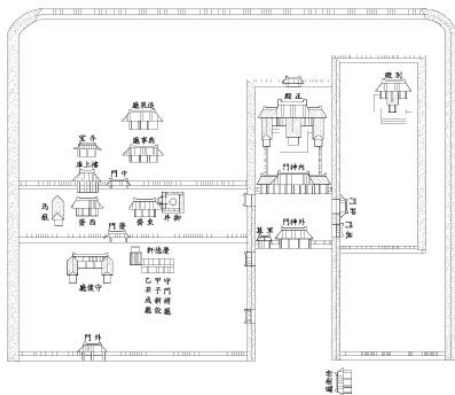


그림 2. 경기전 배치도(『慶基殿儀』에서 모사)

15) 익랑, 월랑, 첨각 등의 용어는 정리되어 있지 않아 「경기전의」에 나오는 용어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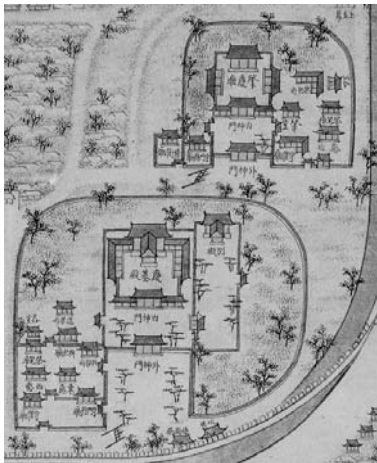


그림 3.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십국병풍』(『왕의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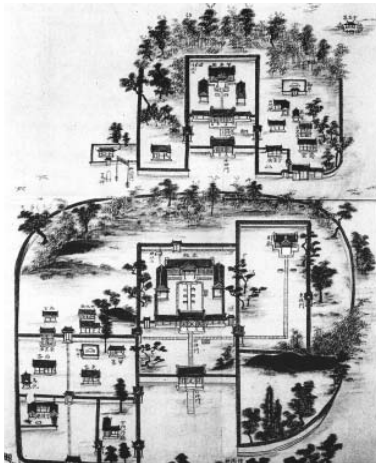


그림 4.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경묘경기전도형』(『왕의초상』)

경기전의 전체적인 배치는 『경기전의』에 수록된 배치도와 조선 후기에 그려진 여러 고지도들에서 확인된다. 중앙에는 정전 영역이 자리하고 동쪽에는 별전 영역, 서쪽에는 제례를 준비하는 부속채 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치 형식은 다른 태조 진전인 준원전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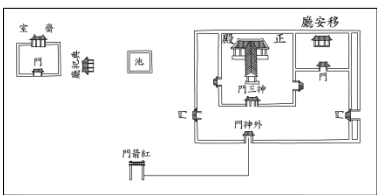


그림 5. 준원전도
(『北道各陵殿圖形』에서 모사)



그림 6. 영흥 준원전 전경
(『조선고적도보』)

2. 영역별 공간 구성



사진 1. 감실정면



사진 2. 보개천장



사진 3. 석탑(石榻)

가. 정전 영역

정전 영역은 제례가 행해지는 영역으로 어진을 봉안한 정전을 비롯하여 정자각, 내신문과 외신문, 익랑, 월랑 등이 있다. 정전은 가장 안쪽에 자리하며 좌우에는 익랑이 연결되고 익랑에서 직각으로 꺾여 월랑이 연결된다. 익랑과 월랑, 침각 등은 정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정전 마당을 위요하여 제례를 위한 엄숙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지붕과 기단 등의 높이와 공포의 형식 등 건축물의 세부 수법에 차이를 두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정전의 높은 위계를 표현한 것이다.

표 2. 정전 영역의 건축구성과 형식

구 분	정 전	정자각	익 량	월 량	첨 각	내신문	외신문
칸 수	3칸×3칸	1칸×1칸	2칸×1칸	4칸×1칸	2칸×1칸	3칸×2칸	3칸×2칸
기 단	장대석 2벌대	장대석 2벌대	장대석 외벌대	장대석 외벌대	장대석 외벌대	장대석 외벌대	장대석 외벌대
초 석	가공초석 (주좌있음)	가공초석 (주좌있음)	가공초석 (주좌있음)	자연석	자연석	가공초석 (주좌있음)	가공초석 (주좌있음)
구 조	1고주 5량	3량	3량	3량	3량	심주 5량	심주 5량
공 포	다포 (내외 3출목)	1출목 2익공	초익공	초익공	초익공	다포 (내외 2출목)	주심포 (외 2출목)
지 붕	맞배 겹처마	맞배 겹처마	맞배 홀처마	맞배 홀처마	맞배 홀처마	맞배 겹처마	맞배 겹처마
용마루	취두, 양성바름	5단 마루기와	5단 마루기와	5단 마루기와	5단 마루기와	5단 마루 기와 (본래 양 성바름)	5단 마루기와 (본래 양 성바름)

정전은 감실(龕室)을 마련하여 어진을 봉안하고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다. 정전 내부에는 바닥전을 깔고 제상(祭床)을 비롯한 각종 산선(黻扇)과 청개(靑蓋), 홍개(紅蓋) 등의 의장물을 진열하였다. 감실은 침실(寢室) 또는 어방(御房)¹⁶⁾으로도 불리는데 1칸을 앞뒤로 나누어 중앙에 어진을 봉안하고 뒤쪽 공간에는 물품을 수장할 수 있도록 했다.¹⁷⁾ 어진 뒤에는 오봉병을 세웠으며 상부 천장은 봉황이 그려진 보개천장으로 장엄하였다.

정전은 일반적인 묘(廟)건축과 같이 삼면을 벽으로 축조하고 평상시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 어진이 훼손될 우려가

16) 『경기전의』에는 침실(寢室)이라 하고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에는 어방(御房)이라 기록되어 있다.

17) 『경기전의』 ‘殿中存戒’ 조에 1614년 경기전 중건시 청홍개, 양산 등 의장물을 사용하고 침실 뒤 방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419년(세종 1) 불을 피우자는 의견과 영정을 맡아 늘 더운 방에 안치해 두었다가 제사 때면 펴서 벽에 걸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을 피우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또한 연기에 의해 어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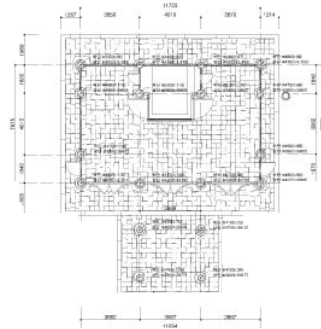


그림 7. 정전·정자각 평면도

초창기 경기전에서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솥을 화로에 피워 건물 내부에 나누어 놓았었다. 이후 1439년(세종 21)에 이르러 어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전 침실 바닥에 온돌을 놓고 북쪽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온돌에는 직접 불을 때지 않고 밖에서 솥을 피워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궁이에 넣어 화재와 그을음을 예방하였다. 그러나 불을 직접 때지 않으면 습기 제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오제를 지낸 후 어진을 궤 속에 넣어 온돌 위에 놓았다가 추석제를 지낼 때 다시 꺼내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어진은 본래 벽에 기대어 봉안하였는데 이로 인해 어진이 훼손되는 단점이 있었다. 어진에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온돌에 점화하고 5일마다 봉심(奉審)하였지만²⁰⁾ 어진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어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741년(영조 17)에 경기전 어진을 보수한 후부터 어진은 영회전·장녕전과 같이 침실 중앙에 봉안하였다.²¹⁾

18)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10월 24일(乙未).

19)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17일(癸亥).

20) 『경기전의』에 점화의(點火儀)와 봉심의(奉審儀)가 수록되어 있다.

21) 『영조실록』 권54 영조17년 9월 2일(甲子).

경기전 침실 하부의 온돌은 1872년 경기전과 조정묘의 대규모 수리 시 마루(廳)로 개조하였다. 온돌을 마루로 바꾼 이유는 화재의 위험 때문이다.

일반적인 묘(廟)건축에서는 정면에만 문을 시설한다. 그러나 경기전 정전은 사찰의 불전 형식과 같이 양 측면에도 문이 있다. 이 문은 제례 준비와 어진을 봉심하기 위하여 출입하던 문으로 보인다.²²⁾ 정면 중앙의 문은 신문(神門)으로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제례 시 헌관과 행례자들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온다.

정자각은 제례 시 준소(樽所)가 설치되며 집례자가 서 있는 곳으로 활용된다. 종묘 등에서는 전면 퇴칸을 개방하여 준소로 활용하지만 경기전 정전은 전퇴가 없으므로 행례 시 비가 올 경우 준소가 비를 맞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자각은 우천시 행례를 대비해 건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자각 삼면에는 모두 계단이 있고 남쪽의 중앙 계단은 신도(神道)와 연결되어 있다. 행례 시 제관은 정자각 동측의 계단으로 올라 내려올 때도 이 계단을 이용하며 서쪽 계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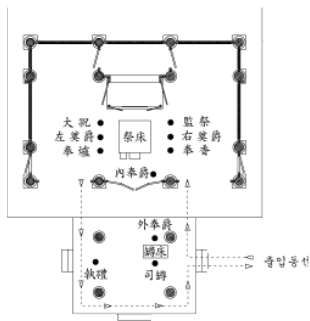


그림 8. 현행 『중앙대제』 시 정전과 정자각 내부의 제관 위치도

정전 좌우에는 익랑과 월랑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조선 초기 종묘와 영녕전, 문소전 등 대부분의 묘(廟)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동익랑은 행례 시 소차(小次)가 설치되며 서익랑은 제물을 보관해 두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경기전의』 「제물봉

22) 임진영, 「조선초기 왕실사묘건축의 전개과정과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상식」에는 제향 하루 전날 제물을 서익랑 홍장(紅藏)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 후 신근봉(臣謹封)이라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직도 서익랑에는 홍장과 홍궤(紅櫃)가 잘 남아 있다. 월랑은 비가 올 때도 제례를 행할 수 있도록 마당을 대신하여 마련한 배위의 공간으로 건립된 것이다.²³⁾

나. 별전 영역

별전(別殿)은 정전을 수리할 때 임시로 어진을 봉안하거나 어진을 보수할 때 사용하는 이안청(移安廳)이다. 『경기전』에는 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진전의 동쪽 담장밖에는 별전이 있는데 대랑 3칸이다. 안에는 어탑이 있고 바깥에는 정각(정지각)이 있다. 서쪽 담에는 문각(門闕)이 있으며 정문과 협문을 설치하였다. 동쪽 담에는 작은 문이 있다.

경기전은 크고 작은 보수 공사가 많았는데 이때마다 어진을 전주객사로 이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객사의 도배(塗褙), 포진(鋪陳) 등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유사 시 어진의 이안처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종묘수개등록』에는 1614년에 경기전을 중건할 때 이안전(移安殿)도 함께 건립하고자 하여 개기(開基)하였으나 영건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⁴⁾

별전은 현존하지 않지만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정전과 달리 온돌을 시설하지 않고 마루(廳)를 깔았으며 내부에는 어탑(御榻)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진을 별전에 이안할 경우에는 정전 내부

23) 임진영, 앞의 논문, 59쪽.

24) 『종묘수개등록』 권2, 1675년(숙종 1) 9월 24일, 규장각 소장 자료

에 있던 의장물도 함께 봉안해 두었으며 평상시에는 향정자(香亭子), 신연(神輦), 장궤(長櫃) 등 어진을 옮길 때 사용하던 물품을 보관하였다.²⁵⁾ 이 외에도 급난(急難)을 당했을 때 어진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흑장통(黑長筒)을 비치해 두었다.²⁶⁾

다. 부속채 영역

부속채 영역은 담장으로 인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앞열에는 전사청과 수문장청이 자리하고 중앙열에는 동재와 서재, 마구, 어정(御井)이 있으며 뒷열에는 전사청과 조병청, 용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부속채 영역은 여러 고지도와 『경기전의』, 『조경묘경기전대수리등록(肇慶廟慶基殿大修理騰錄)』 등의 기록을 볼 때 수차례에 걸쳐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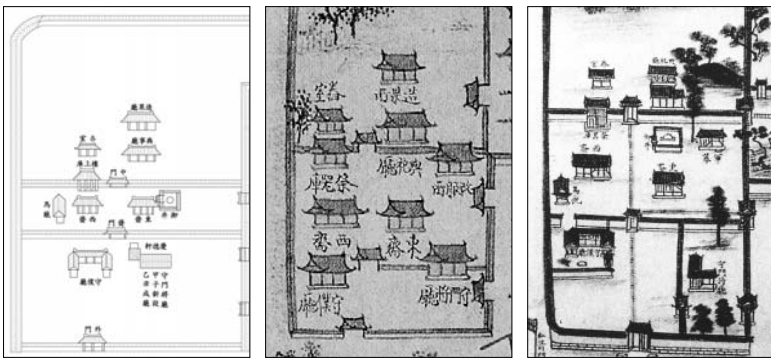


그림 9. 부속채 영역

(출처_ 좌: 『경기전의』 배지도, 중: 『완산부지도십곡병풍』, 우: 『조경묘경기전도형』)

25)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2월 21일(己巳).

26)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7월12일(戊申).

표 3. 부속채의 기능과 변화

건물명칭	기 능	비 고
성상청 (지용청)	• 공무에 필요한 물품을 대주던 곳	• 적어도 1659년까지는 존재. 서재 앞에 있었음. • 정면 5칸
수복청	• 하급관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살림집의 안채와 같은 형식	• ㄷ자형 건물
수문장청 (경덕헌)	• 경기전 일곽을 지키는 수문장이 일을 맡아보던 곳	• 1865년 신축, ㄴ자형 • 1872년 개건 (본래 6칸에서 3칸 증축)
동재	• 전관의 직소 • 제향 시 헌관은 좌측 방으로 들고 집사관은 우측 방에 든다.	•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축물 • 후대에 평면 구조가 바뀜
서재	• 전관의 직소 • 우측방은 전관이 자리하고 좌측 방은 제향시 제물을 두는 곳	• 정면 4칸 건물에서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변화, 1872년에 2칸 증축 • 후대에 평면 구조가 바뀜
마구	• 관리들의 말을 두는 곳	• 서재의 남서쪽에 있었음
제기고	• 제기 제복 등 제물과 곡식 등을 보관	• 2층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
어정	• 제사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우물	• 주변은 담장을 치고 출입문을 시설함
전사청	•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제수음식을 만드는 곳	• 본래는 대량 4칸 건물로 한 칸은 전 사관의 방이고 1칸은 술방, 1칸은 조과처, 1칸은 제물을 봉치함. 후대 에 따로 조병청 2칸, 술방 1칸이 건 립되어 공간이 분리됨. 1872년 당 시 전사청은 정면 4칸, 측면 2칸
조병청	• 유밀과 과자 등 제사음식을 만들고 보관	• 술방 등을 포함하여 정면 4칸, 측면 2칸
용실	• 제수용 음식을 만드는 방앗간	• 2칸, 1872년 개건
개복소	• 제의 등을 수선하는 곳	• 1872년 신축하였으며 1899년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됨
군막	• 금화군 등이 수직하던 곳	• 본래 외신문 서쪽에 있었으나 후대에 어정 동측으로 이동, 정면 3칸, 측면 2칸
고직사 (고직가)	• 청소 등 잡일을 맡아 하던 하급인이 거주	• 1872년 신축 (4칸)
시위청	• 시위군이 머무는 곳	• 1728년 신축 • 일자집에서 후대에 ㄱ자로 증축됨

IV. 맺음말

경기전은 1410년(태종 10)에 창건된 태조 진전이다. 처음에는 쉬용전(粹容殿) 또는 어용전(御容殿) 등으로 불리다가 1442년(세종 24)에 이르러 비로소 경기전이라는 전호(殿號)가 생기고 전지기(殿直)가 배치되었다. 이 때 전국에 있던 태조 진전들을 모두 정비하면서 비로소 태조 진전으로서의 건축적 틀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틀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경기전은 중앙의 정전 영역을 중심으로 동측의 별전 영역, 서측의 부속채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자의 영역은 모두 행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계획된 것이다. 특히 정전 영역은 정전과 정자각, 익랑 및 월랑, 내신문과 좌우 첨각, 외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건물은 담장과 함께 정전 마당을 위요하여 제례를 위한 엄숙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정전을 중심으로 익랑은 정전 지붕보다 한 단 낮게 연결시키고 여기에 다시 월랑의 지붕을 낮춘 것은 건축적 위계를 표현한 것이다.

조선시대 태조 진전은 전조(前朝)의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태조와 관계된 지역에 모두 5동이 건립되었다. 태조 어진도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26축이 있었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건축물과 함께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경주 집경전의 어진과 함께 온전하였다. 이 때문에 광해군대에 이르러 여러 진전을 중건할 때 경기전을 가장 먼저 중건하였으며 어진을 잃어버린 목청전은 그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인조연간에 경주 집경전과 평양 영송전의 태조 어진마저 화재와 병자호란으로 소실되면서 경기전 어진은 태조 어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인식되었다. 숙종연간 남별전(영희전)에 봉안한 태조 어진은 경기전의 어진을 모사한 것이다. 1872년에는 경기전의

어진이 희미해지자 영희전의 어진을 모사하여 새로 봉안하였다. 경기전에 남아있던 태조 어진은 현재 유일하게 보존된 태조 어진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여러 진전이 건립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전만 조선 시대의 어진을 봉안하고 있다. 즉,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간직한 진전은 경기전이 유일하다. 1614년에 중건한 후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쳤지만 공포의 모습 등을 볼 때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한국전축사에 있어서도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가 매우 높다.

조경묘와 조경단

이 욱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I. 조경묘와 조선 후기 시조 제사

1. 왕실 시조묘의 건립 논의
2. 시조의 사당 건립에 반대
3. 시조묘 건립의 정당성
4. 조경묘와 왕실의 역사

II. 대한제국과 조경단

1. 건지산의 주산 논쟁
2. 건지산과 시조묘
3. 조경단 건립
4. 시조 묘역의 신화화

I. 조경묘와 조선 후기 시조 제사

1. 왕실 시조묘(始祖廟)의 건립 논의

전주에서 북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건지산이 있다. 이 산은 일찍부터 전주의 진산(鎭山)으로 간주되었고, 경기전이 세워진 후에는 진전(眞殿)의 주맥(主脈) 또는 비보소(裨補所)로 인식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 조선시대 왕실의 시조 이한에 대한 제사는 이 건지산과 연관되어 1765년(영조 41)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4월 학림군 이육(鶴林君 李堧)은 시조에 대한 제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 완산의 지역은 우리 성조에게 상(商)·태(邵)¹⁾의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며 건지산은 사공의 교릉(喬陵)이 있는 땅입니다. 대개 건지산 국면은 부의 경계에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사공(司空)의 의리(衣履)가 묻혀있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예부터 (무덤으로) 지적되던 곳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어찌 (훈령이) 이곳에 오르내리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묘역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서 봉축(封築)의 의식과 시절(時節)의 제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상나라와 주나라에서 직(稷)과 계(契)를 제

1) 周나라 시조 후직(后稷)이 처음으로 농함을 받은 나라. 지금의 陝西省 武功縣內이다.

사한 예에 비하면 흠전(欠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상께서 덕과 효에 통달하시어 삼대를 본받으시니 숭봉하고 제사하는 법식 또한 상·주의 예와 같아야 할 것인데 어찌 환봉수호(環封守護)하는 데에만 그치십니까? 신은 건지산의 산록에 비석을 세우고 묘역을 조성하고 산 아래에 사당을 건립하여 조상을 영모(永慕)하는 마음을 담아 추원보시(追遠報始)의 땅으로 삼으신다면 옛 성인이 동지에 시조에게 제사한 뜻에 합치되고 상·주의 사전(祀典)에 비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²⁾

인용문에서 이육은 먼저 건지산이 시조의 묘소가 있었던 곳이라 전해지는데 그 묘역의 위치가 확실치 않아 나라에서 금표를 세우고 보호하는 데에만 그쳤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지산에 삼대의 예를 본받아 산록에 비석을 세우고 묘역을 조성할 것과 산 아래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지낼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건지산 묘역의 정비와 묘제(墓祭)를 위한 사당의 건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육의 발의가 있는 지 6년 후인 1771년(영조 47) 정월 5일에 건지산 묘역 문제는 봉상시정(奉常寺正) 이정중(李廷重)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³⁾ 이정중은 영조 즉위 50여 년 중에 향례(享禮)와 사전(祀典)을 정비하여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시조 사공을 위한 제단과 시제(時祭)가 없는 것은 성조(聖朝)의 흠전(欠典)이라며 곧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비석과 사당의 건립을 주장하였던 이육과 달리 이정중은 제단(祭壇)의 건립을 주장한 것이다.

2) 『承政院日記』第1242冊, 英祖 41年 4月 14日(己未).

3) 『承政院日記』第1313冊, 英祖 47年 1月 5日(丁丑).

2. 시조의 사당 건립에 반대

당시 대신들은 시조 사공을 위한 제단 건립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대답을 중심으로 당시 반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이정중이 주장한 단(壇)의 형식은 시조에 대한 제사 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치인 등은 이정중이 제기한 설단(設壇)의 형식을 『예기』 「祭法」 나오는 단선(壇墠)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제법」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단계를 묘(廟), 단(壇), 선(墠)으로 구분하였다.⁴⁾ 그런데 김치인은 이 ‘廟 - 壇 - 墠’의 단계적 이동⁵⁾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조주(祔主)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조를 모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⁶⁾

인용된 「제법」에 따르면 천자 7묘와 제후 5묘에는 그 시조를 모시는 조고묘(祖考廟)가 별도로 있으며, 단과 선의 제사는 기타 4대의 덧수가 다하여 사당에서 옮겨야 하는 신위를 임시로 지내는 제사방식이므로 김치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이정중이 주장한 제단의 설립이 원구(圓丘)의 예를 모방한 것이라면 이것은 제후가 지낼 예가 아니라는 주장이다.⁷⁾ 고례에 시조와 제단을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원구단에서 하

4) 『禮記』 祭吹, “天下有土分地建國置都立邑設廟祔壇墠而祭之 乃爲親疏多少之數 是故王立七廟一壇一墠 曰考廟 曰王考廟 曰皇考廟 曰顯考廟 曰祖考廟 皆月祭之 廟爲恧 有二恧享嘗乃止 去恧爲壇 去壇爲墠 壇墠有禱焉祭之無禱乃止 去墠曰鬼”.

5) 사당인 廟는 천자 7묘, 제후 5묘, 대부 3묘 등으로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이 묘에서 세대를 다한 신위는 恧廟로 옮겨지고 조묘에서 다시 壇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墠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墠에서 떠나는 조상은 鬼가 된다고 하였다.

6) 『承政院日記』 第1313冊, 英祖 47年 1月 12日 (甲寅).

7) 『承政院日記』 第1313冊, 英祖 47年 1月 12日 (甲寅).

늘에 제사지낼 때에 시조를 배위(配位)로 모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구의 제천의례는 천자의 의례로 제후가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이 고려통터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리고 제단의 형식과 무관하게 시조와 시조의 연원이 되는 제왕을 함께 제사지내는 체제(禘祭) 역시 천자의 의례로 제후가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전거를 통해서 김치인은, 제후들에게 모두 창업 이전의 시조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를 존숭하여 제사한 예가 없으며, 예로부터 천자로부터 나라를 처음으로 분봉받은 시봉지군(始封之君)을 태조이자 시조로 모실 따름이라며 시조 제사를 반대하였다.⁸⁾

이렇게 시조 이한에 대한 제사의 발의는 묘역과 연관되어 건지산에 제단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자는 주장이었지만 근거할 고례가 없으며 참례(僭禮)의 우려가 있다는 대신들의 반대로 중단되고 말았다. 건지산 시조묘의 사실 여부가 중점이었던 이전 논의와 달리 제후가 가계상의 시조를 제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제후에게 시조는 시봉지군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이한에 대한 제사는 거부당했다. 영조 역시 이러한 대신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았다.

3. 시조묘(始祖廟) 건립의 정당성

1771년(영조 47) 정월 이정중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대로 시조에 대한 제사는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같은 해 10월 이득리(李得履) 등 7도의 유생들이 이 문제를 다시 상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때 주장이 앞의 두 경우와 다른 점은 건지산 묘역과 별개로 시조에 대한 제사를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득리 등은 건지산

8) 위의 책, 위의 날

시조묘의 위치가 부정확하여 그곳에 묘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⁹⁾ 또한 단선(壇墠)의 논리 역시 시조제에 적당치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후의 시조 제사가 참례가 아니며 이치와 인정으로 헤아리면 타당한 일이라는 것을 다음 두 가지 예를 통해 주장하였다.

첫째, 이득리 등은 『중용』 18장에 나오는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어 태왕(太王)과 왕계(王季)를 추존하여 왕으로 높이고, 선공(先公)을 천자의 예로서 제사하니 이 예법이 제후와 대부 그리고 사서인에게까지 통용되었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시조제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¹⁰⁾

둘째, 송대 유학자들의 예설을 들어 시조에 대한 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정이(程頤, 1033~1107)는 아버지로부터 고조까지의 4대 지친(至親)을 대상으로 한 사시제(四時祭) 외에도 시조를 제사지내는 동지제(冬至祭)와 선조를 제사지내는 입춘제(立春祭)를 제정하였다.¹¹⁾ 이러한 제사들은 『주자가례』에 그대로 수용되어 후대 영향을 끼쳤다.¹²⁾ 상소본은 이 제사들을 예로 들며 친지는 천자의 예로, 사서인(士庶人)은 사서인의 예로 시조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후만 시조의 제사를 지낼 수 없겠느냐고 반문하였다.¹³⁾ 또한 『주자가례』에 실린 송대 유학자 양복(楊復)의 설을 받아 들여 사대부들이 시조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제후가 지내

9) 『承政院日記』第1322冊, 英祖 47年 10月 6日(癸酉); 『位版造成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 14250).

10) 『中庸集註』18章

11) 『二程集』卷10, 禮祭禮.

12) 주자는 시조와 선조에 대한 제사를 고례에 나오는 제제와 혈제에 비교하면서 젊었을 때에는 기행했지만 참례의 혐의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입장과 관계없이 『朱子家禮』에 실린 동지제와 입춘제는 시조 제사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13) 『承政院日記』第1322冊, 英祖 47年 10月 6日(癸酉).

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⁴⁾

한편, 이득리 등의 상소를 보고 영조는 무엇보다 선파(璿派) 후에 1,000여 명이 연명하여 올린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시조를 종묘에 모신다면 어렵지만 이것은 완산에 경기전과 같은 묘를 하나 더 건립하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¹⁵⁾ 여기서 시조묘(始祖廟) 건립의 정당성을 영조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자.

전주에 경기전이 있고 함흥에 준원전(濬源殿)이 있으며, 고구려와 신라의 시조도 묘를 세웠는데 하물며 우리 시조의 묘를 세우지 않겠느냐? 『謚略』을 살펴보면 하물며 부인의 성씨도 적혀있고 그 선조 또한 기록되어 있다. 모름지기 조선 사대부들이 그 시조를 살피는 것에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조(國朝)의 시조이겠는가? 또한 백두산은 조선의 조종산(祖宗山)으로 이제 그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하물며 국군(國君)의 시조이겠는가?¹⁶⁾

위 인용문에서 영조는 시조묘 건립의 정당성을 경전이나 예법보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찾는다. 여기서 영조가 언급한 ‘역대시조묘(歷代始祖廟)’, ‘사대부의 시조 공경’, ‘백두산 사당’ 등의 사례들은 조선후기 국가 사전이나 일반 사대부가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므로 이를 통해서 조경묘 건립 동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4) 앞의 책, 같은날. 『朱子家禮』 「通禮」조에는 “大宗의 집에서 세대가 지난 신주는 (사당에서 옮겨) 묘소에 보관하고, 대종이 그 墓田을 관리하고 해마다 한번 宗人들을 이끌고 와 제사를 지내는데 백세도록 바꾸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양복은 “묘소에 그 신주를 보관하고 묻지 않았다면 묘소엔 반드시 사당이 있어서 그 제사를 받들었을 것이다. 이는 시조가 특별한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5) 『承政院日記』 第1322冊, 英祖 47年 10月 6日(癸酉).

16) 『位版造成都監儀軌』, 傳教秩, 辛卯 十月初六日.

4. 조경묘와 왕실의 역사

(1) 祖宗의 수덕(樹德)

조경묘를 건립한 그 해 12월 영조는 『어제수덕전편(御製樹德全篇)』이란 훈서(訓書)를 지어 간행한 후 세손과 신하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 책은 김육의 『종덕신편(種德新編)』을 본받아 만든 것으로 정치의 요체가 덕을 세움에 있음을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책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조경묘 건립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있었다.

옛날 후적이 천 여년 전에 먼저 덕을 심었으니[樹德] 문왕이 비로소 천명을 받았으며, 우리 조정의 시조가 큰 덕과 깊은 자비로 홍업(洪業)의 터를 놓으시고, 열성들께서 계승하시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아름답도다! 대저 우리나라와 주나라는 서로 부합하기로 『용비어천가』에서 매단마다 주나라를 먼저 언급한 후 우리 조종을 언급하였으니 그 뜻이 우연이 아니다. 지금 천여 년 후에 완산에 (시조의) 묘를 세우니 이것은 바로 주나라에서 선공을 제사했던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오호라! 400년 해동 조선이 (선조의) 적덕누인(積德累仁)에서 비롯하였음을 이 조경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다.¹⁷⁾

위 글에서 영조는 시조 이한을 주나라 시조 후직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왕실의 역사를 1,000여 년 이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조경묘의 건립은 왕업의 기원을 목조에서 더 소급하여 가계상 시조인 이한에게까지 연결시킨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영조는 이 소급된 시간을 ‘수덕(樹德)’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400여 년의

17) 『御製樹德全編』(藏, K3-82)

조선 역사가 시조 이한으로부터 오랫동안 ‘덕을 쌓고 인을 축적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경묘라고 영조는 주장하고 있다.

수덕의 시간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시간이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수덕의 역사도 감추어져 있다. 뿌리의 깊이를 무성한 나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수덕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를 통해 짐작할 따름이다. 왕실의 시조 사공공의 존재는 건지산의 묘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왕조 3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 조경묘는 수덕의 실제 내용이 있어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리는 것이 아니다. 조경묘의 건립은 족보에 기록된 혈연적 연속성을 주나라의 신화적 드라마에 대비시켜 공덕의 역사로 전환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공덕에 대한 보답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 사전에 사공공을 포함시킨 것은 조선 왕조의 조경(肇慶) 사업이 1,000여 년의 역사임을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용을 통해서 영조는 수많은 사대부가의 조종인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왕실과 세록지신(世祿之臣)

1771년(영조 47년) 1월 이정중이 건지산 시조 제사를 발의하였던 그날에 영조는 경복궁 근정전 옛터에서 조참의(朝參儀)를 거행하였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훈시를 내렸다.¹⁸⁾

18) 朝參儀는 매달 초5일, 11일, 21일, 25일에 모든 文武 관원이 검은 옷을 입고 勤政殿이나 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나서 政事에 대해 아뢰는 의식을 가리킨다. 임난으로 경복궁이 불탄 후 창덕궁 인정전에서 주로 거행하였지만 영조는 조참의를 비롯하여 국가의 각종 행사를 경복궁에서 거행하였다.

아! [祖宗의 英靈이] 밝게 하늘에 계시면서 총만하게 임어하신 듯하며 오늘날 여러 신하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모시고 오르내린 듯하다.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리 선왕을 계승한 임금이 지금 나이가 80에 가까운데 이 옛터에 임어하여 이 옛 문에 앉아서 우리로부터 몇 백 년 뒤에 이 예식을 행하니 나의 자손들도 옛 뜰에서 이 예식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서글픈데, 경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오늘날의 여러 신하들이 만약 이것을 생각한다면 봉당을 지어 아부하는 마음과 근거없이 떠드는 풍습과 불확하고 반목하는 기풍은 마땅히 봄날의 얼음 같이 저절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아! 그것을 정말 스스로 없앤다면 참으로 조선(朝鮮)의 신자(臣子)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선조(祖先)의 뜻을 잊어버린 자이니, 무슨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겠는가? 해동(海東) 신자의 심장(心腸)이 어찌 쇠와 돌 같겠는가? 지금의 이 훈유가 어찌 특별히 문관과 음관에게만 유사하는 것이겠는가? 또한 우리 종실에도 유사하는 것이니, 그 선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두 시체(時體)를 행한다면 (영령이) 오르내리며 밝게 임어할 터인데 어떻게 감히 도망하겠는가?¹⁹⁾

조선후기 봉당과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선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조가 봉당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선조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선조의 기억이 “불화하고 반목하는” 봉당의 기풍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선조와 신친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라고 반문하여 선조에 대한 공경을 선왕에 대한 공경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영조는 봉당으로 나뉘진 당시의 신하들을 왕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선조를 기억하고 그들이 섬겼던 조정을 지키는 신하’라는 의미로 이 세록지신(世祿之臣)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조는 산림에 은거하려는 신하들에게도 세록지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출사를

19) 『英祖實錄』 卷116, 英祖 47年 1月 丁未.

권유하였으며, 세록지신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당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록지신은 신하들로 하여금 봉당이 아닌 개별 가문의 후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

II. 대한제국과 조경단

1. 건지산의 주산 논쟁

(1) 1705년(숙종 44)에 건지산을 사이에 두고 진흥청과 전라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진흥청에서는 연이은 기근과 재해로 저치미(儲置米)가 바닥나자 전주 건지산을 본청에 소속시켜 세금을 거둬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전라도에서는 건지산이 전주의 진산이고 주맥이라며 즉각 진흥청의 의견에 반대하였고, 이런 반론을 접한 당시 예조판서이자 진청당상(賑廳堂上)이었던 민진원(閔鎭遠)은 건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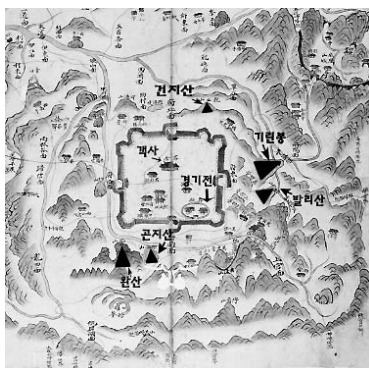
대개 건지산은 이전부터 풍패의 주맥이라 칭하였지만 그 실상 진전의 주맥은 동쪽으로부터 오며, 건지산은 북방을 차단하는 한 가지의 잔산(殘山)입니다. 진전(眞殿)과 관사(官舍)는 모두 남향이고 건지산이 배후에 있으므로 넓게 보아 이를 주맥이라 칭하였지만 이 말은 실상이 아닙니다. 설령 진실로 주맥이라 할지라도 도성으로 말하면 백악과 삼각산의 산등선 사이 평지에는 원래 경작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진전이 비록 중요한 것이지만 종묘와 사직이 있는 도성에 비하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²⁰⁾

20) 『承政院日記』, 숙종 44년(1718) 윤8월 23일.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민진원은 건지산이 풍패의 주맥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는 전주의 주산이 건지산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전주로 들어오는 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경기전과 관사가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산’인 건지산을 주맥이라 대략 칭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여기서 동쪽 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전주 읍성 동쪽 기린봉 자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영조대에 편찬된 읍지를 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全州府邑誌』, 정조대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완산지』, 1791년(정조 15) 경에 작성된 『全羅道全州益山礪山靈巖邑誌』 등은 전주의 진산을 건지산으로 간주하면서도 한결같이 발리산을 진전의 주맥으로 기록하였다.

관아와 경기전은 같은 성내에 있지만 전자는 북쪽에 있으며 경기전은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발리산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상의 차이로 인하여 건지산에서 경기전을 분리하여 발리산과 연결시킨 것이다.



〈그림 1〉 전주지도(全州府地圖), 『海東地圖』(奎古大4709-41)

(3) 1782년(정조6) 8월에 홍충도 연산에 살던 유학 이진방의 격쟁(擊鐙)을 계기로 만들어진 『전주부건지산금양절목등초』²¹⁾에는 건지산에 대해서 “주(州)의 주맥이 되고 진전을 배봉(陪奉)하는 후

21) 『全州府乾止山禁養節日曆抄』에 기록된 全州府所在 乾止山禁養節日曆抄²¹⁾을 가리킨다.

면이 되어 비보로 이름 하였으니, 관계되는 바가 막중하고 수호하는 것이 특별합니다”라고 하였다.²³⁾ 그리고 당시 만들어진 공식적인 건지산의 금양절목에서도 분명히 이를 밝히고 있다.

본산은 진진의 주막으로 ‘금경(禁耕)’ 2자가 양안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궁방절수(宮房折受)도 모두 환침(還寢)하였는즉, 간민(奸民)이 법을 어기고 몰래 간척한 것은 심히 슬픈 일이다. 지금 봉직에게 지급하는 60두락 외에 일체의 것은 환진(還陳)하며, 만약 이전같이 법을 어기고 경작하는 폐단이 있으면 어긴 자에게 ‘봉산봉포내설장률’에 의하여 장(杖) 100대, 유(流) 3,000리로 논죄하고 감관과 봉직 등은 지정동률(知情同律)을 적용한다.²⁴⁾

위 금양절목에 시조 묘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조대에 건지산과 시조 묘역에 관한 논의가 중앙에서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건지산의 봉호가 전주의 주산과 경기전의 주막이란 명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2. 건지산과 시조묘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기준으로 할 때 건지산이 시조묘와 연관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729년(영조5)이었다. 당시에 영조는 건지산을 새로 태어난 웅주방(翁主房)에 절수시키려 했으나 관찰사 이광덕(李匡德)의 반대로 중단되었다.²⁵⁾ 이 논의 과정에서 지경

22) 『全州府乾止山禁養節日曆抄』, 全州府所在 乾止山禁養節日曆抄」¹狀啓, 乾隆 47年 8月 14日.

23) 앞의 책, 全州府所在 乾止山禁養節日曆抄, 乾隆 47年 9月 19日, ¹禁條節日移文.

24) 『英祖實錄』卷22 英祖 5年 4月 2日(丙子); 『英祖實錄』卷23, 英祖 5年 尹7月 23(乙未).

연사(知經筵事) 윤순(尹淳)은 건지산 묘역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며 이전처럼 둘 것을 건의하였다.²⁵⁾ 그는 지금까지 조정에서 건지산을 절수하지 않은 것은 산에 오랜 무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부터 이 무덤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전해졌고 사방에 봉표가 완전히 있지만 고증할 문적이 없어 도신(道臣)들이 보고하지 않았다. 여기서 윤순이 말한 무덤이 시조묘를 가리키는지, 또한 전해지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후의 주장과 연결시켜 볼 때 당시 이 무덤이 전주이씨의 시조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1744년(영조 20)에 영조가 추존왕 이전 무덤에 대해 혹 아는 자가 있는지 신하들에게 문의했을 때 유엄과 송인명이 건지산에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였다.²⁶⁾ 이때에도 『승정원일기』에는 시조묘란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윤순, 유엄, 송인명의 언급을 볼 때 건지산을 풍패지향의 주산이나 진전의 주맥이 아니라 시조묘와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765년(영조 41) 4월, 시조 묘역의 보호와 기념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학림군 이육이었다. 그 후 1771년(영조 47) 10월 이득리(李得履) 등이 시조의 사당을 건립할 것을 요청하여 건지산이 아닌 읍성 내 경기전 뒤편에 조경묘가 세워졌다. 이 조경묘의 건립은 이중건이 주장한 시조 묘역 조성과 구별될 뿐 아니라 건지산과 시조묘의 관계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경묘 건립이 확정된 후에도 이육은 건지산을 봉호하여 능원의 경계를 조

25) 『承政院日記』第 690冊, 英祖 5年 潤7月 23日(乙未).

26) 『承政院日記』第 967冊, 英祖 20年 1月 4日(壬午).

성하고 그 가운데 사당을 건립하여 마치 능원의 정자각(丁字閣)처럼 만들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²⁷⁾ 이후 건지산 시조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함없이 부정적이었다.

(3) 1679년(숙종 5)에 처음 편찬된 『선원계보기략』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며 계속 만들어졌는데 1783년(정조7)에 전반적인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이때 범례에 새로 추가된 항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계(璿系) 제1세대인 선공(先公)의 묘지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2세부터 16세까지는 선비(先北)와 묘지에 관해서 쓰지 않았다. 이것은 신라와 고려 때 문헌이 부족하여 조경 사업을 영구히 징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⁸⁾

(4) 국가의 입장과 무관하게 건지산 시조 묘역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널리 유포되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읍지』였다.

언전(諺傳)에 건지산 사공공의 묘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 영종(英宗)이 땅을 파서 묘역을 검증할 것을 명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결국 근처 백성들의 무덤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감관과 산직을 두어 금표의 경계를 정하고 경작을 금하였으며 방백과 수령으로 하여금 삼가 지키고 보호하여 숭봉의 예를 보존하도록 하였다.²⁹⁾

건지산 북쪽 십리 거리에 있다. 세전(世傳)에 국조의 선계(先系) 묘가 있다고 하여 영종 6년에 감사로 하여금 민간 무덤을 옮기도록 하고 10리를

27) 『承政院日記』 英祖 47年(1771) 10月 15日.

28) 『璿源系譜紀略』(藏K2-995, 1795년 정조19), 凡例

29) 『完山誌』, 塚墓

한정하여 봉표로 삼고 경작과 벌목을 금하였다.³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영조대 건지산에 대한 발굴 작업과 봉호는 보이지 않는다. 시기상으로 볼 때 『대동지지』에 언급한 영조 6년 봉호는 영조 5년 용주방 절수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때 논의의 결론은 이전의 상태로 유지하였었다는 것이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조치는 없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 읍지에서 언급한 건지산 시조묘에 관한 내용은 세전 또는 언전과 확인되지 않은 영조대 사건을 기재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 읍지들을 기준으로 할 때 전주 건지산은 주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지만 진전의 주맥이란 이미지는 읍성 동쪽 발리산에게 넘겨주었다. 그 대신 건지산에는 시조묘역의 이미지가 새로 입혀지고 있었다.

3. 조경단 건립

조경단은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년이 지난 1898년 9월 12일(음력)에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이종건(李鍾健, 1843-1930)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옛날 주공은 예법을 제정하여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후직을 함께 제사 지내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덕에 보답하는 뜻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시조 사공공은 곧 주(周)나라의 후직과 같은 것인 만큼 숭배하여 받드는 절차는 마땅히 옛날과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태조대왕은 특별히 수호군 전주 건지산의 무덤이 있는 곳에 두고서 나무를 베고 짐승을 기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숭배하여 받드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년 이래로 나라의

30) 『大東地志』(奎山4790-37-1-15), 全州, 山水.

기들이 해이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나무를 찍고 몰래 무덤을 쓰는 버릇이 흔히 있곤 합니다. 심지어 온 산이 벌거숭이로 되고 무덤이 다닥다닥 많이 널려 있건만 금지시키지 못하여 마침내 더없이 중요한 무덤이 있는 구역 안에 땅을 나누어 농사를 짓게 하고 사적으로 가축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길 가는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탄식을 하는데 하물며 후예들이 어찌 원통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³¹⁾

이종건은 먼저 조선 왕실의 시조 이한을 주나라의 시조 후직에 비유하고, 이 때문에 조선 태조 때부터 그의 무덤이 있던 건지산에 수호군을 두어서 보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금령이 해이해져 백성들이 투쟁하고 벌목과 경작을 일삼아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1899년 5월 1일(양)에 전주 건지산에 시조묘를 찾기 위해 전주에 도착한 봉심관 이재곤은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과 함께 건지산을 직접 답사한 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옛 책의 공첩에는 건지산이 풍패 고을의 주산이고 조경묘·경기전의 주맥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殿儀』을 살펴보고 『邑誌』를 보더라도 모두 건지산에는 국조(國祖) 사공공의 묘가 있으나 다만 묘의 향방을 증험할 수 없는 것이 흠이라 의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열성조께서 건지산을 둘러 봉호(封護)한 뜻은 이것 때문이지 전주의 진산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산천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마이산의 서쪽에서 백리를 달려와 가장 수려하고 기이한 것이기린봉이 되었고, 비스듬히 돌아 북으로 뻗은 것이 건지산이니 또 하나의 맥입니다. 기린봉의 바깥으로 뻗은 산맥 하나가 승암산(僧巖山)이 되고, 서쪽 아래로 발리봉(發李峰)이 되고 오목대가 되었

31) 『高宗實錄』 35년(1898) 10월 24일.

32) 『全州府乾止山禁養節日謄抄』(奎9740), 光武二年陰曆己亥三月 日

습니다. 전주부의 치소(治所)는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발리산은 우리 목
조가 살았던 터이므로 풍패의 주산이 되고 묘전의 래맥(來脈)이 되는 것
이 틀림없습니다.³²⁾

위 인용문에서 이재곤은 그동안 건지산이 전주의 주산이자 경기
전 및 조경묘의 주맥으로 간주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세전 또는 언전으로 전해오던 시조
묘 관련 이야기, 곧 건지산에 시조묘가 있다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
실로 인정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조정단 옆의 비석에 새겨진 고종
어제 음기에는 이재곤이 올린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건지
산을 조선 초기부터 수호하고 영조대 금양 조치한 것은 모두 이곳
에 시조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³³⁾ 그리고
정협할 자료가 없어 시조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언급
하였던 『선원계보기략』은 이제 “시조묘가 전주 건지산에 있다는
사실이 『경기전』의 전주 읍지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광무 3년
에 예신을 보내어 봉심하고 묘소에 흙을 더하였다”라고 수정되었
다.³⁴⁾

구전으로 전래되어온 건지산 시조묘역에 관한 이야기가 조선 후
기 읍지에서 ‘세전’이란 단서 아래 기록되었고, 대한제국기에 이르
러 제단과 비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공인된 것이다. 이러한 변
화를 ‘건지산 시조 묘역의 역사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3) 『肇慶墳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上, 「御製肇慶墳碑石」.

34) 『承政院日記』高宗 36年(1899) 4月 19日. 1900년 건지산에 조정단이 건립된
후 편찬된 『선원계보기략』의 범례에는 이전의 글 다음에 “先公墓在全州府乾
止山昭載於慶基殿儀及全州邑誌光武三年己亥命禮臣奉審加土于墓所”라고 덧
붙이고 있다[『濔源系譜記略』(藏K2-1026, 1901, 광무5)].

4. 시조 묘역의 신화화

건지산에 시조의 묘역이 있었다는 물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곳이 시조 묘역이란 확신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풍수적 안목이고, 다른 하나는 석물의 출현이다. 이 두 가지는 시조 묘역의 역사화가 가지는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월 22일 전리북도 관찰사 이완용과 함께 건지산에 이르러 단을 세울 곳을 봉심한즉 건지산은 전주부에서 북쪽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기풍(氣風)이 조밀하여 웅이 서리고 봉황이 춤추는 형상이니 하늘이 보장한 길지(吉地)입니다. 왕자봉 아래 부산(負辰)의 언덕이 있는 곳에, 묘를 삼은 곳으로 의심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산지기와 거민에게 자세히 물어본즉 모두 이곳 묘의 형상을 예부터 하묘(下墓)라 일컫고, 하묘로부터 위로 16척 5촌쯤 떨어진 곳에 상묘(上墓)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왕래하며 여러 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묘의 형상과 비슷한 곳을 찾지 못하여 줄로 주변을 둘러 소나무에 걸어 묘역을 표시하였습니다.³⁵⁾

위 인용문에서 건지산을 “하늘이 보장한 길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풍수적 견해는 수사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후 이곳을 봉심하고 고종에게 보고하였던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 역시 건지산을 국의 형세가 맑고 아름다우며 다른 어떤 곳보다 좋은 곳이라 칭송하였다.³⁶⁾ 이러한 보고를 받은 고종은 “건지산이 비록 산이 나지막하고 산기슭이 길지 않으나 형세가 맑고 고와 서

35) 『肇慶壇浴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上, 詔勅, 己亥4月 6日 全州奉審 率臣 李載嶷書

36) 『承政院日記』高宗 36年(1899)4月 18日(陽 5月 27日).

을 가까이에 있는 능침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태조대왕의 탄강이 실로 이 산에서 기반한 것”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³⁷⁾

건지산의 풍수적 국면과 시조묘는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사공공의 묘가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 음택풍수사상이 널리 유포된 것도 아니며, 그에 맞추어 묘자리를 정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개창이란 결과를 가지고 그 기틀이 된 것으로 믿어지는 풍수적 길지를 찾아 시조묘와 결합시킨 것이다.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그 산의 국면이 왕업을 일으킬 만한 형상이라는 데에서 시조묘의 확신성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종은 제단 건축에서 더 나아가 묘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봉분을 수축할 것을 명하였다.³⁸⁾

여기서 건지산 시조 묘역의 역사성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됨을 볼 수 있다. 시조묘역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니라, 풍수설에 의하여 신비적 요소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서 현재 황실 및 황제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아우라가 되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조 묘역의 역사화’가 풍수설에 의하여 ‘시조 묘역의 신화화’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신화화는 초월적 존재의 내러티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매개로 초월적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 산 자와 죽은 자의 연속성 등을 포함한 풍수적 담론의 수용을 가리킨다. 만약 시조 묘역의 역사화가 이러한 신화화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시조의 연원을 밝히고 황제의 권위를 표상하는 제장의 공간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런데 건지산 시조 묘역은 풍수적 해석을 통해서 황실의 정치적 실체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영구한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37) 『日省錄』 高宗 36年(1899) 4月 19日(陽 5月 28日),

38) 위의 책, 같은 날.

【참고문헌】

- 이 욱, 「조선시대 왕실의 시조와 조경묘 건립」, 『조선시대사학보』38, 2006.
——, 「대한제국기 황실의 존숭과 조경단 건립」, 강돈구 외, 『근대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경기전 제례와 제물 진설

최 순 권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I. 진전과 경기전

1. 조선왕조의 진전
2. 태조진전과 경기전

II. 경기전 제례의 변화와 특징

1. 경기전 제례의 역사
2. 경기전의 제례 절차와 공간 활용

III. 경기전 제물 진설의 변화와 특징

1.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대향의
2. 현행 중앙대제

I. 진전과 경기전

1. 조선왕조의 진전

진전은 왕의 진영, 즉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향사하는 일종의 사당을 말한다. 왕의 초상을 신어(神御), 영정(影幀), 진영(眞影), 어진(御眞)이라 하는데, 진영을 모신다고 하여 진전이라 한다. 고려 시대에는 도성 내의 경령전(景靈殿)을 설립하여 태조와 4대친의 영정을 모시었고, 개성 부근에는 각 왕마다 원찰(願刹)을 두고 왕과 후비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이것은 송나라 때 신어전(神御殿)과 경령궁(景靈宮)을 설치하여 황제와 후비의 진영을 봉안하였던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조선초기에도 태조는 부친인 환조를 위해 계성전을 건립하고서 불교식으로 진영을 봉안하고 소찬을 올리었다. 그리고 태종대에는 인소전이라 하여 태조 및 신의왕후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그러나 세종대에는 선왕의 진전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문소전을 건립하여 태조 영정 및 태종의 위판을 모시는 국왕 가묘로서 4대친을 모시는 원묘제를 정립하였다.

이에 조선초기에는 진전으로서, 태조진전(太祖眞殿)인 목청전(穆淸殿), 준원전(濟源殿), 영숭전(永崇殿), 경기전(慶基殿), 집경전(集慶殿)만이 있었다. 목청전은 개성, 준원전은 영흥, 영숭전은 평

양, 경기전은 전주, 집경전은 경주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여 속절마다 제사를 지냈다.

문소전이 국왕가묘로서 신주만을 봉안하게 되자, 선원전(璦源殿)을 별도로 문소전 뒤쪽에 건립하여 열성조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이 선원전에서는 열성조의 수용과 함께 선원록(璦源錄)을 봉안하였는데, 처음에 전헌(奠獻)의 예는 없었다. 명종 3년에 홍섬이 “선원전에 태조의 영정만도 26축이며, 태종, 세종, 세조 역시 모두 영정이 있고, 덕종, 성종, 중종의 영정은 모두 추사본(追寫本)이 있으며, 또 성종 영정은 처음에는 1축이었다가 후에 개모(改模)하여 9축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선원전은 열성조의 진영을 봉안하는 진전으로만 운영되었다.

조선전기에 태조진전 이외에 세조의 진영을 봉안한 봉선전(奉先殿)이 양주 광릉 근처에 있었고, 성종의 생부인 덕종의 진영을 봉안한 의묘후전(懿廟後殿)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삭망, 속절, 기신제를 지냈는데, 성종 7년에 덕종의 진영을 선원전으로 이안하면서 의묘후전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서울의 선원전, 개성의 목청전, 경주의 집경전, 평양의 영송전, 양주의 봉선전이 소실되어 폐기되었다. 이에 강릉의 집경전, 강화의 영송전, 봉선전, 남별전(南別殿) 등이 새로 건립되고, 인조 6년에는 원종의 영정을 숭은전(崇恩殿)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병자호란 등으로 진전 및 영정이 소실되어, 영흥 준원전과 전주 경기전의 태조진영과 남별전에서 봉안하였던 세조와 원종의 진영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숙종 3년에는 남별전을 이관하자는 논의가 있게 되어, 결국 본전(本殿)을 증진하게 되었고, 숙종 16년에는 영회전(永禧殿)으로 고쳤다. 영회전에는 태조, 세조, 원종의 진영을 봉안하였고, 속절마다 제사를 지냈다. 한편 강화부의 장녕전에는 숙종의 진영

을, 만녕전에는 영조의 진영을 봉안하였는데, 후에 영조의 진영을 장녕전으로 이인하면서 만녕전은 폐기되었다.

또한 창덕궁의 인정전 서쪽에 새로운 선원전을 건립하여 숙종의 별본(別本)을 봉안하였는데, 정조 원년에 영조 진영을, 순조 2년에 정조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열성조의 진전으로 기능이 확대되었고, 선원전에서는 삭망마다 왕이 친히 분향하고 참배(瞻拜)하거나 기일에는 차례를 지냈다. 이에 영희전에서는 태조, 세조, 원종, 숙종, 영조의 진영을, 선원전에서는 숙종, 영조,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는 진전체제가 마련되었다.

그 후 선원전에는 헌종 12년에 순조와 익종의 진영을, 철종 2년에는 헌종의 진영을, 고종 광무 4년에는 태조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7실을 이루었고, 영희전도 5실에다 철종 9년에 순조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6실을 이루게 되었다.

1900년에는 선원전과 이에 봉안되었던 진영이 모두 소실되어 선원전이 다시 건립되었고, 대규모의 각종 이모(移摹) 작업이 이루어졌다. 1907년에는 「제사제도칙령」에 따라 영희전 등 여러 진전의 진영을 모두 선원전에 봉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진전 및 진영은 소실되었고, 현재 경기전만이 태조진전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진전은 『국조오례의』에 길례 속제로서, 속절에 제사를 지냈다. 태조진전의 경우는 관찰사가 초헌관을 맡았는데, 유고시에는 소재 읍의 장관이 맡았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열성조 진전인 영희전에 왕이 2년마다 2월(仙春)에 택일하여 친히 작헌례를 행하였고, 6향 중에 한번은 친향하였다. 그래서 영희전 친향시에 초헌관은 왕이, 아헌관, 종헌관은 의정이 맡았다.

진전의 찬설은 『국조오례의』에 찬탁에 4줄, 협탁에 3줄로 제물을 진설하는데, 협탁에는 탕 3기, 병 6기, 잔 3개를 놓으며, 화통사

존(肅龍沙尊)과 향온(香醢)을 사용하였다. 『국조속오례의』에 영희전 속절의 찬실은 찬탁에 4줄, 협탁에 3줄로 제물을 놓는데, 병 6기, 소탕 2기, 면 1기, 시접 1, 차 1, 잔 3개를 놓는다.

2. 태조진전과 경기전

태조진전은 태조의 수용만을 받드는 진전으로, 국초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까지 진전을 건립하였다. 서울에는 문소전과 선원전에, 지방에는 영흥에 준원전, 평양에 영송전, 개성에 목청전, 경주에 집경전,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한나라 시조인 고조(高祖)의 묘(廟)를 군국(郡國)에 분립한 것과 같이, 종묘 이외에 원묘를 세워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게 하였다. 태조진전이 건립된 곳은 모두 조선을 창건한 태조와 관련된 지역이거나, 역대 왕조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그 건립의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다.

서울에 국가를 상징하는 종묘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사당, 즉 왕실가묘로서 문소전을 세워 태조를 불천지위로서 신주와 영정을 영원히 봉안하게 하였고, 기타 주요 지방에도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게 하여 조선왕조의 정치력을 상징하게 하였다.

먼저 영흥의 준원전은 태조 5년에 함길도 영흥부 순령면 흑석리에 창건되었는데, 이것은 환조의 구저(舊邸)로서 태조가 출생한 곳이었다. 동왕 7년에 태조 진영을 처음으로 준원전에 봉안하였다.

경주의 집경전은 태조 7년에 태조 진영을 봉안하였는데, 세종 24년에 ‘집경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졌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자 고려의 동경이었는데, 경주에는 역대시조묘로서 신라의 혁거세묘가 중사에 편입되어 있다.

평양의 영송전은 평양부 성내 장락궁터에 건립되었는데, 처음에

‘평양어용전’, ‘태조진전’으로 불리다가, 세종 24년에 ‘영송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졌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자, 고려의 서경이었는데, 단군묘, 기자묘, 고구려 시조묘가 중사에 편입되어 있다.

개성의 목청전은 태종 18년에 개성부 송인문 안에 있는 태조 잠저(潛邸)시의 구택지에 건립되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고려 태조묘(송의전)도 중사에 편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경기전은 전주부 성 남문 안에 태종 19년에 창건되어, 이 해에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였고, 세종 24년에 ‘경기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졌다. 전주는 조선왕실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수도로서, 조경단, 조경묘와 함께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태조진전에는 전관(典官)으로 참봉(參奉) 2원을 두었으며,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제사를 지냈다.

II. 경기전 제례의 변화와 특징

1. 경기전 제례의 역사

경기전의 제향은 열성조의 진전인 선원전과 영희궁, 태조 진전인 영흥의 준원전과 같이 행례되었다. 그래서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향과 이·환안 시에 지내는 작헌례(酌獻禮),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朔望) 분향례 등이 있었다.

속절, 즉 정조(正朝; 설),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향은 절향(節享) 또는 절사(節祀)라고 하는데, 정기적인 행사로서 삼헌(三獻) 및 음복례(飲福禮)까

지 모든 제례 절차를 행하였다.

반면에 작헌례는 어진의 이안, 또는 환안 때 지내는 일종의 고유 제(告由祭)로서, 속절에 지내는 제향과 달리 일헌(一獻)에 음복례가 없는 간단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분향례는 제물의 진설 없이 간단하게 분향 및 봉심을 겸하는 의식이었다.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이 되면서 “태묘(太廟)의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다 천자(天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등의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라.”¹⁾ 는 전교(傳敎)에 의해 천자(天子)의 예(禮)에 맞게 경기전의 기물과 의장 등도 바꾸어 제향을 지냈다.

그러나 1908년에 제정한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경기전에는 1년에 두 번, 청명과 추석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²⁾ 이에 1932년의 『현행제사』 및 1937년의 이왕직 예식과에서 정한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에 의하면 ‘준원전청명추석제향홀기 경기전동(濬源殿清明秋夕祭享笏記慶基殿同)’이라 하여 경기전에서도 준원전에 준하여 청명과 추석에 제향을 지내도록 정해졌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는 동지에 한번 제향을 지냈고, 1978년부터는 동지 날씨가 추워서 음력 9월 9일(중양일, 중구일)로 바꾸어 중양절사를 지냈다. 2002년에는 ‘중양대제’로 개칭하였고, 2003년부터는 황제가 친히 행하는 제향 절차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제향을 지내고 있다.

1)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20일(양력).

2) 『純宗實錄』 권2, 순종 원년/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23일(양력).

2. 경기전의 제례 절차와 공간 활용

① 『국조오례의』 진전 제향

경기전 제향은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에 따라 진행되었다. 진전 제향은 종묘 제향과 달리 속제(俗祭)로 분류되어 있지만, 왕이 직접 행차하거나 관리 등이 파견되어 행해졌다. 그래서 진설의 내용이 국가제사와 다르기는 하지만, 행례 절차는 국가제사에 준하여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절(俗節：名日；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행하는 진전 제향은 제향일 축시(丑時) 1각(一刻)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전사(殿司)가 문을 열고 휘장을 걷으며, 제기에 제물을 담아 제사 준비를 한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할 찬자와 알자가 먼저 들어와 4배를 하고 제자리에 서며, 1각이 되어 제향관이 입장하여 먼저 4배를 하면, 헌관이 입장하여 제자리에 나아가 4배를 하는 것으로 제향이 시작된다. 이어 진찬(進饌)과 같은 의미로, 진선(進膳)을 한다. 아마도 이때 미리 진설한 제기의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제물에 먼지 등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지 등으로 싸둔 복지(覆紙；福紙) 등을 벗기는 것으로 진선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초헌례를 행한다. 즉 초헌관이 준소에서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는 감잔(監盞)을 한 이후에 신위전에 나와 향을 세 번 올리는 삼상향(三上香)을 하고,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이다. 이어 대축이 신위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축문을 읽고, 이것이 끝나면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俯伏興平身) 제자

리로 내려간다. 아헌례와 종헌례도 초헌례와 같은데, 다만 삼상향과 독축은 하지 않는다.

삼헌이 끝나면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초헌관이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술을 조금 마신 후 제자리로 내려가면 초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4배를 한다. 이어 잠시 후에 다시 헌관이 사신(辭神)의 의미로 4배를 하고 나가면, 전사관 등이 차례로 4배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며(撤饌), 문을 닫고(闔戶) 나간다. 이후에 대축이 축분을 땅에 묻는데(瘞坎), 이때 땅예를 헌관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향이 끝난 이후에 대축이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의 숙절 제향이 종묘 제향 등 국가제사와 다른 점은 신관례(晨禋禮)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즉 신을 맞이하는 강신(降神)과 전폐(奠幣) 절차가 없고, 신이 배푸는 수조(受胙)의 절차도 없다. 이러한 연유는 경기전이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진전이고, 진전은 처음에 불교의 영향으로 건립된 속제(俗祭)의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를 근거로 하여 제관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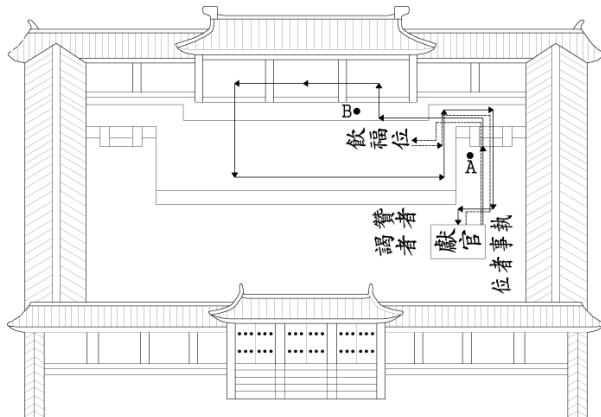


그림 1. 『국조오례의』진전의 제례 동선도

먼저 헌관위는 위 그림과 같이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음복위를 당상(堂上) 앞 기둥 바깥 근처의 동쪽에 서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집사자위는 헌관의 뒤쪽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찬자와 알자위는 동쪽 계단 서쪽에 서향으로 하였다. 그러나 행례상에 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하는 반면에 찬자와 알자, 그리고 집사자는 계단 사이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4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신위전에 나아가기 전의 준소상(B)은 헌관이 서향하여 술 따른 것을 지켜보며, 준소상의 남북에 집준자(執樽者)와 잔을 드는 집사자가 마주보고 서서 술을 잔에 따르기 때문에 정전 동문 밖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위전의 제사상에 이르러서는 헌관이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향을 받는 집사자와 술잔을 받는 집사자가 동편에 서향하고, 향로를 올리는 집사자와 술잔을 올리는 집사자는 서편에서 동향하여 선다. 반면에 음복위에서는 준소상과 마찬가지로 헌관은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음복례를 행하고, 음복 잔을 가져오는 대축은 북향하여 술잔을 헌관에게 전해준다.

이러한 행례 동선을 보면, 헌관은 물론 제집사가 정전에 오르내리는 계단은 모두 동쪽 계단이다. 그래서 망예위(望瘞位)를 제외하고 모든 행례의 위치 및 기물은 대부분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헌관 및 제집사의 위치가 모두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계단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관세위(△)가, 정전 동문 앞에는 준소상(B) 및 음복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에는 정전 출입에 구체적으로 동문과 서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전 중앙의 신위를 중심으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되, 문 밖에서는 모두 동쪽 계단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경기전의』 대향의

『경기전의(慶基殿儀)』대향의(大享儀)는 크게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 내용도 따르고 있다. 영조(英祖)대 『국조속오례의』에 이어 대한제국기 『대한예전』도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의식을 추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열성조의 진전인 영희전(永禧殿)의 6번의 제향에 한번은 왕이 친히 행하는 의례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그전의 진전도 이 제향 의식에 따라 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도 경기전의 사향(祀享)시일(時日) 및 의절(儀節)은 영희전과 같다³⁾고 하였듯이, 그 의례 내용이 모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진전 제향이 『국조오례의』의 제향과는 크게 다를 것은 없으나, 다만 왕이 직접 행하는 제사(親祀)였기 때문에 왕에게 행사를 하도록 청하거나, 왕이 잠시 머무는 소차방이 있어서 행례상에 그에 따른 절차가 추가되어, 『경기전의』 「대향의」에도 그에 따른 일부 행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慶基殿儀』대향의(大享儀)

[『국조오례의』에 있다. 고유제(告由祭) 및 이·환안제도 같은데, 다만 일헌(一獻)에 음복(飮福) 절차만 없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가 먼저 정전 배위에 나아가 4배를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제집사(諸執事)는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 배위에 나아간다.

‘4배’를 창(唱)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이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제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은 알자의 안내로 제자리(판위)

3) 『增補文獻備考』 권59, 禮考 6, 影殿 慶基殿.

에 나아간다.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한다. 알자가 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유사근구청행사(有司謹具請行事)”라고 고한다.

전사(殿司)는 진선(進膳)을 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준소(樽所)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며(三上香), 이어 잔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는다.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준소(樽所)에 이르고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작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준소(樽所)에 이르고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작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음복례(飲福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음복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음복을 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하며, 예가 끝나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망예위(望塵位)에 나가, 축문 태우는 것을 지켜 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나가고, 전사관과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와 4배를 하고 차례대로 나간다. 찬자와 알자도 모두 4배를 하고 나간다.

전사는 정전 안의 제사상을 물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

이상의 내용을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와 비교해 보면, 다만 흥기처럼 행례 절차를 자세하게 적었고, 제향 내용도 구체적인

로 언급하고 있다. 즉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 망료 등으로 행례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경기전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헌관 4배 이후에 ‘청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제사처럼 왕에게 행사를 시작하도록 청하는 의식으로,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의(親享永禧殿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전의 제향은 속제이기 때문에 내부분 잔(盞)을 사용한다. 『경기전의』진설도에는 3기의 은잔(銀盞)이 표기되어 있지만, 홀기 내용에는 헌작(獻爵)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의(親享永禧殿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친향영희전의의」진설도에도 3기의 잔이 표기되어 있지만, 행례상의 의주에는 헌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조오례의』에서는 헌관이 음복례 이후에 정전을 나가는 데, 『경기전의』에서는 망료 이후에 정전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국조오례의』에서는 음복례 이후에 제사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여겨 헌관 이하 모두 사신(辭神)의 예를 행하고 나가는 반면에,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후에 망료까지 헌관이 행하기 때문에 전사관 이하 사신의 예는 망료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망예의 경우도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에서는 단지 축문을 감(坎)에 묻었던 것인데, 이 절차도 모든 의식이 끝난 이후에 행해졌다. 그러나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이후의 절차로 ‘가료(加燎)’라고 하여 축문을 태우는 망료(望燎)를 행하였으며, 이 의식이 끝난 이후에 헌관 이하 정전을 나가고, 이어 제상을 불리고 분을 달고 나간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전의」 「대향의」에 있어서 제관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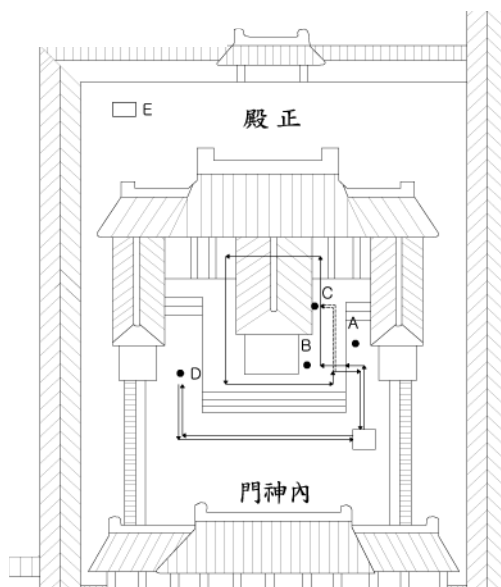


그림2. 『경기전의』 경기전의 제례동선도

『경기전의』에는 헌관위 및 음복위, 집사자위, 찬자와 알자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행례 내용과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먼저 초헌관이 관세위에 와서 손을 씻고, 이어 동쪽 계단을 통해 준소에 나아가 서향한 것으로 볼 때, 관세위(A)는 동쪽 계단 아래에, 준소(B)는 동쪽 계단 위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때에는 정자각이 정전 앞에 있고, 정자각 좌우로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쪽 계단을 통해 정자각을 오르내렸을 것이다.⁴⁾

4) 『國朝五禮儀』에는 “제집사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온다.”고 하였는데, 『國朝續五禮儀』에는 “헌관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오며, 나머지는 모두 서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大韓禮典』에는 『國朝續五禮儀』와 같은 내용임에도 이러한 조항이 빠져 있다.

반면에 망료에는 예감(B)⁵⁾이 뒤뜰 서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망료위(D)는 정자각 서편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또한 『경기전의』에는 현관과 제집사가 어느 방향에서 4배를 하는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처럼 현관은 서향하여 4배를, 찬자와 알자 그리고 집사자는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4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준소상이나 제상, 음복위의 경우에 제관의 위치 및 방향도 『국조오례의』와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행례 동선의 경우는 정전 앞에 정자각이 나와 있고, 준소상은 동쪽 계단 위 정자각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자각 동쪽 계단을 주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좀 더 정방형의 형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 현행의 중앙대제의 동선을 보더라도 주로 정자각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고, 정전의 경우도 정전 중앙의 신위를 중심으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동쪽 계단으로 내려오기 위해 정자각의 기둥을 돌아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경기전의』 「대향의」 동선도 주로 정자각 동쪽 계단 및 정전의 동문과 서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현행 중앙대제

경기전의 속절 제향은 1908년에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1년에 2번, 청명과 추석에 지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이왕직 예식과에서 정한 1932년의 『현행제사』 및 1937년의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를 보면, 경기전은 준원전에 준하여 제향 홀기 및 진설도가 정해졌다. 이러한 진설도 및 홀기의 내용은 종전의 『국조오례의』나

5) 『慶基殿儀』殿宇儀에는 ‘望塵石函’으로 되어 있고, 『肇慶廟慶基殿圖形』에는 ‘燒祝石’으로 되어 있다.

‘경기전의’와 달리, 진설 및 행례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현행의 중앙대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먼저 1937년에 이왕직(李王職) 예식과에서 정한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의 ‘청명추석제향홀기(淸明秋夕祭享笏記)’를 살펴 보면서 현행의 중앙대제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의 ‘청명추석제향홀기(淸明秋夕祭享笏記)’ 행례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집사(諸執事)는 정전 배위에 나아가 복향하여 선다.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끝나면 각자의 자리에 나아간다.

전사(殿司)는 정전에 올라 휘장을 만다. 헌관(獻官)은 알자의 인도 하에 배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정시에 이르면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전사는 진선(進膳)을 한다.

작헌례(酌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끝나면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술을 따른다(酌酒). 이어 향안(香案)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세 번 향을 올리고, 잔을 집어 잔을 바친다. 대축(大祝)은 뚜껑을 열고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도록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렸다가 무릎을 꿇는다. 대축은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다.

維某年歲次
孝玄孫 諱
謹遣
敢昭告于
太祖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
伏以節序易流當茲令辰采增感慕聊薦明禋謹以清酌
庶羞式陳明薦尙
饗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서문으로 나오며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술을 따른다(酌酒). 이어 향안(香案)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잔을 집어 잔을 바친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렸다가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서문으로 나오며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술을 따른다(酌酒). 이어 향안(香案)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잔을 집어 잔을 바친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렸다가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서문으로 나오며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음복례(飲福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음복위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대축은 준소에 나아가 복주(福酒)를 따르고, 음복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전한다. 헌관은 잔을 받는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되돌려 놓으면,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대축이 젓가락을 내리고 뚜껑을 덮으면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망료(望燎)를 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간다. 축문을 태우라고 하면 대축은 축문을 들어 요소(燎所)에서 태운다.

예가 끝나면(禮畢),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나가고,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와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펴고 나간다.

전사는 정전에 올라가 휘장을 내리며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고 이내 물러난다.

이 홀기 내용은 앞의 『경기전의』 내용과 비교해서, 진설도(준원전 경기 전청명추석제급작헌례)에 수라(水刺)와 차(茶)가 놓이며, 이

에 따라 행례 절차 가운데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철저합개(撤箸闔蓋)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종묘 제향과 달리 희생이나 날 음식 등이 진설되지 않으면서, 일반 집안 제사와는 제물이 다른 진설 내용에서, 능 제향과 같이 속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전 신위전의 휘장은 『국조오례의』 및 『대한예전』 등에서는 행사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 홀기에서는 제집사가 4배를 하고 제자리로 나아간 후, 헌관이 제자리로 들어오기 전에 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전의』 진설도 및 홀기 및 진설도에는 모두 잔으로 표기되어 있어, 여전히 잔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홀기진설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1932년의 『현행제사』에 종헌례 때 행하는 진다(進茶) 절차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진다 내용은 『현행제사』에만 있는 내용으로, 차가 진설되면서 행한 절차로 여겨지지만, 이에 이르러 삭제되었다.

이러한 『홀기진설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행 경기전의 중앙대제도 행해지고 있다. 2002년의 홀기를 보면, 산릉 기신제와 같이 면, 수라, 시접 등이 진설되며, 잔 대신에 작은 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철저합개(撤箸闔蓋)의 행례 내용 가운데 순가락에 대한 행례를 더 추가하였다. 『홀기진설도』에도 수라가 진설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행례가 없다. 하지만 2002년 홀기에는 초헌례 시 수라기에 순가락을 꽂고(挿匙), 음복례 후에 순가락을 물리는 예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후 헌관이 4배를 하고, 이어 사신(辭神)의 의미로 잠시 동안 머문 후에 다시 헌관이 4배를 하거나, ‘예필’이라 하여 예가 끝난 것으로 헌관이 4배를 하는 것에 반해, 중앙대제에서는 『홀기진설도』의 내용을 따라 사신의 의미로 순가락과 젓가락을 물리고, 뚜껑을 덮은 후에 헌관

및 참반원이 4배를 하고 있다.

또한 『홀기진설도』에서는 신위전의 휘장을 헌관이 판위에 나오기 전에 하고 있는데, 중앙대제에서는 헌관과 참반원이 제자리에 나온 후에 정전의 문을 열고 휘장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홀기진설도』에서는 망료례가 끝나 헌관 및 제집사가 나간 후에 신위전의 휘장을 내리고, 제사상의 음식도 물리며 퇴장을 하는데, 중앙대제에서는 망료례가 끝나 헌관에게 예필을 고하면 바로 신위전의 휘장을 거두고 문을 닫는다. 이에 제집사 및 집례, 찬의는 문을 닫은 채 4배를 하고, 나중에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홀기진설도』에서는 잔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앙대제에서는 작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경기전의』 「대향의」 및 「대한예전」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대한제국기의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제기를 바꾸면서 잔 대신에 작을 사용하거나, 현행 능 제향과 같이 제기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02년의 홀기 내용도 2003년부터 황제가 직접 행하는 홀기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 초헌관의 제복이 황제가 입는 12장복 및 12류의 먼류관으로 바뀌었고, 행례 내용도 그에 준하게 일부 개정되었다.

2003년부터는 먼저 찬의(贊儀)가 헌관을 인도하는 것에서, 초헌관은 찬례(贊禮)가 안내하며, 이하 아헌관, 종헌관은 찬의가 인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위전의 휘장을 거두는 것도, 종전의 헌관 및 참반원이 제자리에 나아간 후에 문을 열고 휘장을 거두는 것에서, 2003년부터는 아헌관과 참반원이 모두 제자리에 나아간 후, 초헌관이 판위에 나아가기 전에 행하고 있다. 또한 찬례가 초헌관에게 나아가 행사를 청하면, 초헌관이 먼저 4배를 하고, 이어 아헌관, 참반원 순으로 4배를 하며, 초헌례가 끝난 후에 초헌관이 잠시 머물도록 한 소차방도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행례의 변화는 모

두 황제의 친행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외에 종헌례가 끝난 이후에 초헌관이 다시 관위에 나와 헌작 후의 배례의 의미로 4배를 하고, 아헌관과 종헌관도 차례로 4배를 한다. 그래서 음복례 후에 강복위하여 4배를 하지 않고, 바로 사신의 의미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물리며 수라기 뚜껑을 덮은 후에 차례로 4배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예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여겨 신위전의 휘장을 내린 이후에 망료례를 행하고 있다.

현행 『중양대제』 홀기에 나와 있는 「제관위치도」를 보면, 대략의 제관 위치 및 동선을 알 수 있다. 헌관의 위치를 보면, 초헌관의 소차방은 동익랑에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동월랑에서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초헌관은 관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4배를 하고(하지만 2006년에는 서향으로 4배를 하였다.), 아헌관과 종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한다. 반면에 제집사와 참반원은 북향하여 4배를 한다.

홀기에는 먼저 초헌관이 관세위에 와서 손을 씻고, 이어 동쪽 계단을 통해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였다가 신위전에 나아가며, 헌작이 끝나면 서문을 통해 나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에 정자각의 동쪽 계단을 통해 올라와 정자각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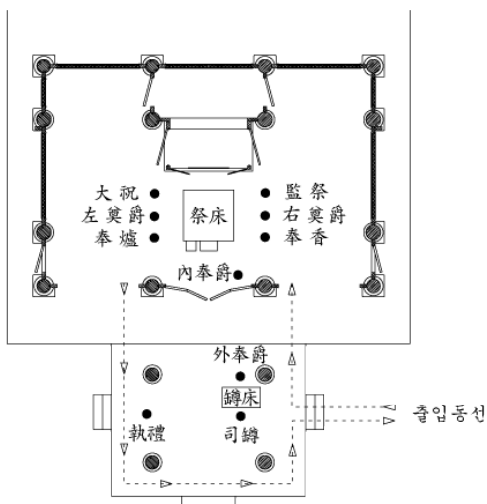


그림 3. 『중양대제』 정전과 정자각 내부의 제관 위치도

한 준소 앞에 서향하여 서며, 다시 동문을 통해 신위전에 들어가는 데, 이 때 작(爵)은 집사자를 통해 신문으로 들어간다. 독축 후에 헌관은 다시 서문을 통해 나오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정자각 기둥을 돌아 다시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소차방으로 간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는데, 다만 소차방으로 가지 않고, 동월당의 제자리로 돌아온다.

음복례의 경우도 초헌관은 소차방에서 출발하여 다시 정자각의 동쪽 계단을 통해 올라 정전 앞 동쪽에 위치한 음복위에 서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대축관은 준소에서 음복작을 받들어 초헌관의 왼편에서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음복작을 전한다. 음복례가 끝나면 초헌관은 다시 정자각 동쪽 계단을 통해 관위로 가서 4배를 하고, 이어 망료례를 위해 정자각 서편에 마련한 망료위에 가서 북향하여 선다. 망료례가 끝나면 다시 관위로 돌아왔다가 다시 소차방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현행의 중앙대제의 행례 동선도 『경기전의』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정방형의 형태로 동쪽 계단을 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III. 경기전 제물 진설의 변화와 특징

1.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 대향의

경기전의 제물은 처음에 경기전이 속해 있는 전라도의 53개 읍에서 분정(分定)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나 1658년(효종 9년)에 각 읍의 폐단을 우려해 임시로 전주, 나주, 광주, 남원 등 4도관(都官)이 돌아가면서 제물을 바치게 하였고, 1780년(정조 4년)부터는 전

적으로 전주부에서 제물을 담당하게 하였다.⁶⁾

경기전의 제향은 속제(俗祭)이기 때문에 제물도 종묘 제사와 다르게 진설되었다. 처음의 제물 내용은 1447년(세종 29년)에 상정되었다. 이 때 여섯 번 속절 제사(별제)의 제탁(祭卓)에는 화초가 있었는데, 첫째 줄에 중박계(巾朴桂) 4기,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5기, 셋째 줄에 다식(茶食) 5기, 넷째 줄에 실과 6기를 진설하였다. 그리고 면협탁에는 화초가 없었는데, 첫째 줄에 떡 4기, 둘째 줄에 면, 잡탕 등 5기, 셋째 줄에 잔(盞) 3개를 놓았다.⁷⁾

이것은 『국조오례의』에 속제의 진설로 정해졌는데, 「문소전 의묘 사시속절진설도(文昭殿懿廟四時俗節陳設圖)」를 보면, 왕의 기신(忌辰) 및 진전의 속절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병 6기, 탕 6기인데, 진전에는 병 6기, 탕 3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탕은 3기는 각색 탕선(湯膳)으로 육선(肉膳)을 겸하되 정해진 수도 없다고 하였다. 문소전의 경우 처음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소탕(素湯) 위주였는데, 이에 육선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향온을 담은 사준은 문 밖의 좌측에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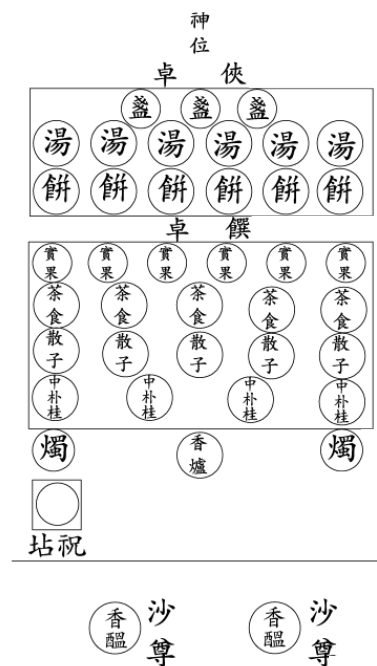


그림 4. 문소전 사시속절 진설도(『국조오례의』)

6) 『宗廟修收膳錄』권3, 庚午(1780년) 2월 6일.

7) 『世宗實錄』권118, 세종 29년 11월 2일(신묘).

는데, 이에 만루대(萬鏤臺) 잔 3개를 준소에 함께 놓는다고 하였다. 세종대에 비해 찬탁의 제물과 같으나, 면협탁의 경우에는 떡이 4기에서 6기로 늘었고, 면, 잡탕 등 5기에서 탕 3기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제물의 진설은 영희전의 속절 진설도에서 약간 변화되었다. 즉 『국조오례의』의 탕기 3기에서 『국조속오례의』에서는 2기의 탕기 이외에 면기, 다기, 시접 등이 진설되었다. 이 때 2기의 탕기는 소탕(素湯)이다. 이러한 제물의 진설은 『경기전의』에서 2기의 탕기와 1기의 면기로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경기전의』에서는 홍산자와 백산자의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다식도 황다식, 백다식으로 구분해 놓았다.

『경기전의』의 제물봉상식(祭物捧上式)을 보면, 제향 1일전에 제물을 만든 후에 가자(架子)에 실어 서익랑 홍장(紅穢) 안에 보관하며, 전내에 2개의 탁자를 설치하여 상건(床巾) 및 좌면지(坐面紙)를 깔고, 좌우로 각각 촛대상을 설치한다. 그리고 제향일 삼경(三更; 23시-01시) 오점(五點)에 서익랑 홍장 앞에 나아가 봉한 것을 열고, 사경(四更; 01시-03시)에 이르면 촛불을 켜고 진설을 한다고 하였다.

이 때 진설의 내용을 보면, 『국조오례의』 및 『국조속오례의』와 달리 협탁과 찬탁의 구별 없이 제1행에는 중계(中桂) 4좌(坐), 제2행에는 홍산자는 3좌, 백산자는 2좌, 등 산자(散子) 5좌(坐), 제3행에는 황다식은 3좌, 백다식은 2좌 등 다식(茶食) 5좌(坐)를 놓았다.

제4행에는 각색 실과(實果) 6좌(坐)를 진설하였다. 이전에는 대조(大棗; 대추), 황율(黃栗; 밤), 피진자(皮榛子; 개암, 후에는 은행을 대체함), 건시(乾栝; 꽃감), 피비자(皮榧子; 비자), 피백자(皮栢子; 잣)를 놓았는데, 신정식(新定式)에는 백자(栢子; 잣), 협백자(挾栢子; 이전의 皮栢子), 비자(榧子), 진자(榛子; 개암), 대조(大棗; 대추), 황율(黃栗; 밤)을 놓았다. 이전에는 껍질인 채로 놓

았는데, 신정식에서는 모두 껍질을 벗기고 진설하였으며, 건시 대신에 백자(栢子)를 놓았다.

제5행에는 절병(切餅), 유병(油餅), 자박(自朴), 두단자(豆丹子), 당고(唐餠), 쌍화(雙花) 등 각색 병(餅) 6좌(坐)를, 제6행에는 면(麵) 1기(器), 포탕(泡湯) 2기(器), 제7행에는 은배(銀杯) 3좌(坐)⁸⁾를 놓았다.



그림 5. 영희전 진설도(『국조속오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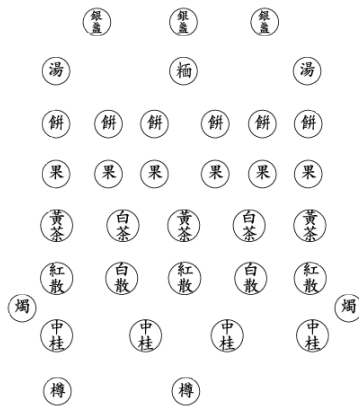


그림 6. 진설도(『경기전의』)

2. 현행 중앙대제

경기전의 속절 제향이 1908년에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1년에 2번, 청명과 추석에 지내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제물 내용도 개정되었다. 1908년의 『제물등록』에 경기전의 청명과 추석제의 제물과 고

8) 『慶基殿儀』祭物捧上式.

유제 때의 제물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밀과(蜜果)는 14기(器)로, 중박계(中朴桂) 4기, 백산자(白散子) 3기, 홍산자(紅散子) 2기, 전다식(煎茶食) 3기, 백다식(白茶食) 2기인데, 『경기전의』의 제1행, 제2행, 제3행의 내용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실과(實果)는 6기로, 황율(黃栗 ; 밤), 대조(大棘 ; 대추), 실백자(實栢子 ; 잣)⁹⁾, 실흔도(實胡桃 ; 호도), 실비자(實榰子 ; 비자), 건시(乾栝 ; 꾀감)인데, 건시의 경우 예전에는 백자(栢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경기전의」의 신정식(新定式) 내용과 같이 꾀질을 간 건과(乾果)를 진설하였는데, 이에 제외되었던 건시가 다시 포함되어 있다. 떡은 6기로, 자박(煮白), 경단(敬團)¹⁰⁾, 상화(霜花), 절병(切餅), 당고(唐飴), 유병(油餅)이다. 이것도 『경기전의』의 제4행과 제5행과 내용은 같으나,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다.

또한 이때에 제주(祭酒)도 향온(香醢)에서 청주(淸酒)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6행에는 세면(細麵 ; 국수) 1기, 탕(湯) 2기를 진설하는데, 『경기전의』의 포탕(泡湯) 대신에 전증(煎蒸)과 백증(白蒸)으로 구분해 놓았다.¹¹⁾

이러한 경기전의 제물의 진설은 1932년 『현행제사』 및 1937년의 『홀기진설도』에 와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경기전의』에는 총 7행으로 제물을 진설하는데, 『현행제사』 및 『홀기진설도』에는 총 6행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있다.

9)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 濬源殿告由祭每殿計에는 ‘협백자(挾栢子)’으로 되어 있다.

10)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 濬源殿告由祭每殿計에는 ‘두단(豆團)’으로 되어 있다.

11)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 一位 二次祭(春秋)濬源殿 同.

圖設陳祭夕秋明清殿基慶殿源瀆



그림 7. 『현행제사』 (1932년)

『현행제사』에는 제1행에 중계(中桂) 3기를 가운데에, 그 좌우에 홍동백서(紅東白西)로 동쪽에 홍산자(紅散子) 2기를, 서쪽에 백산자(白散子) 2기를 진설하였으며, 제2행에는 서쪽으로부터 건율(乾栗; 밤), 호도, 비자, 송실(松實; 잣), 대추를 가운데에, 동쪽에 전다식(煎茶食) 2기를, 서쪽에 백다식(白茶食) 2기를 진설하였다. 이에 중계는 4기에서 3기로, 산자는 5기에서 4기로, 다식은 5기에서 4기로 줄어었다.

그리고 제3행에는 백청(白淸)을 가운데에, 동쪽에 자박병(煮朴餅), 상화병(霜花餅), 유병(油餅)을, 서쪽에는 절병(切餅), 남시병(南是餅), 유사병(油沙餅) 등 6기의 떡을 진설하였다. 제4행에는 잡탕(雜湯), 생선탕(生鮮湯), 포적(泡炙), 초강(醋薑), 생선적(生鮮炙), 백증(白蒸), 전증(煎蒸)을, 제5행에는 시점과 면(麵), 차(茶)를,

제 6행에는 잔 3개를 진설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제3행의 백청(白淸)과 제4행의 초강(醋薑)과 잡탕(雜湯), 생선탕(生鮮湯) 등의 탕과 포적(泡炙), 생선적(生鮮炙)이다. 이것은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 진설도에도 나오지 않는, 일반 집안 제사에서만 나오는 제물이다. 즉 백청은 꿀 또는 조청으로, 떡의 부속으로 놓던 것이며, 초강도 『주자가례』의 초(醋)의 진설에서 기인하여 이 역시 적과 탕 사이에 진설되어 있다. 그리고 탕도 소탕이 아닌 잡탕과 생선탕이 진설되고 있으며, 적도 처음으로 이때부터 진설되고 있다.

『홀기진설도』도 위의 『현행제사』와 같이 6행으로 놓는데, 일부 제물 내용 중에 가감이 있으며, 진설 위치가 조금 다르다. 즉 1행과

2행은 같으나, 3행은 개장(芥醬; 간장)을 중심으로 동쪽에 길경채(桔梗菜; 도라지), 청태채(靑苔菜; 파래), 추이채(椎耳菜; 표고버섯) 등 채소 3기와 서쪽에 포적(泡炙), 백증(白蒸), 전증(煎蒸) 등 3기를 진설하였으며, 제4행에는 백청과 떡 6기 이외에 잡탕을 진설하였다. 그리고 제5행에는 시접과 수라(水刺), 차(茶), 면(麵)을, 제6행에는 잔 3개를 진설하였다.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이 개장과 채소, 그리고 수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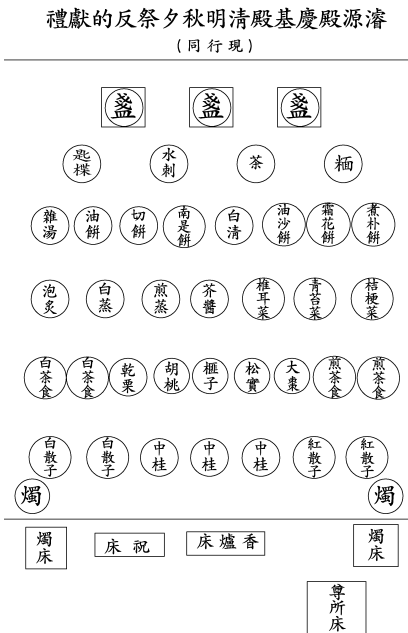


그림 8. 홀기진설도(勿記陳設圖)(1937년)

다. 개장은 일종의 간장으로, 우리나라 제사상에서만 나물 사이에 진설하던 것인데, 이 때 길경채 등 채소를 진설하면서 민간의 집안 제사와 같이 개장을 진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큰 제물의 변화는 바로 수라의 진설이다. 이러한 제물의 변화로 인하여 행례 상에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젓가락을 물리고 뚜껑을 덮는 칠저합개(撤箸闔蓋) 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때 수라에 숟가락을 꽂는 삽시(挿匙)와 칠시(撤匙)의 절차는 행해지지 않았다.

위의 진설 내용을 보면, 현행의 중앙대제는 『홀기진설도』의 진설 내용을 주로 따르고 있는데, 일부 내용만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능 제향의 진설 내용과도 같은데, 제1행에는 백산자(유과), 백다식(참쌀과 조청으로 만든 다식), 약과, 각약과(백다식을 기름에 튀긴 약과), 흑다식(검은 참깨와 조청으로 만든 다식), 홍산자(붉은 유밀과)를, 제2행에는 황율(밤), 추자(호도), 비자, 송실(잣), 대조(대추)를 진설하고 있다. 제3행에는 포적(두부적), 해태(김), 개장(간장), 길경(도라지나물)을, 제4행에는 잡탕(국)과 백청(꿀) 및 병(떡)을, 제5행에는 면(국수), 수라(밥), 시접을, 제6행에는 작 3개를 진설하고 있다.

현행 중앙대제에는 『홀기진설도』의 제1행과 제2행의 산자와 다식, 약과를 합하여 제1행으로 하되, 홍동백서의 의미로 진설하고 있다. 즉 중계 3기 대신에 약과 3기로 대체되고, 홍산자 2기는 1기로, 백산자 2기는 1기로 축소되었다. 실과의 경우는 그대로 5기이지만, 단지 호도(胡桃)만이 비슷한 추자(楸子 ; 가래)로 바뀌었으나, 현재는 호도로 대신하고 있다. 제3행에는 백증, 전증, 추이채만 빠지고, 개장을 중심으로 포적(두부적), 해태(김), 도라지나물을 놓고 있으며, 제4행에는 잡탕과 백청은 그대로 두고, 떡만 6기에서 1기로 축소하였는데, 대신에 껌 질을 깐 팔고물의 시루떡을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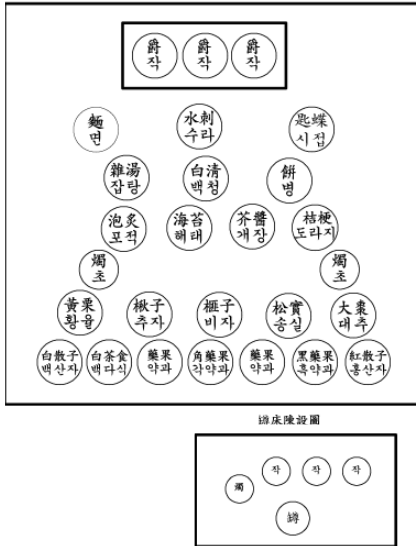


그림 9. 현행 경기전의 중앙대제진설도

한 제물 진설의 변화로 인하여 경기전의 제향도 속제에 맞추어 행례 절차도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행에는 수라를 중심으로 서편에 면을 동편에 시접을 진설하였다. 『홀기진설도』에 비해 차가 빠졌고, 면의 경우 동편에서 서쪽으로 옮겨진설하였다. 이것은 집안 제사에서 면(국수)을 서편에 진설하는 것과 같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수라와 면을 진설함에 따라 행례 절차에 숟가락을 밥에 꽂고 숟가락을 물리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러

태조의 능, 건원릉과 조선의 능침 제도

홍 석 주 | 서일대학 교수



I. 조선의 왕릉

1. 건원릉 이전에 조성된 능
2. 조선 왕릉의 위치

II. 왕릉의 주요 시설물

1. 산릉의궤의 유문도를 통해 본 배치 형태
2. 정자각
3. 채실

III. 건원릉의 현황

1. 채실
2. 홍살문과 정자각
3. 수복방과 비각
4. 석물

I. 조선의 왕릉

1. 건원릉 이전에 조성된 능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그의 선조 4대를 추존하여 왕릉으로 조성하였다. 고조부는 덕릉(德陵), 고조모는 안릉(安陵), 증조부는 지릉(智陵), 증조모는 숙릉(淑陵), 조부는 의릉(義陵), 조모는 순릉(純陵), 아버지의 능은 정릉(定陵), 어머니의 능은 화릉(和陵)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함경도에 위치한다.

그 중 지릉은 《지릉전도(智陵全圖)》를 통해 그 형태를 상세히 알 수 있어서 이후 조선의 왕릉과 비교 연구를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지릉도에 표현된 시설물들을 보면 채실과 홍살문, 정자각, 수라간, 비각 등을 두었다. 또한 봉분에 이르기까지 능을 계체석에 의해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곡장 안에 석양과 석호, 분인석, 무인석, 석마를 배치하고 봉분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며, 혼유석과 장명등을 배치하는 것 역시 조선 왕릉의 배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외계체라고 표기한 하계에 이르는 계단을 두었다는 것이 조선 왕릉과 다른 모습이며 이는 고려 왕릉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또한 태조의 원비 신의왕후는 방우, 방과(정종), 방의, 방간, 방원(태종), 방연, 경신, 경선의 6남 2녀를 낳았다. 조선 건국 전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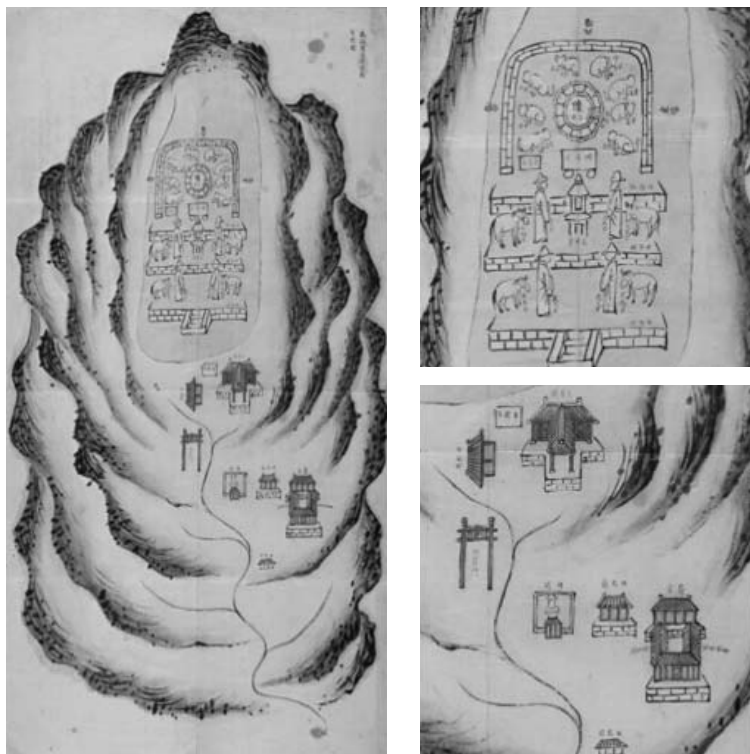


그림 1. 《지령전도》의 지릉도

망하였으나 조선 개국 후 추존되어 능호를 제릉(齊陵)이라 하였다. 제릉은 개성에 위치한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다. 정릉동이라는 지명은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貞陵)이 위치하게 된 데서 유래한다. 태조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왕비가 죽자 태조는 능을 조성한 후에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 홍천사를 세웠다. 태조가 왕위에 있을 때 조성된 당시에는 원찰을 둘 정도로 정성을 들여 조성되었던 정릉은 태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푸대접을 받았다.

태조의 원비가 조선 건국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신덕왕후가 조선의 초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릉이 도성 안에 있고 능역이 광대하다는 이유로 능역 100보 근처까지 주택지로 허가하면서 세도가들이 이곳의 나무를 베어 저택을 지었고, 광통교가 홍수로 무너지자 능의 석물 중 병풍석을 복구에 사용하였다. 또한 태종은 그의 어머니 신의왕후를 태조의 유일한 정비로 태조와 함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여 신덕왕후를 격하시켜서 종묘에 부묘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었다가 현종 때 와서야 원래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태종이 태조가 정릉에 신덕왕후와 함께 묻히도록 멀리 만무하다. 이를 아는 태조가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한양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 건원릉을 조성하였다.

2. 조선 왕릉의 위치

폐위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단종의 장릉만이 유배지였던 영월에 위치하고,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었기 때문에 왕릉은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이들 중 태조의 능인 건원릉이 위치한 동구릉에는 ①~⑨까지 9개 능이 모여져 있어서 동구릉이라 한다.

- ① 태조의 건원릉
- ② 분종과 그의 비 현덕왕후의 현릉
- ③ 선조와 그의 비 의인왕후와 계비 인목왕후의 목릉
- ④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휘릉
- ⑤ 현종과 그의 비 명성왕후의 승릉
- ⑥ 경종 비 단의왕후의 혜릉

- ⑦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원릉
- ⑧ 순조의 세자인 추존왕 문조(익종으로 추존)와 그의 비 신정왕후의 수릉
- ⑨ 헌종과 그의 비 효현왕후, 계비 효정왕후의 경릉

이들을 보면, 같은 동구릉에 있지만 건원릉과 현릉은 조선 전기에 조성되었고, 그 외의 능은 선조 이후에 조성되어, 항상 선왕의 곁에 왕릉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릉의 배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선 왕릉의 위치

건물명칭		왕릉	형식	소재지	비고
태조	원비 신의왕후	제릉(齊陵)	단릉	개성시 관문군 상도리	북한 소재
	태조	건원릉(健元陵)	단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계비 신덕왕후	정릉(貞陵)	단릉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정릉
정종	정종	후릉(厚陵)	쌍릉	개성시 관문군 영정리	북한 소재
	정안왕후				
태종	태종	헌릉(獻陵)	쌍릉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
	원경왕후				
세종	세종	영릉(英陵)	합장 (예종1년천장)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영녕릉
	소헌왕후				
문종	문종	현릉(顯陵)	동원이강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현덕왕후				
단종	단종	장릉(莊陵)	단릉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영월 장릉
	정순왕후	사릉(思陵)	단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사릉
세조	세조	광릉(光陵)	동원이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광릉
	정희왕후				
예종	원비 장순왕후	공릉(恭陵)	단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공순영릉
	예종	창릉(昌陵)	동원이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
	계비 안순왕후				
성종	원비 공혜왕후	순릉(順陵)	단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공순영릉
	성종	선릉(宣陵)	동원이강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선정릉
	계비 정현왕후				

건물명칭		왕릉	형식	소재지	비고
중 중	원비 단경왕후	온릉(溫陵)	단릉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온릉
	1계비 장경왕후	희릉(禧陵)	원래 동원이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중종	정릉(靖陵)	후에 천장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선정릉
	2계비 문정왕후	태릉(泰陵)	단릉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강릉
인 중	인종	효릉(孝陵)	쌍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인성왕후				
명 중	명종	강릉(康陵)	쌍릉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강릉
	인순왕후				
선 조	원비 의인왕후	목릉(穆陵)	동원이강 변형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선조				
	계비 인목왕후				
인 조	원비 인필왕후	장릉(長陵)	쌍릉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파주 장릉
	인조				
	계비 장필왕후	휘릉(徽陵)	단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효 종	효종	영릉(寧陵)	상하봉쌍릉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녕릉
	인선왕후				
현 종	현종	승릉(崇陵)	쌍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녕성왕후				
숙 종	원비 인경왕후	익릉(翼陵)	단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
	1계비 인현왕후	명릉(明陵)	쌍릉 · 동원이강		
	숙종				
	2계비 인원왕후				
경 종	원비 단의왕후	혜릉(惠陵)	단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경종	의릉(懿陵)	상하봉쌍릉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의릉
	계비 선의왕후				
영 조	원비 정성왕후	홍릉(弘陵)	단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
	영조	원릉(元陵)	쌍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계비 정순왕후				
정 조	정조	건릉(健陵)	합장	경기도 화성시 내안읍 안영리	읍전릉
	효의왕후				
순 조	순조	인릉(仁陵)	합장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현인릉
	순원왕후				
현 종	원비 효원왕후	경릉(景陵)	삼연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현종				
	계비 효경왕후				
철 종	철종	예릉(睿陵)	쌍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철인왕후				

II. 왕릉의 주요 시설물

1. 산릉의계의 유문도를 통해 본 배치 형태

능이 조성된 후에는 산릉의계를 편찬하였는데 조선 전기의 것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선조대 이후의 의계들이 현존한다. 산릉의 계에는 <유문도(惟門圖)>라는 도설이 들어가 있어서 능이 조성될 당시의 시설물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볼 수 없는 웅가, 가정자각, 길유궁 등의 시설물을 볼 수 있으며 능의 입구에만 있는 홍살문 외에도 당시에는 여러 개의 홍살문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웅가(甕家)는 능상각이라고도 하는데, 봉분 위에 세우는 한시적 시설물이다.

유문도를 보면 휘장에 둘러싸인 부분은 크게 세 개의 영역을 형성하는데, 능의 입구가 되는 커다란 홍살문이 있고 그 뒤로 수복방과 수라간이 있는 앞부분이 첫째 영역이다. 그리고 북쪽의 곡장을 둘러싸서 외곽의 경계를 짓는 뒷부분 둘째 영역이 된다. 그리고 삼문홍문이라고 표기한 문을 남쪽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에 두 칸의 홍살문과 북쪽에 한 칸 홍살문을 세워서 정자각, 가장자각, 길유궁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외곽에 둘러쳐진 휘장 안에 또 다른 영역을 구성하는 부분이 세 번째 영역이다. 동쪽 홍살문 밖에는 비각이 있다.

2. 정자각

정자각은 본전과 그 중앙에 앞으로 돌출된 배위청으로 구성되어

「J」자형의 평면의 건물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洪陵)과 순종과 원비 순명황후, 계비 순정황후의 능인 유릉(裕陵)은 조선 왕조의 능제와 달리하여 정자각이 아닌 침전을 두었고 그 외의 모든 왕릉에는 정자각을 두었다.

정자각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산릉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건물이다. 실록에 의하면, “정자각을 능 곁에 세우고 신을 인도하여 제사

하니, 이는 신은 늘 능에 계시고 정자각은 신을 제사하는 곳이라는 뜻”¹⁾이며, “이른바 능침이라고 하는 것은 능 위의 영역 안을 가리키는 것이요, 침은 정자각을 가리키는 것”²⁾으로 기록되어, 정자각은 능침이 구성에서 침에 해당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산릉이 조성되고 나면 안릉전의(安陵奠儀)라고 해서 능을 만들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때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고 술잔을 올리는 곳이 정자각이다. 또한 매해 네 차례 큰 명절과 작은 절기에는 정자각에서 제향을 올리는데 간혹 왕이 직접 정자각의 배위청에 나아가 제를 올리기도 한다.³⁾

정자각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가정자각이 건립되기도 한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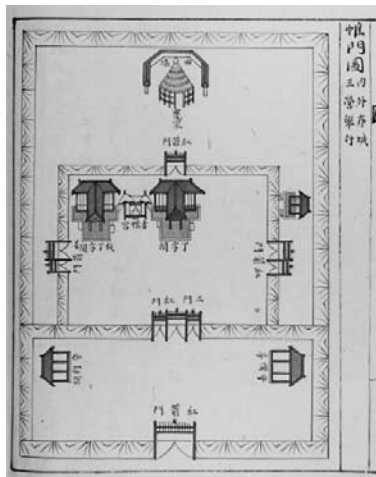


그림 2.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배치
(출전: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1) 『성종실록』, 성종8년 1월 13일.

2) 『명종실록』, 명종11년, 9월 3일.

3) 김동욱, 「조선조 산릉 정자각 연원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121쪽.

정자각의 건립 기록 성종 때부터 볼 수 있다. 성종 14년에 세조비인 정희왕후 윤씨의 능을 조성할 때 가정자각을 세웠다.

명하여 영돈녕 이상과 예조를 불러 광릉에 정자각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심희 등이 의논하기를 “3년 안에 세조대왕의 제사는 구정자각에서 행하고, 대행대비의 제사는 가정자각에서 행하며, 또 따로 중앙에 한 정자각을 지어서 3년 후에 합해서 제사하고 다른 두 정자각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⁴⁾

이 기사에 따르면 가정자각은 합제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⁵⁾, 기존의 정자각과는 별도로 가정자각을 짓고 여기서 삼년상의 상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즉, 세조의 능 옆에 정희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 가정자각을 지어 상례를 이곳에서 치르고 세조 능과 정희왕후 능 사이에 별도로 정자각을 지어 삼년상 후에는 합제를 지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과 왕비의 능을 함께 쓰더라도 이때 건축되는 가정자각은 기존에 있는 정자각으로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정자각에서 이루어졌던 의례와 새롭게 조성되는 능에 올리는 의례의 성격이 다른데 있다. 새롭게 조성된 능에 올리는 예는 상례이고 기존의 정자각에서 이루어졌던 예는 제례에 해당되며 각각의 예를 위해 입는 옷도 다르다.

4) 『성종실록』, 성종 14년 4월 26일.

5) 『국조상례보편』의 내용에도 왕후 부장의 필요에 의해 구정자각과는 별도로 가정자각을 세운다고 되어 있다.

6) 제사를 지낼 때 임금이 입는 옷은 청색 도포.

7) 부친상,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3년 동안 입는 거친고 굵은 삼베로 만든 옷. 아랫단을 깎지 않는다.

8) 『중종실록』, 중종 25년 11월 13일.

새벽, 상이 소련을 타고 선릉의 정자각에 나아가 참포⁶⁾차림으로 옛 능에 제사지내고, 막처에 들어가 최복⁷⁾으로 갈아입고 새 능에 제사지냈다. 상이 막처에 들어가 조금 쉬었다가 먼저 옛 능에 올라가 참배하고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새 능에 올라가 곡하였다.⁸⁾

이처럼 삼년상 중에는 같은 능에 위치하더라도 길례에 해당하는 제례를 올리는 의례의 성격과 흥례에 해당하는 상을 치르기 위한 의례 성격이 다르며 길흥의 예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자각은 정자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자각은 왕비의 능에서 조성되었는데 인조, 숙종, 헌종의 경우는 임금의 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자각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보다 우세한 규칙은 임금과 왕비의 능을 함께 쓸 경우, 먼저 조성된 능에는 정자각을 세우지만 후에 조성된 능에는 가정자각이 세워졌다는 점이다. 인조의 경우 의례는 없지만 1635년 인조비인 인렬왕후가 먼저 장릉에 묻히고 그 뒤에 인조의 능이 들어갔으므로 가정자각을 쓴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능에 가정자각을 세운 예가 적은 것은 원비가 먼저 죽고 임금이 후에 죽은 경우 왕비의 능과는 다른 곳에 임금의 능을 쓰고 계비가 죽으면 여기에 함께 능을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금과 왕비의 능을 함께 쓸 경우 삼년상을 마친 후에는 가정자각을 헐고 정자각에서만 제를 올리게 된다. 즉, 삼년상을 마치면 흥례를 위해 지은 가정자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므로 가정자각을 헐고 정자각에서 제를 올리게 되는데 이 정자각은 기존의 정자각을 쓰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한다. 임금의 능을 조성할 때 가정자각이 세워지는 경우, 기존의 정자각에서 행했던 왕비의 길례를 가정자각에서 하고 왕의 흥례를 정자각에서 행하였다. 이후 삼년상이 끝나고 합제할 때 가정자각은 헐리고 정자각에서 길례를 행하게 된다.

처음으로 가정자각의 건축 예가 실록에 언급된 정희왕후 능 조

성의 경우는 기존의 정자각과 가정자각 외에도 두 능 사이에 정자각을 새로 지었다. 즉, 상례를 위해 지었으나 삼년상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가정자각과 두 능 사이에 새로 지은 정자각 때문에 필요 없게 된 기존의 정자각이 모두 헐리는 경우이다. 정희왕후 능을 조성할 때 세조의 능과 중간 지점이 폭류가 부딪치는 곳에 해당하여 지세가 편안치 않으니 3년 안에는 가정자각에서 제사하고 상제를 바친 뒤에는 세조의 구정자각에서 함께 제사지내기는 것이 건의되기도 하였으나⁹⁾ 양쪽에 도랑을 만들어서 중간에 새롭게 정자각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세조비인 정희왕후 때처럼 두 능 사이에 새로운 정자각을 지은 후 가정자각과 기존의 정자각을 헐어서 기존의 정자각과 가정자각,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정자각을 두는 원칙은 조선시대 후기 동안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조10년에 있었던 인목대비의 상례가 그 예이다.

왕후릉을 정하고 대왕릉을 뒤에 정한 경우에는 정자각을 대왕릉 앞으로 옮겨 세우거나 혹은 지형을 따라서 두 능 사이를 합쳐 설치하기도 했으며, 대왕릉을 먼저 정한 경우에는 정자각을 그대로 대왕릉 앞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산등성이에서 목릉까지의 거리가 이미 서로 멀지 나이하고 장애가 없으니, 정자각을 마땅히 옛날대로 두어야 할 것 같고, 신릉의 신로를 신설하여 옛 정자각을 접속시키되 현릉과 관릉의 왕후 신로 제도와 같이하면, 옮겨 건립하는 폐단이 없고 합쳐 설치하는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¹⁰⁾

목릉에는 선조의 원비인 의인왕후와 선조의 능이 이미 조성되어

9) 『성종실록』, 성종14년 4월 27일.

10) 『인조실록』, 인조10년 7월 13일.

있었고 후에 인목왕후의 능이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그때 인목왕후의 능 앞에 가정자각을 세우고 삼년상이 끝난 후에 새로 지은 정자각에 모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자각에 모신 것이다. 이렇게 가정자각이 사용이 끝난 후에 새로 지은 정자각이 아닌 기존의 정자각에 모시는 일은 이후에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임금보다 왕비가 먼저 죽었을 경우 왕비의 능을 조성할 때 미리 임금의 능이 들어가게 될 우측을 비워두는 경우도 있는데¹¹⁾ 이 때 역시 가정자각 이후에 기존의 정자각에 모셔지게 된다.

인현왕후의 장사를 지낼 때 왕이 우측을 비워두는 제도로 하도록 명하고, 장릉을 모방해 곡장을 치우치지 않도록 쌓고 정자각도 또한 중간에 위치 하도록 하였으니, 재차 백성을 수고롭게 할 곳을 미리 근심한 것이었다.

가정자각 철거 후에 두 능 사이에 조성된 새 정자각에 합제한 경우는 정희왕후와 세조의 능인 광릉과 현재는 각각 단릉으로 되었지만 원래 동원이강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회릉(중종 1계비)과 정릉(중종)의 예¹²⁾가 실록에 언급되어 있다. 또 실록에 가정자각 철거 후에 기존의 구정자각에 합제한 경우에는 기록된 것은 선조 복릉과 인조 장릉, 숙종 명릉¹³⁾, 영조 원릉¹⁴⁾, 사도세자의 현릉원¹⁵⁾이 있다.

이처럼 기존의 능에 함께 새로운 능이 조성될 경우 가정자각이 세워지며 삼년상을 치른 후 가정자각은 헐어 없애고 두 능 사이에 새 정자각을 세우거나 기존의 정자각에서 합제하게 된다. 가정자각

11) 왕비의 능이 조성될 때 미리 임금의 능이 들어갈 곳을 비워두는 경우는 인조 때 기록에도 나온다. (『인조실록』, 인조대왕 묘지문)

12) 『중종실록』, 중종 39년 12월 23일.

13) 『영조실록』, 영조 33년 3월 26일.

14) 『순조실록』, 순조 5년 2월 16일.

15) 위의 책, 순조 17년 11월 2일.



그림 3. 가정자각도
(출전: 『정순왕후산릉도감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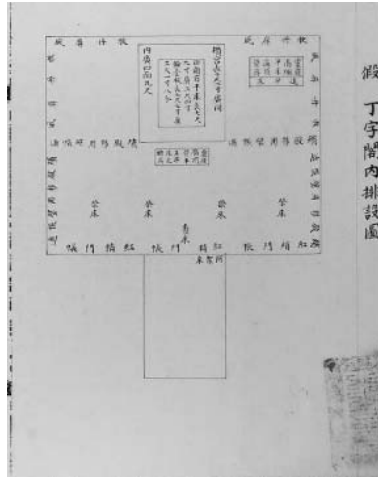


그림 4. 가정자각내배설도
(출전: 『정순왕후산릉도감의궤』)

을 철거 후, 대체로 임진왜란 이전은 두 능 사이에 새로 조성된 정자각에 모셔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존의 구정자각에 모셔지는 경우를 실록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3. 재실¹⁶⁾

유분도에 기록되지 않은 시설물 중에 재실(齋室)이 있다. 재실은 흥례가 끝난 후 산릉을 지키는 참봉이 머물고 재계하는 공간과 산릉에서 이루어지는 길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릉

16)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제실과 정제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108쪽 참조

의 재실은 참봉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여 참봉청이라고도 불린다. 행례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안향청, 집사청, 전사청, 제기고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곳이다.

- ① 안향청 : 향, 축문을 준비하는 곳, 헌관방 있음
- ② 집사청 : 행례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머무는 곳
- ③ 전사청 : 제물을 숙설하는 곳
- ④ 제기고 : 제기를 보관하는 곳
- ⑤ 부속공간 : 부엌, 방앗간, 마구간

재실이 길례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국장과 삼년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조석상식의(朝夕常食儀)’ 등 각종 의례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가재실이다. 가재실은 3년상이 지나면 철거하기 때문에 조석도 사용하지 않고, 平架(삼량, 오랑등 가구를 꾸미지 않음)로 꾸민 후, 編飛(편비 : 갈대를 엮어 만든 썩우개)나 짚을 엮어 초가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재실에는 재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존재한다. 재실에 비해 가재실에 특별히 많이 존재하는 공간은 각종 음식을 만드는 곳과 장인이 머무는 공간들이다. 이는 3년상 동안 산릉에 올려지는 饌(찬)이 길례 때 보다 훨씬 양도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 ① 안향청, 재실, 집사청 : 守陵官人接處, 侍陵官人接處, 兩參奉房, 進止內官房, 忠義房,
- ② 전사청 : 祭物熟設, 監膳廳, 供上廳, 贊禮,
- ③ 제기고 : 銀器捧上庫,
- ④ 부엌, 공수간(公須間), 방앗간 : 수라간, 洒色庫, 進上捧上庫,

飯監, 炙色, 蒸色, 飯工, 餅工, 床排色, 湯色, 麵色, 泡匠, 沙器
亭了, 別司饗房, 進上飯工, 砧家, 醬庫

⑤ 부속공간 : 兩參奉奴了, 廁間, 大門, 行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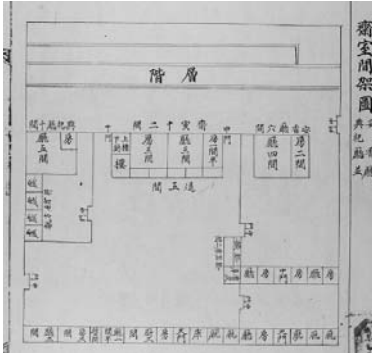


그림 5. 재실간가도
(출전 『건릉산등도감의궤』)



그림 5. 재실간가도
(출전 『건릉산등도감의궤』)

III. 건원릉의 현황

1. 재실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의 기사 11월
16일 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啓辭)十一月十六日

建元陵(원본의 일부가 소실되어 내용 확인 불가능)顯陵齋室一處同作而變
初失火無有今此新陵齋室獨爲先造於兩陵齋室舊基於禮似爲未穩不得已三
陵齋室一體造成矣但今年將盡勢難畢役姑設新陵假齋室開春卽時多集工匠
三陵齋室一處竝造於舊基宜當敢啓

건원릉...현릉 재실 한 곳을 똑같이 만들지만 지금까지 없던 실화의 변을 처음 당해서 양 능¹⁷⁾의 재실 옛터에 먼저 조성했던 신릉¹⁸⁾의 재실 혼자 있으므로 예를 이어나가기 미온하니 부득이 삼릉¹⁹⁾의 재실 일체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신릉의 가재실을 짓고 있어서 공역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봄이 시작되는 즉시 공장들을 많이 모아 옛터에 삼릉 재실을 한 곳에 같이 짓는 것이 마땅함을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황후의 능이 동구릉에 조성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건원릉과 현릉이 들어서 있는 상태로 기존의 재실과 새로 조성되는 능의 재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원래 여러 개의 능에서 하나의 재실을 쓰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재실을 갖고 있지만 같은 장소에 두었다. 그러나 현재 건원릉 재실은 현존하지 않는다.

2. 홍살문과 정자각



그림 7. 건원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그림 8. 정자각 동계

17) 건원릉과 현릉

18) 유릉(후에 선조와 함께 합장되어 복릉으로 됨)

19) 건원릉, 현릉, 유릉

앞서 살펴본 유문도에는 능이 조성될 때 여러 개의 홍살문을 세웠던 기록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상례가 끝나고 나면 휘장이 거둬지고 안쪽 휘장에 설치하였던 홍살문은 철거하고 가장 앞에 놓인 홍살문만 남게 된다. 현존하는 홍살문이 이것이다.

홍살문 안으로 들어서면 정자각까지 이어지는 참도가 나타나는데 높이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의 약간 높은 길이 능의 주인인 혼령이 다니는 신도이며 오른쪽의 낮은 길이 임금님이 다니는 어도이다.



그림 9. 건원릉정자각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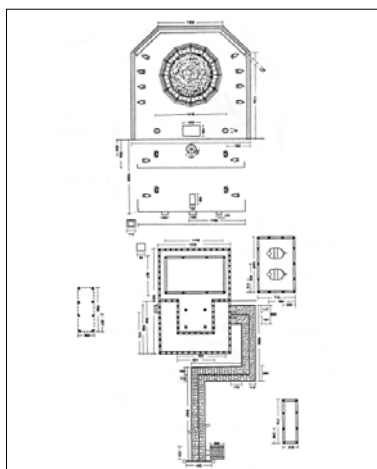


그림 10. 건원릉 배치도

정자각의 월대 오른쪽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고 왼쪽에는 한 개의 계단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계단은 모양이 서로 다른데, 앞쪽에는 태극을 조각한 소맷돌을 댄 계단이 혼령이 오르는 계단이고 뒤에 놓인 소맷돌이 없이 소박한 형태의 계단이 임금님이 오르는 계단이다. 혼령은 신도를 따라 동쪽의 동쪽 계단을 통해 능침

에 오르고, 임금은 어도를 따라 동쪽의 계단을 통해 올라와 제사를 지낸 뒤 서쪽 계단을 통해 내려온다. 그래서 서쪽에는 임금이 내려가는 계단 하나만 있다.

정자각은 앞쪽에 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배위청과 뒤쪽에 정청으로 이루어진다. 건원릉 정자각은 정면 1칸 측면 2칸의 배위청과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수복방과 비각

수복방은 왕릉을 관리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내던 곳이다. 유문도에는 홍살문 안으로 들어서면 정자각보다 앞쪽에 수복방과 수라간이 대칭되게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건원릉에 수라간은 없어지고 수복방만 있다. 수복방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건원릉의 정자각의 동쪽에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비각이 있다. 비각 안에는 태조의 신도비와 ‘대한태조고황제건원릉’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 왕릉에 신도비를 두는 것은 조선전기의 특징이다.



그림 11. 건원릉의 수복방



그림 12. 건원릉의 비각

4. 석물

능은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홍살문부터 정자각까지의 공간과 그 뒤로 인공 구릉을 쌓고 봉분을 조성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사초지 위로는 계체적으로 경계를 지은 상계, 중계, 하계의 영역이 나타난다. 하계에는 무인석과 이에 딸린 석마가 짝을 이루어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한 단 높은 중계에는 문인석과 석마가 짝을 이루어 양쪽에 위치하며 가운데에는 장명등이 있다. 가장 높은 상계에는 곡장이 둘러쳐져 봉분을 감싸고 있다. 봉분 앞으로 혼유석이 놓이고 주변을 석양과 석호가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 상계가 시작되는 부분 양쪽으로는 망주석이 있다.



그림 13. 건원릉 봉분



그림 14. 병풍석 세부



그림 15. 석양



그림 16. 석호



그림 17. 망주석



그림 18. 문인석



그림 19. 무인석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朝鮮王朝實錄』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선조34년(1601)
『顯隆園園所都監儀軌』, 정조13년(1789)
『健陵山陵都監儀軌』, 순조즉위(1800)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 순조5(1805)
『健陵遷奉山陵都監儀軌』, 순조21년(1821)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고종즉위(1863)
『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儀軌』, 고종15년(1878)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 궁중문화』, 돌베개, 2002.

은광준, 『태조고황제건원릉』, 백산, 2007.

이호일, 『조선의 왕릉』, 가람기획, 2004.

이정근, 『신들의 정원, 조선왕릉』, 책으로 보는 세상, 2010.

문화재청, 『조선왕릉답사수첩』, 미술문화, 2006.

우희중, 『조선후기 왕릉재실 공간구성의 변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9.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석인석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최윤희, 『조선시대 능원 정자각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1.

김동욱, 『조선조 산릉 정자각 연원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문집, 2008.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재실과 정재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홍석주, 『산릉의례의 건축적 의미에 대한 영건의례와의 비교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7.

조선시대의 종묘제례

한 형 주 | 경희대학교 교수



I. 종묘제례의 개요

1. 종묘제례란 무엇인가
2. 종묘제례의 역사

II. 종묘제의 원리 및 제례의 대상

1. 종묘 '불천위'의 선정 및 부모의 과정
2. 종묘에 봉안된 신주들

III. 종묘대제의 의식 절차

I. 종묘제례의 개요

1. 종묘제례¹⁾란 무엇인가

종묘(宗廟)는 조선시대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왕조의 신전(사당)을 말한다. 유교의 생사관(生死觀)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魂)과 육체(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하늘로 흩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후손은 죽은 육체를 묻은 곳에 묘(墓)를 세우고, 혼이 머물도록 묘(廟)를 세워 추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묘(墓)와 묘(廟)의 건립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그 규모와 모시는 시간은 후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종묘는 혼(魂)을 모시는 묘(廟) 즉 사당의 일종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시는 대상이 국가 또는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왕(황제)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종묘는 정묘(正廟)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현재의

1) 『국조오례의』서례에서는 하늘에 대한 제사는 '사(祀)', 땅에 대한 제사는 '제(祭)', 사람에게 대한 제사는 '향(享)', 문선왕에 대한 제사는 '석전(釋奠)'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묘제례는 원칙적으로 '종묘향례(宗廟享禮)'로 표기해야 하지만 현재 '향례' 보다는 '제례'가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조선시대에도 '제례'라는 용어로 표기된 경우가 적지 않아 '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왕을 기준으로 5세대가 지나 종묘로부터 옮겨져 따로 신주들을 모신 장소인 별묘(別廟), 즉 영녕전(永寧殿)까지를 포괄하기도 한다. 이 종묘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뒤 4년 뒤인 태조 4년 한양에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운다는 유교적인 원칙하에 고려왕조와 다른 종묘가 건축되고 그 제사가 시행됨으로써 제도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후 조선왕조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사로 끊임없이 시행되었다.

종묘제례는 제사에 대한 조선시대 치자(治者)들의 유교적인 소양과 관념을 바탕으로 시행되었지만, 종묘가 갖는 상징성, 즉 국가 및 국왕의 정통성과 결부되어 중시되었다. 원래 국가제사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敬畏心)을 표현하고, 아울러 자신을 낳아준 근본인 조상에게 보답한다는 정성스런 마음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사과정에서의 경건함을 통해 군신(君臣)간의 질서가 강조되었고, 신(神)과 인간 사이의 접근을 통해 만민(萬民)간에 화합을 이루는 효용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것은 국가제사 시행의 내면에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개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종묘제사에는 여타의 국가제사와는 달리 정통론(正統論)에 입각한 왕통(王統)의 올바른 확보라는 정치적 성격이 보다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종묘(宗廟)·사직(社稷) 혹은 종사(宗社)라고 명칭하며 강조하였던 사직(社稷)보다 종묘에 대한 국왕층의 관심은 훨씬 컸다. 사직제사는 명목상으로 종묘제사와 동등 또는 우월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한 번씩 국왕이 부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왕의 관심이 적었다. 반면에 종묘제사에는 국왕이 거의 매년 참석해 성대하게 시행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조선시대에 국가를 ‘종묘·사직’으로 표현했거나, ‘국가의 대사

(大事)는 제사(祭祀)와 군사(軍事)에 있다'라고 인식한 것은 조선 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당대의 각종 기록에서 흔히 보인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건국된 직후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卽位敕書)를 반포해 국가 제반정책의 원칙을 표방했는데, 그 첫 항목이 바로 종묘(宗廟)·사직(社稷)의 건립 문제였다. 이것은 당시에 종묘제사가 얼마나 중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조선시대 전체 기간 동안 강조했던 예치주의(禮治主義)적 통치관념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2. 종묘제례의 역사

(1) 고대의 종묘

① 삼국시대

선왕에게 제사를 지내 자손들의 복을 기원하는 행위는 원시시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미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는 신단수(神檀樹)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는 원시신앙의 집결지로서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지상으로 내려온 제사의 장소(祭場)였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이자 동시에 시조(始祖)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천신과 시조신에 대한 신앙은 건국초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삼국이 각각의 시조신에 대하여 독자적인 시조묘(始祖廟)를 세워 매년 제사를 드렸고, 역시 각각의 독자적

인 천신신앙(天神信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 이하 역대 국왕들의 신주를 모시고 정례적으로 제례를 드리는 대상인 유교적인 종묘의 설립과 운영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능하였다.

고구려에서 종묘를 세웠다는 기록은 일찍부터 나온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천왕(227~248) 21년 환도성(丸都城)이 전쟁으로 파괴되자 새로 평양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²⁾ 이어 고국양왕(384~371) 8년에는 국사(國社)와 종묘를 수리했고,³⁾ 다음해 3월에는 종묘와 국사(國社)를 설립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고구려의 경우 3세기경까지는 분명히 종묘의 건립과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국측의 자료인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국왕의 출신부족인 계부루(桂婁部) 말고도 전왕족이었던 연노부(涓奴部)의 적통대인(嫡統大人)이 독자적인 종묘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 이같이 유력한 가문이 독자적인 종묘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고구려에서 종묘에 대한 인식과 그 제사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고구려에서 시행한 종묘제의 내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백제의 경우에는 종묘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 유이민 계통을 중심으로 국가가 건립되었고, 삼국 중에 중국 문화의 수입에 가장 열성적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종묘를 건립하고 운영했을 가능성은 큰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신라에서의 종묘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2대 남해왕

2) 『三國史記』卷 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1년 2월.

3) 『三國史記』卷 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8년 3월.

4) 『三國志』卷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傳.

3년(A.D.6)에 시조인 혁거세(赫居世)의 묘를 세워 4계절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기사 다음에는 22대 지증왕대에 시조가 내려와 태어난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세워 제향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⁵⁾

② 통일신라시대

『삼국사기』제사지에 의하면 36대 해공왕(765-780) 때에 이르러 비로소 5묘(五廟)를 정하였다고 한다. 이때에 모셔진 신주는 김씨 시조인 미추왕(味鄒王), 태종대왕(太宗大王), 문무대왕(文武大王), 경덕왕(景德王)과 성덕왕(聖德王)이었다. 이중 시조인 미추왕과 삼국통일에 공이 큰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세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신위인 불천위(不遷位)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보다 대략 1세기전인 신문왕 7년(687)에 처음으로 종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봉안된 신주가 태조와 진지왕(眞智王), 분흥대왕(文興大王), 태종부열왕, 분부왕의 5위였다는 기사가 나온다.⁶⁾ 이것은 7세기 후반 이미 중국의 제도와 유사한 종묘제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며, 앞의 해공왕대의 기록은 종묘제가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뜻한다. 아마도 통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과의 밀접한 교류가 시행되었고, 그들의 문물을 수용하는 가운데 당의 제도를 본받은 종묘제가 도입된 것 같다. 특히 위에서 보는 5묘제는 ‘천자(天子)는 7묘, 제후(諸侯)는 5묘’라는 『예기(禮記)』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당시 당에 조공을 보내고 책봉을 받았던 신라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묘제는 후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신라에서는 5묘제를 종묘에 5위의 신위를 모시는 과

5) 『三國史記』卷 32 雜志 1 祭祀.

6) 『三國史記』卷 8 新羅本紀 神文王 7年.

정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즉 원칙상 5묘제는 건국시조인 태조와 2소(昭)·2목(穆)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목은 현재 왕의 4대조인 고조(1소), 증조(1목), 조(2소), 부(2목)를 모시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강조하면서 태종대왕, 문무대왕을 불천위로 상정하였고, 현왕의 부와 조반을 모시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설정된 종묘제의 운영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다음대인 선덕왕 때에는 성덕왕(외조)과 개성대왕(開聖大王, 추존)이 친묘(親廟)로 종묘에 안치되었다. 38대 원성왕 때에도 흥평대왕(興平大王, 추존)과 명덕대왕(明德大王, 추존)만이 역시 친묘로 종묘에 봉안되었는데, 특히 이때는 전대(前代)의 왕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친부(親父)와 친조(親祖)를 추증하여 모신다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40대 애장왕 2년(801)에 이르러 변화하였다. 이때는 무열왕과 문무왕을 위해 따로 별묘(別廟)를 건립해 봉안하고, 종묘에는 시조와 명덕대왕(고조), 원성대왕(증조), 혜충대왕(惠忠大王; 祖), 소성대왕(昭聖大王; 父)을 모셨다. 이것은 현왕의 4대조를 모시는 종묘제 원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애장왕대 이루어진 5묘제의 내용은 이후 특별한 변동없이 신라말까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신라의 종묘제는 해공왕대 5묘제의 시행으로 본격화되었고, 애장왕대에 그 대상 신위를 조정함으로써 발전하였다. 그 제사의 실체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잘 알 수 없는데, 다만 당시 제사를 시행했던 시기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종묘의 제사는 1년에 6차례 걸쳐 시행되었는데, 정월 2일과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과 15일이었다. 이 같은 제사의 시기는 중국 및 고려시대 이후와는 자못 달랐다. 원래 종묘제사는 『예기』에 근거하여 4계절의 첫 달 즉, 1월, 4월, 7월, 10월에 제사를 시행하게 규정되어 있고, 후한(後漢) 이후 납일(臘日)이 추가되어

전체 5차례가 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종묘 제사시기가 다른 것은 비록 그 제도가 중국의 것을 도입해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의 운영은 신라 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중 5월 5일과 8월 15일의 제사는 조선시대에도 속절(俗節)의 제사로 중시되는 있는데, 그 기원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종묘제는 성종 7년(988) 12월에 처음 오묘제(五廟制)를 정하였다는 기록에서 시작된다. 이 결정에 따라 다음해 4월 태묘(太廟)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3년 후인 동와 11년 11월에 그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 후 소목(昭穆)의 위치(位次)와 체협제(諦袷祭)의 절차가 정해지고, 그 해 협제(袷祭)가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종묘제사가 시행되었다. 고려시대의 종묘제사는『예기』의 원리에 따라 사맹월(四孟月: 1·4·7·10월)에 대제가 있고, 한식(寒食)과 납일(臘日)의 제사가 추가되어 전체 6차례였고, 여기에 3년에 한 번씩 맹동(孟冬: 10월)에 협제(袷祭)를 시행하고 5년에 한 번씩 맹하(孟夏: 4월)에 체제(禘祭)를 시행하였다. 체제와 협제는 태묘(종묘) 및 별묘에 모셔있는 신주를 전부 태묘에 모셔와 시행하는 제사인데, 이를 시행하는 달에는 시향(時享)을 앞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성종대 종묘의 신주는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과 성종의 친부로 추증되었던 대종(戴宗)의 6위(位)였다. 이같이 5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여섯 개의 신위를 봉안했던 것은 ‘부모는 소목(昭穆)으로 구분하지만 형제는 소목을 같이 한다’라는 경전의 구

7) 『世宗實錄』卷 22 世宗 5年 11月 甲午「禮曹啓 謹按禮記祭統曰 祭有昭穆者 所以別父子也 春秋孔氏正義曰 父子異昭穆 兄弟昭穆同 我恭靖大王 太宗恭定大王 兩位 同爲一世」

문에 근거하여⁷⁾ 형제를 소목에서 같은 세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혜종, 정종, 광종, 대종을 1소(昭)로, 경종은 1목(穆)으로 각각 간주하였던 것이다. 목종 때에는 정종이 경종과 같이 1목으로, 현종대는 목종을 2소로 간주하였고, 덕종대는 다시 현종이 2소로 추가되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려 성종 ~ 덕종연간의 종묘배치도

시기 \ 묘실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8실	9실	비 고
성종 13년	태조	혜종 (1소)	정종 (1소)	광종 (1소)	대종 (1소)	경종 (1목)				1소1목3묘6실
목종 원년	태조	혜종 (1소)	정종 (1소)	광종 (1소)	대종 (1소)	경종 (1목)	성종 (1목)			1소1목3묘7실
현종 5년	태조	혜종 (1소)	정종 (1소)	광종 (1소)	대종 (1소)	경종 (1목)	성종 (1목)	목종 (2소)		2소1목4묘8실
덕종 2년	태조	혜종 (1소)	정종 (1소)	광종 (1소)	대종 (1소)	경종 (1목)	성종 (1목)	목종 (2소)	현종 (2목)	2소2목5묘9실

그런데 정종 2년 덕종을 부묘하는 과정에서 종묘의 소목(昭穆)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때 종묘의 9실이 신주로 전부 차 있는 상태로, 덕종을 부묘할 경우 신주의 친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 서눌(徐訥)과 황주량(黃周亮) 등은 덕종을 부묘하면 5묘가 초과하므로 1소에 해당하는 혜종 이하 대종까지의 신주를 전부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유징필(劉徵弼)은 혜종 이하는 5대의 친진(親盡)이 안 되었으니 옮기지 말고, 대신 추존된 대종을 능으로 옮기고, 덕종을 차실(次室)에 부묘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논의 끝에 추존된 대종을 본능으로 옮기고, 덕종을 9실에 봉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문종 2년에 정종을 부묘할 때는 혜종의 신주를 옮겼지만 같은 세대인 정종, 광종은 옮기지 않았고, 선종 2년 문종을 부묘할

때에도 정종을 옮기면서 광종은 옮기지 않았다. 이것은 선종 이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고려 초기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고, 오히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경우도 있다는(예컨대 7대 목종과 8대 현종의 경우 현종의 세대가 높다) 사실, 즉 세차(世次)와 위치(位次)의 순서가 어긋난 것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중기 이후 바뀌게 되었다. 즉 숙종대 이후 형제상속이 적어지고 대체로 태자를 통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자, 종묘의 9실을 채우기 위하여 선왕의 일부를 불천지주(不遷之主)로 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의종대에는 태조(1실), 혜종(2실), 현종(3실)을 불천위로 삼고, 문종(1소), 순종·선종·숙종(1목), 예종(2소), 인종(2목)으로 각각 설정하여 5묘 9실제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 같은 5묘 9실제는 1세대에 1위의 신주를 봉안했던 신라 이래의 전통과 다르고, 중국의 진(晉)이래의 형제간을 같은 소목(昭穆)으로 간주하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는 9묘제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의종 24년(1170) 무신난이 발생하고 이어 무신정권이 성립되면서부터 종묘제의 올바른 시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시기에는 집정 무신들의 의사에 따라 왕위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통을 상징하는 종묘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던 것이다. 이 상황은 뒤이어 치열한 대몽항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심화되어 종묘는 여러 차례 훼손되었고, 그와 관련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후 몽고 간섭기의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종묘제의 재정비를 꾀하게 되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출륙(出陸)한 후 새로운 종묘를 건설했는데, 이때의 종묘는 고려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충선왕대에는 태묘(太廟)의 5실(室) 외에 기왕에 늘어난 신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서의 협실

(夾室)을 두어 서실(西室)에 혜종과 현종을, 동실(東室)에 문종과 명종을 각각 두었다. 이것은 고려의 종묘가 형식상 5묘제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7묘(廟)의 형태를 띠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민왕 6년에 올린 이제현(李齊賢)의 상소를 통해 그 변화된 형태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때 이제현(李齊賢)은 고려가 강화도에서 출륙(出陸)한 후 종묘에 1당(堂) 5실(室)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22개의 신주를 일렬로 모셨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목(昭穆)으로 구분하여, 중실(中室)에 태조, 혜종, 정종, 광종, 대종, 안종, 현종의 6위를, 동실(東室)에 목종, 덕종, 정종, 문종, 헌종, 예종, 의종, 명종, 신종, 고종의 9위를, 서실(西室)에 경종, 성종, 순종, 선종, 숙종, 인종, 희종, 강종의 8위를 각각 두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하나의 큰 종묘의 건물을 3개의 실(室)로 나누고, 실은 다시 방(房)으로 나누자는 ‘동당이실이방(同堂異室異房)’ 제도인 것이다.⁸⁾ 여기서 건국한 이래 종묘에서 5대를 넘어진 신주를 옮겼던 조천(桃遷)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에도 역시 그것을 수정하기보다는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종묘제를 운영하도록 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고려의 종묘제는 형식상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라는 원칙을 수용한 것처럼 표방했지만 실제로 건설된 종묘는 동당이실(同堂異室)을 전제로 형제를 같은 세대로 간주하는 변형된 형태로 ‘소목제’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8) 『高麗史』卷 61 志 15 禮 3 諸陵 忠宣王 2年 및 恭愍王 6年 8月.

(3) 조선시대

조선왕조는 유교국가를 표방하며 건국하였고, 통치의 방식으로 ‘예치(禮治)’를 내세웠다. 따라서 예치의 상징으로써 종묘·사직의 건립은 우선적인 급선무였다. 태조는 즉위교서의 첫마디에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로 좌묘우사(左廟右社)가 고제인데, 고려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경문(經文)에 어긋난다’고 언급하며 이의 시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⁹⁾ 이에 따라 새로운 종묘의 건립이 모색되어 결국 태조 4년(1395) 9월에 종묘가 완성되었다.¹⁰⁾ 이때의 종묘는 동당이실(同堂異室)을 바탕으로 태실(太室)이 7칸, 협실(夾室)이 좌우 각 2칸, 공신당(功臣堂)이 5칸이었는데, 이는 고려의 태묘(太廟)를 참고해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¹¹⁾

종묘가 완성되자 건국 후 처음으로 종묘제를 거행하며, 태조의 직계 4대인 목왕(穆王: 고조), 익왕(翼王: 증조), 도왕(度王: 조), 환왕(桓王: 부)의 4위를 종묘에 안치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은 성종 11년 태묘의 건립 후 비록 대종과 같이 추존된 인물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태조 이하 역대 왕들이 부묘되는 정돈된 형태를 띤 고려시대와는 달리 추존된 4조를 봉안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태종 8년 태조가 죽자 그 신위를 종묘에 안치함으로써 5묘가 채워지게 되었다.

세종 원년 9월 정종이 죽고, 3년 뒤에 그 신주를 종묘에 안치하게 되자, 5대가 넘는 신주를 옮기기 위해 별묘(別廟)인 영녕전이 설립되었고, 여기에 목조의 신주가 옮겨졌다. 처음 설립할 때 영녕전은 송나라 태조의 고사를 본받아 추송된 태조의 4대조를 봉안하는

9) 『太祖實錄』卷 1 太祖 元年 7月 丁未.

10) 『太祖實錄』卷 8 太祖 4年 9月 庚申.

11) 『太宗實錄』卷 19 太宗 10年 5月 己卯.

장소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성종 3년에 예종의 부묘로 인하여 환조가 영녕전의 4실에 봉안될 때까지는 유효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2년에 성종이 종묘에 안치되자 이제는 태조의 추존된 선조들만이 아니라 친진(親盡 : 제사를 받는 세대가 넘은 것을 말함)된 왕들이 차례로 영녕전에 봉안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즉 연산군대에는 성종을 부묘하면서 태종은 불친위인 ‘세실(世室)’로 정해 종묘에 그대로 두고 정종만을 영녕전으로 이전하였는데, 『燕山君日記』卷 12 燕山君 2年 正月 己亥. 이후에도 이를 본받아 각 왕대에서 자신의 직계(直系)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던 신위만을 영녕전에 봉안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신주들은 병종 이후 수차례 종묘의 확장을 통해 그대로 두었다.

조선의 종묘제는 처음부터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세이실(同世異室)’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세종 4년 5월에 이르러 태종의 부묘를 논의할 때 ‘형제는 소목(昭穆)을 같이 한다’는 논의에 따라 정종과 태종을 같은 세대로 간주, 그 신위를 1묘에 봉안했던 것이다. 이것은 태종이 정종 재위시에 ‘세제(世弟)’가 아닌 ‘세자(世子)’로 책봉되었고, 정종이 사망했을 때에는 명목상 아들로써 3년상을 준수하여 부자(父子)간임을 분명히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되었다. 세종대에 마련된 ‘동세이실’제는 이후 세종, 문종, 세조, 예종 등을 종묘에 부묘할 때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묘제는 ‘5묘제’의 원칙하에 ‘동세이실’제로 운영되었는데, 연산군대에 이르러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때는 성종의 부묘로 인하여 종묘에서 5대가 넘는 정종과 태종의 신위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친진된 신위를 전부 옮긴 것이 아니라 ‘공덕(功德)이 높은 왕은 세실(世室)로 정하여 그 신주를 종묘에서 옮기지 않는다’는 유교 경전의 내용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성종을 부묘할 때 정종은 영녕전으로 옮겼지만 태종은 ‘세실’로 간주해 신주를 옮기지 않았다.

이 상황은 명종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세종·세조는 ‘세실’로서 5묘의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이후에는 현 국왕의 직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 친진된 신주를 ‘세실’로 규정해 종묘에서 조친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세실’의 논거로 제시했던 주(周)·노(魯)·한(漢)·송(宋) 등 역대의 중국에서도 공덕(功德)이 있는 특수한 제왕(帝王)의 경우에 한하여 ‘세실’로 규정한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세실’제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종묘의 증축을 이끌었다. 종묘를 9실로 한정하여 거기에 맞추어 신주를 조정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신주가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명종 원년(1546)에 이르러 처음으로 정전 4칸이 증축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에 종묘가 소실되자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를 중건하였다. 이때의 규모는 명종대와 같은 것이었다. 이후 영조 2년(1726)에 정전 4칸이 더 늘어났고, 다시 현종 2년(1836)에 다시 4칸이 늘어 총 19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영녕전의 경우에도 친진된 신주들의 증가로 그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종묘의 경우와 같이 정전의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협실만을 증축하였다. 세종 3년(1421)에 처음 영녕전을 건립할 때의 규모는 정전 4칸, 좌우 협실 1칸씩이었다. 그런데 이후의 왕들이 신위를 배치할 때 정전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안치시키고는, 나머지 친진된 왕들은 협실에 모셨으며, 이후 증가되는 신주는 협실의 증축을 통하여 해결하였던 것이다. 즉 광해

13) 『高麗史』卷 60 志 14 禮 2 太廟.

군대 영녕전을 증축할 때 정전 4칸, 협실 좌우 3칸씩으로 만든 이후
현종 8년(1667)에는 협실을 좌우 1칸씩 늘렸고, 현종대에는 다시 2
칸씩 증축, 전체 정전 4칸, 협실 좌우 각 6칸으로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고려시대의 종묘제사는 한식(寒食), 납일(臘日), 사맹월(四孟月)
의 총 6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3년에 한 번씩 협제
(禋祭)를, 5년에 한 번씩 체제(禘祭)를 시행하였다.¹³⁾

그리고 별묘의 제향은 한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종묘와 동일하
였다.¹⁴⁾ 이와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 종묘제향의 빈도는 크게 늘어났
다. 위에서 언급한 6차례는 물론이고 속절(俗節)이라 불렀던 정조,
단오, 추석, 동지의 4차례의 제사가 새로 추가되었고, 여기에 매달
초하루에 삭제를 보름날에 망제를 각각 시행하였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과일을 얻거나 짐승들을 잡으면 수시로 바쳤다.¹⁵⁾ 그
렇지만 체제는 천자의 의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협제는 태
조 4대조의 신주를 종묘에 모셔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편하다는
이유로 각각 폐지되었다. 그리고 영녕전의 경우 봄·가을의 2차례
에만 제사가 시행되었는데, 같은 날에 종묘와 영녕전을 전부 제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국왕의 친제가 아닌 섭행으
로만 운영되었다.

13) 『高麗史』卷 60 志 14 禮 2 太廟.

14) 『高麗史』卷 61 志 15 禮 3 別廟.

15) 『國朝五禮儀』序例 卷 1 吉禮 時日.

II. 종묘제의 원리 및 제례의 대상

1. 종묘 ‘불천위’의 선정 및 부모의 과정

(1) 종묘제의 원리

종묘의 제도는 원래 고대 중국인들의 원시신앙과 조상숭배의 관념이 유교적인 보편적 제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국가에서 왕실의 제사로 전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은(殷)나라에서 처음 정리되기 시작했고, 주(周)나라에 이르러 체계화되었다. 주대(周代)의 종묘제는 「의례(儀禮)」·『예기(禮記)』 등 고대의 예서에 그 형태가 나오고 있다.

주나라의 제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제사는 대상이 되는 조상의 직계(直系)의 후손이 주관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큰 아들(長子)만이 시행할 수 있었다. 직계(直系)의 장자 즉 종자손(宗子孫)이 종가(宗家)를 계승하고 그 의례적 상징으로 제사를 주관한다는 종법사상(宗法思想)은 주나라 이후 중국 사회 조직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를 시행할 때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는 상당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는데, 그 기준은 자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유교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되었다.

『예기』를 비롯한 고대의 예서에서는 제사의 범위를 ‘천자(天子)는 7묘, 제후(諸侯)는 5묘, 경대부(卿大夫)는 3묘, 사서인(士庶人)은 1묘’로 각각 규정하였다. 이것은 제례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인 차별성을 드러낸 것으로, 종자(宗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사의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범위는 경대부 이하의 사가(私家)에서는 그 적용에 큰 문제가 없지만 천자·제후의 경우 실제의 적용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주나라에서는 천자의 7묘를 7대로, 제후의 5묘를 5대로 각각 해석하였다. 예컨대 천자의 경우 건국자와 6대의 조상을 태조묘(1대)와 소묘(昭廟 : 6대조·고조·조)·목묘(穆廟 : 5대조·증조·부)로 구분하여 종묘에 봉안하였다. 만약에 현재의 천자가 죽으면 태조위는 영원히 모시는 불천위(不遷位)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6대조의 신주를 옮기고 그 자리에 죽은 천자의 신위를 모시는 것으로 조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제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경대부 이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경대부 이하에서 혈통을 기준으로 종자의 지위를 계승시키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반하여, 천자·제후의 지위는 종자에게로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천자·제후의 지위가 경대부 이하의 종자와 같이 제사권과 재산권의 상속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왕위(황위) 계승은 종자가 일찍 죽거나 종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바뀌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찬탈(篡奪)이나 가계(家系)의 이동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만약에 어느 국가가 건국된 이후 몇 대에 걸쳐 형제로 왕위가 계승될 경우 종묘에서 그 신주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는 중국 역대의 왕조에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였다.

이 문제는 한(漢)나라를 지나 남북조(南北朝)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 주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즉 진(晉)나라에서는 『예기(禮記)』와 『춘추(春秋)』에서 언급한 ‘형제간에는 소묘(昭穆)을 같이 한다’라는 대목에 근거하여 혈연상 같은 세대는 종묘의 묘(廟)를 같이 하여 1대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동세

이실(同世異室)’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진(晉)나라의 종묘는 6대 11실, 당(唐)나라의 종묘는 9대 11실, 송(宋)나라의 종묘는 9대 12실이 될 수 있었고, 고려시대의 경우 5대 9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세이실’ 제도는 사실상의 왕위를 기준으로 7대를 파악했던 주나라의 제도를 변통(變通)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 보이는 당(唐)나라와 송(宋)나라의 경우 7대가 아닌 9대가 종묘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기서 불천위(不遷位)의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불천위의 설명은 다음의 자료에 잘 나타난다.

예조가 아뢰기를, “묘제를 상세히 살펴보니,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대부는 3묘로 줄어들기를 둘씩 하는데, 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功)이 있으면, 조(祔)라 하고, 덕(德)이 있으면 종(宗)이라 하여 7묘·5묘 이외에 또 백대가 지니도 옮기지 않는 신위(百世不遷之位)가 있으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세실(世室)과 노(魯)나라의 세실옥(世室屋)이 이것입니다.”¹⁶⁾

『세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묘의 제도는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역대의 제왕(帝王)중에 특별히 공(功)과 덕(德)이 있는 경우에는 세실(世室)로 정해 영원히 종묘에 봉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보았던 당나라와 송나라의 종묘신주가 9대에 이른 것은 그 중 2대가 불천위인 ‘세실’로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라는 기본 원칙과 이를 왕위가 아닌 혈통으로 이해한 ‘동세이실’ 제, 그리고 역대 국왕 중

16) 『世祖實錄』卷 7 世祖 3年 3月 甲申「禮曹啓 詳廟制 天子七 諸侯五 大夫三 降殺以兩 不可踰制 然祖功宗德 七廟五廟之外 又有百歲不遷之位 周之文世室 魯之世室屋 是已」

특별한 공덕(功德)이 있는 경우 ‘세실’이라는 ‘불천위’로 지정한 것 등이 종묘의 묘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조선시대에는 앞의 두 가지 사항을 기본 전제로 하여 종묘가 세워졌고 운영되었는데, 세 번째의 경우 이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였고, 이는 종묘제례 뿐 아니라 종묘의 건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 ‘불천위’의 선정

조선시대 종묘제는 ‘제후는 5묘’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 국왕의 5대가 넘는 신주들은 모두 종묘에서 영녕전으로 옮겨야 했다. 이같이 종묘의 신주가 세대상으로 제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친진(親盡)’이라고 한다. 원칙상 건국자로서 영원히 종묘에 봉안되어야 할 ‘태조’를 제외한 모든 신주들은 친진이 되면 종묘에서 그 신주를 옮겨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功)과 덕(德)이 있었던 국왕의 신위는 세실(世寔)로 정해 종묘에서 신주를 옮기지 않았다.

조선왕조에서 불천위 즉 세실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처음 발생한 것은 연산군 2년(1496)이었다. 이때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신주는 태조(1대), 정종·태종(2대), 세종(3대), 문종·세조(4대), 덕종·예종(5대)으로, 전체 5묘 8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성종의 신주를 부묘할 경우 6묘가 되기 때문에 1대의 신주를 옮겨야 했다. 당연히 그 대상은 불천위인 태조를 제외하면, 2대인 정종과 태종의 신위였다. 그런데 이때의 결정은 정종은 친진(親盡)이 되었음으로 당연히 영녕전으로 옮겨야 하지만 태종은 공덕(功德)이 있기 때문에 종묘에서 그 신주를 옮길 수 없다며, 세실로 지정해 그대로 종묘에 봉안했던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불천위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신주가 친진으로 나갈 시기에 이르러서 정해져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진의 시기가 되기 훨씬 전에 미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종 6년(1424) 태종을 종묘에 봉안한 직후에 태종을 불천위로 지정했고, 문종 2년(1452)에는 태종·세종을, 성종 원년(1470)에는 태종·세종·세조를 불천위로 각각 지정하는 등 친진이 되기 이전에 불천위는 정해졌다. 이같이 불천위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옛 왕의 은택(恩澤)을 생각하고 현왕이 그 효도(孝道)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천위의 선정은 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문점을 품을 소지가 적지 않다. 현재의 종묘는 대한제국 건립 이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종묘의 묘실은 ‘천자의 7묘(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적용해 보면, 왕조의 창업자인 태조와 순조·문조·현종·철종·고종·순종의 일곱 신주는 친진(親盡)의 대상이 아닌 인물들이고, 2실의 태종 이하부터 정조까지는 불천위로 종묘에 봉안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천위중에서 선조와 인조, 현종 등은 과연 불천위의 기본 논리인 ‘공덕(功德)’이 있는 대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선조와 인조의 경우 그 재위 기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여 조선왕조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반정의 과정에서 폐위되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불천위의 지정은 물론 복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종묘나 영녕전에 그 신주가 봉안되지 못하였다. 이중 광해군은 현재 학계에서의 재평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의 업적은 불천위로 지정된 평범한 군주들보다 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왕조에서 불천위를 지정하는 명분으로 ‘공덕(功德)’을 내세웠지만, ‘공덕(功德)’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현재 종묘와 영녕전에 모셔진 신주 중에 국왕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존재들이 있고, 또 실제로 왕 노릇을 했음에도 영녕전으로 옮겨진 신주들이 있다. 전자는 대다수가 선왕과 부자(父子) 관계가 아니었던 현왕이 자기 아버지를 추증했던 경우이고, 후자는 그(죽은 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경우이다. 결국 불친위는 ‘공덕’이라는 명분하에 현왕이 그의 직계선왕들을 전부 포괄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였고, 그 나머지 신주는 친진(親盡)이라는 원칙에 따라 영녕전으로 옮긴 것이다.

(3) 신주의 종묘 부묘

선왕의 신주는 기본적으로 다음대의 왕위에 오른 사왕(嗣王)의 3년상(실제로는 27개월)이 끝난 후에 엄숙하게 시행된다. 그런데 선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은 왕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대사이고, 또 왕위를 계승하는 현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즉 사시대향(四時大享)이나 납일대향(臘日大享)과 같이 종묘에서 시행되는 가장 큰 제사의 시기에 선왕의 부묘(祔廟: 선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것)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컨대 선왕의 3년상의 상기가 2월에 끝날 경우 그 달에 바로 선왕을 종묘에 봉안한 것이 아니라 다음 종묘대제의 시기인 4월에 이르러 하향대제(夏享大祭)를 시행하면서 그 신주를 봉안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켜졌다. 다음에는 이 과정을 세종의 부묘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세종은 재위 32년만인 1450년 2월 17일에 사망하였다. 이에 다음날에 바로 빈전도감(賓殿都監)이 설치되어 상례의 제반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3일 후인 20일에 소렴(小殮)을 시행하고, 다시 이틀 후인 22일에 대렴(大殮)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6일 후인 23일에 이르러 왕세자인 문종이 정식으로 국왕으로 즉위하고, 다음날 종묘·사직에 왕의 즉위를 고하였다. 26일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선왕의 부고(訃告)를 전하고, 아울러 선왕의 행장(行狀)을 보내며, 시호(諡號)를 하사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러한 상례절차는 다음해 6월 24일 졸곡제(卒哭祭)를 거행하면서 사실상 끝나게 되고 이때부터 곡(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3개월째인 다음해 2월 17일에 연제(練祭)를 시행하고, 27개월째인 문종 2년 4월 3일에 담제(禫祭)를 시행하면 국상이 완전히 끝났다. 이러한 국상이 끝난 후에 세종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려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종묘의 신주가 익조(1묘), 도조(2묘), 환조(3묘), 태조(4묘), 정종·태종(5묘)의 5묘 6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세종의 부묘로 5대가 넘어서는 익조의 신주가 이달 9일에 영녕전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0일에 국왕의 주도하에 종묘에서 하향대제를 시행하며 세종의 신주를 종묘의 7실에 봉안하였다.

2. 종묘에 봉안된 신주들

종묘에는 정전(正殿)에 태조 및 태조비를 비롯해 총 19실에 47명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고, 영녕전에는 총 16실에 34명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여기에 정전 및 영녕전에 모셔진 역대 왕들의 배향공신(配享功臣)이 정전의 신주에 81명, 영녕전의 신주에 11명 등 총 92명이 있다. 결국 종묘에 봉안된 신주는 총 합계가 173명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종묘의 신주를 정전 및 영녕전, 배향공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정전의 신위

현재 종묘에 모셔진 신위는 19실에 19대의 왕들과 왕비들이 모셔져 있다. 이들 신위들을 정리해서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종묘에 봉안된 역대 국왕 및 왕비의 신주

왕호	생년	재위기간	선왕	생부	생모	관계	왕비	부묘시기
태조 (太祖)	1335 ~ 1408	1392 ~ 1398		이지춘 (李子春)	최씨(崔氏)	次男	신의왕후한씨 (神懿王后韓氏) 신덕왕후강씨 (神德王后康氏)	태종 10년(1410) 7월 26일
대종 (太宗)	1367 ~ 1422	1400 ~ 1418	정종 (定宗)	태조 (太祖)	신의왕후한씨 (神懿王后韓氏)	五男	원경왕후민씨 (元敬王后閔氏)	세종 6년(1420) 7월 12일
세종 (世宗)	1397 ~ 1450	1418 ~ 1450	태종 (太宗)	태종 (太宗)	원경왕후민씨 (元敬王后閔氏)	三男	소원왕후심씨 (昭憲王后沈氏)	문종 2년(1452) 4월 10일
세조 (世祖)	1417 ~ 1468	1455 ~ 1468	단종 (端宗)	세종 (世宗)	소원왕후심씨 (昭憲王后沈氏)	次男	정희왕후윤씨 (貞熹王后尹氏)	성종 원년(1470) 12월 16일
성종 (成宗)	1457 ~ 1494	1469 ~ 1494	예종 (睿宗)	의정세자 (懿敬世子)	소혜왕후한씨 (昭惠王后韓氏)	次男	공혜왕후한씨 (恭惠王后韓氏) 정원왕후윤씨 (貞顯王后尹氏)	연산군 3년(1497) 2월 11일
중종 (中宗)	1488 ~ 1544	1506 ~ 1544	연산군 (燕山君)	성종 (成宗)	정원왕후윤씨 (貞顯王后尹氏)	次男	단경왕후신씨 (端敬王后愼氏) 장경왕후윤씨 (章敬王后尹氏) 문정왕후윤씨 (文定王后尹氏)	명종 2년(1547) 정월 12일
선조 (宣祖)	1552 ~ 1608	1567 ~ 1608	명종 (明宗)	덕흥대원군 (德興大院君)	하동부대부 인정씨(河東府 大夫人鄭氏)	三男	자인왕후박씨 (懿仁王后朴氏) 인목왕후김씨 (仁穆王后金氏)	광해군 2년(1610) 4월 11일
인조 (仁祖)	1595 ~ 1649	1623 ~ 1649	광해군 (光海君)	정원군 (定遠君: 원종)	인현왕후구씨 (仁獻王后具氏)	長男	인열왕후한씨 (仁烈王后韓氏) 장연왕후조씨 (莊烈王后趙氏)	효종 2년(1651) 7월 7일

왕호	생몰연대	재위기간	신왕	생부	생모	관계	왕비	부묘시기
효종 (孝宗)	1619 ~ 1659	1649 ~ 1659	인조 (仁祖)	인조 (仁祖)	인열왕후한씨 (仁烈王后韓氏)	次男	인선왕후장씨 (仁宣王后張氏)	현종2년(1661) 7월 7일
현종 (顯宗)	1641 ~ 1674	1659 ~ 1674	효종 (孝宗)	효종 (孝宗)	인선왕후장씨 (仁宣王后張氏)	長男	명성왕후김씨 (明聖王后金氏)	숙종2년(1676) 10월 15일
숙종 (肅宗)	1661 ~ 1720	1674 ~ 1720	현종 (顯宗)	현종 (顯宗)	명성왕후김씨 (明聖王后金氏)	長男	인경왕후김씨 (仁敬王后金氏) 인현왕후민씨 (仁顯王后閔氏) 인원왕후김씨 (仁元王后金氏)	경종2년(1722) 8월 10일
영조 (英祖)	1694 ~ 1776	1724 ~ 1776	경종 (景宗)	숙종 (肅宗)	화경숙빈최씨 (和敬淑嬪崔氏)	次男	정성왕후서씨 (貞聖王后徐氏) 경순왕후김씨 (貞純王后金氏)	정조2년(1778) 5월 2일
정조 (正祖)	1752 ~ 1800	1776 ~ 1800	영조 (英祖)	장헌세자 (莊獻世子:장조)	혜빈홍씨 (惠嬪洪氏)	長男	효의왕후김씨 (孝懿王后金氏)	순조2년(1802) 8월 9일
순조 (純祖)	1790 ~ 1834	1800 ~ 1834	정조 (正祖)	정조 (正祖)	수빈박씨 (綏嬪朴氏)	次男	순원왕후김씨 (純元王后金氏)	헌종3년(1837) 정월 7일
문조 (文祖)	1809 ~ 1830	-	-	순조 (純祖)	순원왕후김씨 (純元王后金氏)		신정왕후조씨 (神貞王后趙氏)	헌종3년(1837) 정월 7일
헌종 (憲宗)	1827 ~ 1849	1834 ~ 1849	순조 (純祖)	효명세자 (孝明世子:문조)	신정왕후조씨 (神貞王后趙氏)	長男	효현왕후김씨 (孝顯王后金氏) 효정왕후홍씨 (孝定王后洪氏)	철종2년(1851) 8월 6일
철종 (哲宗)	1831 ~ 1863	1849 ~ 1863	헌종 (憲宗)	전계대원 군(全溪大院君)	용성부대부인 엄씨(龍城府大夫人廉氏)	三男	철인왕후김씨 (哲仁王后金氏)	고종2년(1866) 6월 6일
고종 (高宗)	1852 ~ 1919	1863 ~ 1907	철종 (哲宗)	흥선대원 군(興宣大院君)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閔氏)	次男	명성왕후민씨 (明成王后閔氏)	순종14년(1920) 3월 31일
순종 (純宗)	1874 ~ 1926	1907 ~ 1910	고종 (高宗)	고종 (高宗)	명성왕후민씨 (明成王后閔氏)	次男	순명왕후민씨 (純明王后閔氏) 순경왕후윤씨 (純貞王后尹氏)	

위의 표를 보면 종묘에 봉안된 신주들은 문조(文祖)를 제외하면 전부 실제로 국왕으로 즉위하여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다만 문조의 경우 현종의 아버지로 추존되어 종묘에 봉안되었는데, 친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왕조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종묘에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예제의 원칙상 5묘제, 즉 5대의 신주(태조와 현왕의 4대 조상)만이 종묘에 봉안해야만 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현재의 종묘에는 19대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선왕 중에 특별한 공(功)과 덕(德)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세실(世室)’로 정해 영원히 종묘에서 옮기지 않는 불천위(不遷位)로 삼는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조는 고종대에 이르러 대한제국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황제국을 자처하였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7묘제, 즉 창업의 군주인 태조와 순종·고종·철종·현종·문조·순조까지의 7대가 원대대로의 종묘제사의 대상이고, 나머지 태종 이하 정조까지의 신주는 모두 불천위인 ‘세실’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15실에 봉안되어 있는 문조(익종)의 존재이다. 문조는 24대 왕인 현종의 아버지이자 23대 왕인 순조의 큰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다. 순조 30년(1830)에 그는 사망하였고, 이후 순조의 왕위는 손자인 현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종이 즉위하자 아버지인 효명세자를 익종(翼宗)으로 추증하고, 동왕 3년(1837) 정월 춘향대제를 지내면서 종묘의 17실에 봉안하였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추존된 왕들이 종묘에 일단 봉안되면 그가 친진(親盡)이 될 때까지 종묘에 그대로 두다가 친진이 이루어지면 예외 없이 불천위로 지정하지 않고 영녕전으로 그 신주를 옮겼다. 그런데 정조의 아버지, 흔히 사도세자로 알려진 장조(莊祖)의 신주는 영

녕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것은 장조가 이미 친진으로 영녕전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시기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인 고종 2년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이것이 대한제국 설립 이후라면 고종과 순종의 시대에는 장조가 친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영녕전의 신위

영녕전은 총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중앙에는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신위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왼쪽의 협실에는 정종(定宗), 문조(文祖), 단종(端宗), 덕종(德宗), 예종(睿宗), 인종(仁宗)이, 오른쪽의 협실에는 명종(明宗), 원종(元宗), 경종(景宗), 진종(眞宗), 장조(莊祖),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들 신위들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영녕전에 봉안된 역대 왕과 왕비들

왕호	생몰연대	재위기간	선왕	생부	생모	관계	왕비	부묘시기	천묘시기
목조 (穆祖)	? ~ 1274	×	×	이양무 (李陽茂)	이씨(李氏)	?	공효왕후이씨 (恭孝王后李氏)	태조 4년 (1395) 10월 5일	세종 3년(1421) 12월 16일
익조 (翼祖)	? ~ ?	×	×	목조 (穆祖)	공효왕후이씨 (恭孝王后李氏)	?	정숙왕후최씨 (貞淑王后崔氏)	태조 4년 (1395) 10월 5일	문종 2년(1452) 4월 9일
도조 (度祖)	? ~ 1342	×	×	익조 (翼祖)	정숙왕후최씨 (貞淑王后崔氏)	四男	경순왕후박씨 (敬順王后朴氏)	태조 4년 (1395) 10월 5일	단종 2년(1454) 7월 15일
환조 (桓祖)	1315 ~ 1360	×	×	도조 (度祖)	경순왕후박씨 (敬順王后朴氏)	?	의혜왕후최씨 (懿惠王后崔氏)	태조 4년 (1395) 10월 5일	성종 3년(1472) 정월 12일
정종 (定宗)	1357 ~ 1419	1398 ~ 1400	태조 (太祖)	태조 (太祖)	신의왕후한씨 (神懿王后韓氏)	次男	정안왕후김씨 (定安王后金氏)	세종 3년 (1421) 12월 18일	연산군 2년 (1496) 정월 20일

왕호	생몰연대	재위기간	선왕	생부	생모	관계	왕비	부묘시기	천묘시기
문종 (文宗)	1414 ~ 1452	1450 ~ 1452	세종 (世宗)	세종 (世宗)	소헌왕후심씨 (昭憲王后沈氏)	長男	현덕왕후권씨 (顯德王后權氏)	단종 2년 (1454) 7월 16일	선조 2년 (1509) 8월 16일
단종 (端宗)	1441 ~ 1457	1452 ~ 1455	문종 (文宗)	문종 (文宗)	현덕왕후권씨 (顯德王后權氏)	長男	정순왕후송씨 (定順王后宋氏)	×	숙종 24년 (1698) 12월 24일
덕종 (德宗)	1438 ~ 1457	×	×	세조 (世祖)	정희왕후윤씨 (貞熹王后尹氏)	長男	소혜왕후한씨 (昭惠王后韓氏)	성종 7년 (1476) 정월 9일	광해군 2년 (1610) 4월 10일
예종 (睿宗)	1450 ~ 1469	1468 ~ 1469	세조 (世祖)	세조 (世祖)	정희왕후윤씨 (貞熹王后尹氏)	次男	장순왕후한씨 (章順王后韓氏) 안순왕후한씨 (安順王后韓氏)	성종 3년 (1472) 정월 12일	광해군 2년 (1610) 4월 10일
인종 (仁宗)	1515 ~ 1545	1544 ~ 1545	중종 (中宗)	중종 (中宗)	장경왕후윤씨 (章敬王后尹氏)	長男	인성왕후마씨 (仁聖王后馬氏)	명종 2년 (1547) 9월 17일	현종 2년 (1661) 7월 3일
명종 (明宗)	1534 ~ 1567	1545 ~ 1567	인종 (仁宗)	중종 (中宗)	문정왕후윤씨 (文定王后尹氏)	次男	인순왕후신씨 (仁順王后沈氏)	선조 3년 (1569) 8월 16일	현종 2년 (1661) 7월 5일
원종 (元宗)	1580 ~ 1619	×	×	선종 (宣祖)	인빈김씨 (仁嬪金氏)	長男 ?	인현왕후구씨 (仁獻王后具氏)	인조 14년 (1655) 3월 19일	경종 2년 (1722) 8월 8일
경종 (景宗)	1688 ~ 1724	1720 ~ 1724	숙종 (肅宗)	숙종 (肅宗)	희빈장씨 (禧嬪張氏)	長男	단의왕후심씨 (端懿王后沈氏) 선의왕후어씨 (宣懿王后魚氏)	영조 2년 (1726) 10월 13일	현종 3년 (1857) 정월 7일
전종 (顯宗)	1719 ~ 1728	×	×	영조 (英祖)	정빈이씨 (靖嬪李氏)	長男	효순왕후조씨 (孝純王后趙氏)	정조 3년 (1778) 5월 2일	철종 2년 (1851) 6월 9일
장조 (莊祖)	1735 ~ 1762	×	×	영조 (英祖)	영빈이씨 (映嬪李氏)	長男	헌경왕후홍씨 (獻敬王后洪氏)	?	순조 14년 (1844) 3월 1일
영왕 (英王)	1897 ~ 1970	×	×	고종 (高宗)	귀비엄씨 (貴妃嚴氏)	七男	의민황태자비 이씨(懿愍皇太子妃李氏)	×	1974년 5월 6일

위의 표를 보면 영녕전에 봉안된 신주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같이 이성계의 4대조

로 추증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바로 왕으로 추증되었고, 종묘가 태조 4년(1395)에 건설되자 바로 종묘에 봉안되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 생존해 있지도 않았고, 더욱이 왕으로 활약한 적도 없지만 이성계의 조상이라는 이유로 종묘에 봉안된 인물들이다. 원래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면 종묘와 사직이 건설되고, 종묘에 봉안되는 첫 신주는 개창자인 태조가 된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 묘제(廟制)를 넘어 친진(親盡)된 대상이 나오면 별묘를 세워 종묘에서 신주를 옮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건국자의 선조는 따로 별전(別殿)을 세워 신주를 봉안할 뿐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역대 왕조나 고려시대의 경우 일부의 가감(加減)이 있었지만 대체로 준수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이와 달리 건국 시조의 4대 조상을 종묘에 안치하였고, 태조는 죽은 뒤 5번째의 신주로 종묘에 봉안되었다. 이후 정종이 죽자 5대를 넘는 목조를 영녕전으로 옮겼고, 세종의 사후 익조를, 문종의 사후 도조를, 예종의 죽은 후 환조를 영녕전에 각각 옮겼던 것이다.

정종, 분종, 단종, 예종, 인종, 명종, 경종 등은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 활약하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3년간 왕위에 있었던 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재위기간이 1~2년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이들이 죽은 후에 다음대의 왕위는 자식이 아닌 동생들에게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후대에 그들은 불천위(不遷位)로 지정되지 못하고, 친진(親盡)이 되자 바로 영녕전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단종의 경우에는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후의 왕들 역시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없어 그대로 봐두었다. 그러다가 200여년이 지난 숙종때에 이르러서야 복위되고 단종이라는 묘호(廟號)를 받아 영녕전에 그 신주가 봉안되었다.

덕종, 원종, 진종, 장조 등은 조선왕조 기간 동안에 추증되어 종

묘에 부묘되었다가 영녕전으로 옮겨진 경우이다. 이들은 현 국왕이 바로 앞의 선왕과 혈연적으로 부자(父子) 관계를 갖지 않았을 경우 친아버지 혹은 의제적(擬制的)인 아버지의 자격으로 추증되어 종묘에 모셔졌던 인물들이다. 이중 덕종은 성종의 친부인 의경세자(懿敬世子: 세조의 장자)이고, 원종은 인조의 친부인 정원군(定遠君: 선조의 3자), 장조는 정조의 친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 영조의 2자)이다. 다만 진종의 경우 조금 다른데, 그는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로, 영조가 다음대의 왕위가 세손(世孫)인 정조에게 옮겨졌을 때의 정치적 불안을 막고자 유언으로 효장세자와 정조를 부자지간으로 만든 것에 기인해 그 신주가 종묘에 봉안되었다가 영녕전으로 옮겨진 것이다.

의민황태자의 경우 조선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그를 순종의 다음대로 인정해 영녕전에 봉안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의민황태자의 경우 정식으로 황제(혹은 왕)로 즉위한 적이 없고, 현재 영녕전의 신위들은 추증된 왕의 경우에도 종묘를 거쳐 영녕전으로 옮겨졌으며, 그리고 종묘의 친진(親盡)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선왕조 500년간 지속되어온 일관된 원칙인데, 후손들이 임의적으로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종묘의 올바른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종묘대제의 의식절차

종묘대제는 제사 당일의 행사로만 파악할 수가 없다. 이미 제사

7일전부터 제례가 시작되고, 제사 전날에는 제사에 쓸 희생을 마련하는 등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 제사 7일전부터 당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종묘대제의 과정은 제사 7일전부터 제사 당일 국왕의 행차가 나오기 전까지 제례의 선행절차를 1단계로, 국왕의 어가가 종묘에 도착하는 과정을 2단계로, 국왕의 주재하에 실제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3단계로, 제사가 끝난 후 국왕이 돌아가고, 조하를 받는 과정이 4단계로 각각 구분된다.

여기서는 종묘대제의 기본적인 원형을 알 수 있는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국왕이 친행하는 대제를 중심으로 제사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가. 제례의 선행절차

① 종묘제사의 포고

제사 8일전에 제사의 주부 관청인 예조에서 제사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왕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관청에 그 사실을 통고한다.

② 서계(誓戒)

제삿날 7일 전에 제사에 참여하는 헌관(獻官) 및 집사관(執事官), 배제(陪祭)하는 종친과 문·무 백관이 모두 공복(公服)을 입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서계는 제사에 참석하기 전에 엄숙한 마음가짐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③ 재계(齋戒)

재계는 제사가 시행되기 전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제

사의 규모에 따라 그 기일이 다르다. 종묘는 제사의 규모가 가장 큰 대사(大祀)이므로, 7일간 시행하는데, 산재(散齋) 4일과 치재(致齋) 3일로 구성된다. 산재 기간에 국왕은 별전(別殿)에서 시행하는데,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삼간다. 치재 기간은 산재가 끝난 뒤에 제사지내는 날까지로, 제사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인데 3일 중 2일은 정전(正殿)에서 지내고, 1일은 재궁(齋宮)에서 지낸다.

④ 진설(陳設)

제사를 시행하기 며칠 전부터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제단에 미리 설치하고, 청소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제관 및 문·무관, 종친 등의 제단 내의 자리 및 종묘의 문밖에 대기하는 자리인 문외위(門外位) 등을 미리 마련한다. 3일 전부터 시작하여 제사 당일까지 일정한 순서에 의해 시행한다.

⑤ 희생을 살피봄(省牲器)

제사 하루 전에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과정이다. 친제일 경우에는 아헌관이나 종헌관이 시행하고, 섭사인 경우에는 초헌관이 주관한다.

나. 거가출궁(車駕出宮)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궁궐에서 종묘의 재궁으로 행차하는 과정이다.

다. 의식의 시작

왕이 왕궁에서 재궁으로 출발하는 도중에 종묘의 제단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왕이 재궁에 도착하고, 곧이어

종묘의 위치(位次)에 이르면 의식이 곧 시작된다. 여기서는 왕이 제단에 도착하여 의식이 시작되는 과정까지를 언급한다.

- ① 제찬(祭饌)의 준비
- ② 제관의 정렬
- ③ 신주봉영(神主奉迎)
- ④ 국왕이 자리에 나감(國王就位)

라. 영신례(迎神禮)

왕이 제사를 하는 위치에 이르면 관원이 행사의 시작을 왕에게 청한다. 왕이 이를 허락하면, 신을 부르는 예인 영신례가 시행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가 실시된다.

① 청행례(請行禮)

② 신관례(晨褻禮)

종묘의 신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울창주(鬱遼酒)를 부으며 시행하는 의례이다. 그 순서는 삼상향(三上香)→관창(饌烝)→전폐(奠幣)→진모혈·간등(進毛血肝登瓦)의 4단계로 구성된다. 전폐까지는 초헌관인 왕이 시행하고, 진모혈·간등은 축사가 시행한다.

마. 작헌례(酌獻禮)

종묘의 신위들에게 술잔을 올리는 예를 말한다. 제례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먼저 찬물(饌物)을 올린 뒤에 초헌관이 술잔을 올리고 아헌관, 종헌관이 그 뒤를 이어 차례대로 술잔을 드린다. 그리고 조상신에게 술잔을 다 드린 후에 그들에게서 술과 고기를 하사받아 음복(飲福)과 수조(受胙)를 시행한다. 종묘제례에서는 일반 민간과

달리 선왕들에 대한 이같은 작헌례 외에 따로 칠사와 배향공신에 대한 예를 겸하여 드린다.

① 진찬(進饌)

② 작헌례 : ㉠ 초헌례(初獻禮) ㉡ 아헌례 ㉢ 종헌례 ㉣ 칠사례
㉤ 배향공신례

③ 음복례(飲福禮) : ㉠ 음복(飲福) ㉡ 수조(受薦) ㉢ 사배

바. 송신례(送神禮)

제례가 끝나고 신위들을 보내는 과정이다. 먼저 제사에 쓴 제기들을 거두고, 왕에게 제례가 끝났음을 알린다. 왕은 재궁으로 돌아가고 아헌관이 제물을 파묻는 과정을 지켜보는 망예(望瘞)를 시행한다. 이것이 끝나면 신주를 갈무리함으로써 제사가 완전히 끝난다.

① 철변두(徹饔豆) ② 계예필(啓禮畢) ③ 망례(望瘞) ㉣ 제관 퇴장 ④ 납신

사. 거가환궁(車駕還宮)

왕이 제사를 마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궁궐로 돌아온 후에는 제사를 올바르게 시행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축하의 예를 드리고 이에 대한 화담으로 왕이 축하연을 베풀기도 한다.

① 거가환궁(車駕還宮)

② 환궁(還宮)후 칭하(稱賀)

제9기 전주학시민강좌

경기전과 조선왕실제례

발행처 | 전주역사박물관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T. 063-228-6485~6 F. 063-228-6484

펴낸곳 | 흥디자인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2가 916-6

T. 063-241-8082 F. 063-242-8083

발행일 | 2010. 8. 31

ISBN

〈비매품〉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